

성경 공과

제3권

가정 예배 (For Home Worship)



뱀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3권

For Home Worship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의 목적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해하고 예배함을 돕는 것입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3권 가정 예배를 위해, home worship 만을 모아 가지고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 가정 예배 (Home Worship)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못하거나,

또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감지한 부모들을 위한 설교 자료이므로 이 자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필요시 찬송 까지 곁들이면 가정에서도 주님을 향한 성심어린 예배를 훌륭히 꾸려가리라 확신합니다.

성서는 구절이나 문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인 글자 의미 “예수의 겉옷”을 통해 전달되므로 성서를 읽는다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지상의 모든 교파가 자기들에게 적합하도록 찢어 다시 꿰매 수도 있는 성서 지식입니다.(요한복음 19장 23-24절) 그러나 영적 의미는 “예수의 속옷”입니다. 이 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술 없이 통으로 짠 것”으로 인간의 거듭남을 위한 지식을 알려 줍니다. 가장 깊은 의미인 천적 의미는 주님 자신에 관한 사항들, 특히 주님께서 신성화 하신 과정의 설명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한 것같이 여겨졌기 때문에서입니다. 그러나 상응적인 해석과 이해를 위해 개역 성경 또는 영문 성경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역이 심할 경우 상응에 의한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성서의 합리적 이해를 위한 더 많은 자료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네 눈이 한결같다(single)면, 네 몸 전체는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마태복음 6장 22,23절

차례

1. 창조 제 5-6일	창세기 1장 20-31절	9
2. 뱀	창세기 3장	13
3. 무지개	창세기 9장 1-17절	18
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22
5. 이삭과 리브가	창세기 24장	26
6.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33
7.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창세기 41장	38
8. 열 가지 재앙	출애굽기 7-10장	44
9. 메추라기와 만나	출애굽기 16장	54

10. 성막	출애굽기 26, 27장	59
11.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65
12. 요르단강을 건너다	여호수아 3, 4장	71
13. 기브온 주민들	여호수아 9장	77
14. 판관 입다	판관기 11장	82
15. 빼앗긴 레와 돌아온 레	사무엘상 4장 1-11절 5장, 6장 1-16절	87
16. 사울과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1-46절	93
17.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사무엘하 6장	99
18. 성전 건축	열왕기상 6장	103
19. 엘리야의 겂옷	열왕기하 2장	108
20. 요시아 왕	열왕기하 22장	113
21. 주님께 의지하는 자	시편 91편	118
22. 성전에서 솟는 샘	에제키엘 47장 1-12절	123
23. 느부갓네살왕의 꿈	다니엘 2장	127
24.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아모스 8장	133
25. 강림에 대한 예언	말라기 3장	139
26. 세례자 요한의 출생	누가복음 1장	143
27. 주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20절	150
28. 나인 성의 과부	누가복음 7장 1-30절	154
29. 열 두 사도의 파견	누가복음 9장 1-36절	159
30.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25-42절	165
31.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누가복음 11장	170
32. 큰 잔치	누가복음 14장	176
33. 방탕한 아들	누가복음 15장	182
34. 부정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88
35. 종려주일(3)	누가복음 19장	194
36. 부활절(3)	누가복음 24장 1-12절	200
37.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누가복음 24장 13-53절	205

38. 네 기수들 요한 계시록 6장 210
39. 일곱 썩은 봉인 요한 계시록 8; 9장 215
40.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 계시록 21장 9-27절 221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6:39

1

창조 제 5-6일

머리말

본과의 서론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이다. 즉,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창조 제1-4일 동안과 제 7일째에 있는 내용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0-31절

1장: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낚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교리 요점 (Doctrinal Points)

- * 주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시작이며 창조자이시다.
- * 우리 마음속의 두 평면인 자연적인 평면과 영적인 평면은 서로 뚜렷하게 구별된다.
- *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 *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바램들을 잘 조절해야 한다.

해설

성경은 1500여년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완성된 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마치 현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처럼 여기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성경은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매해 수천만권 이상 팔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 자아발전을 위한 어떤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기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인간의 역사와 삶 그리고 자연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기대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기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는 그분에 관한 것,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깊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읽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읽히는 곳이 어디서든지 인간을 변화 시켰고, 이로 인해 그들의 역사도 바꿔놓았을 만큼 하나님의 힘이 담긴 책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의미는 말씀의 표면에서는 좀처럼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도덕적인 교훈이 담긴 동화를 그저 평범한 이야기처럼 읽어 주듯이 성경을 막연히 읽는 사람은 단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사건의 이야기들만 알 수 있을 뿐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모르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쓰인 이유는 주님이 보실 때 인간은 어린아이에 불과하여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야 했기 때문이다.

본과는 제 3권의 첫 공부로서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본과의 말씀은 창조에 관한 것이다. 창세기의 첫 장은 모든 남녀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즉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지능을 가진 고등 동물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부모가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자라기를 희망한다면, 부모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도록 가르치며 그들을 인도하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From the Writings of Swedenborg)

「천국의 신비」 제 44-45항: “인간은 땅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관한 지식이 인간 안에 먼저 밝혀지지 않으면 어떤 선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먼저 자신이 믿고 행해야 할 것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 안에는 이해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곳이 이해성이고 들은 것을 행하는 곳이 의지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신념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듣는 것과 행함이 분리되어 분단된 마음을 가지는 바, 이를 일컬어 주님께서는 다음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로 부르신다. 즉,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마태복음 7:24,2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성에 속하는 것들은 ‘바다가 상징하는 것들’, ‘창공 아래의 새들’ 또는 ‘창공 위에 있는 물’로 의미되고 있다. 그러나 의지에 속하는 것들은 여기서 ‘땅이 생산하는 동물’로 의미되는데, ‘짐승’이나 ‘기는 것’ 또는 ‘땅의 길짐승’ 등으로 의미된다.”

질문 정리 (Suggested Questions on the Lesson)

- 1)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 2) 왜 이 책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이 책의 첫 11장까지와 나머지 성경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성경은 어떻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가?
- 5) 성경의 첫 다섯 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6) 창세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7)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은 무엇인가?
- 8) 몇 일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 9) 날이란 말은 우리의 24시간을 뜻하는가?
- 10) 넷째 날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1) 해와 달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12)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3)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4)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5) 인간은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 16) 인간은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17) 태초 전에 창조된 것이 있었는가?
- 18)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 20) 고기와 새 그리고 동물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21) “정복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성경 2)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3) 순수한 상징
- 4) 구약과 신약성서 5) 모세 오경 6) 시작 7) 한 처음에
- 8) 6 9) 아니요 10) 해와 달 그리고 별 11) 하느님에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12) 고기와 새 13) 동물 14) 인간 15) 하느님의 모습
- 16)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17) 아니요 18) 하느님이 쉬셨다
- 19) 그분에 관한 것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 20) 지성과 생각 그리고 애착 21) 조절하라

2 뱀

머리말

1권과 2권에서 공부한 창조의 과정을 상기하면서 본과를 시작한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인간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심정 상태가 에덴의 동산이며 인간이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했다면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동산의 두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련된 주님의 명령을 상기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제 3장

3장: 1.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3.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4.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5.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6.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 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7.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8.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띄이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9.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10.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11.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 주더냐? 내가 따 먹지 말라고 알려 준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12.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13. 야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 먹었습니다.” 14. 야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15.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16.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17.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 먹지 말라고 내가 일찌기 일러 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18.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19.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20.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21. 야훼 하느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22.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고 생각하시고 23.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었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24.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갈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교리 요약

- * 우리의 중심 원리는 주님을 신뢰함과 자아를 신뢰함이라는 두 가지로서 이들은 서로 반대된다.
- * 현상(외관 혹은 가상)에 관한 교리는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에게 저주하신 서술과 연결된다.

해설

에덴의 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하다. 자연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 대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성서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임은 수많은 오류의 교리들을 낳게 했다. 원죄에 관한 교리, 즉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상속되어 왔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 지성의 향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창세기의 앞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창세기 앞부분의 말씀을 아예 따로 떼어버리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일부 기독교인들은 과학적인 설명이나 합리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아예 눈감아 버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창세기의 글자적인 이야기와 그로부터 파생된 원죄라는 것에 매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온 바와 같이

창조의 기록들은 주님께서 인간과 세상의 자연적인 역사를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발달에 관해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글자 그대로 사실이 아닌 상징적인 이야기, 즉 인류라는 면에서의 전체 인격이 어떻게 발달되며 변화하는가와 각 개인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달되는가에 대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느님이 순수한 사랑과 지혜의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모든 신앙인들을 곤란케 만든다. 이에 대해 스웨덴북은 인간이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아를 신뢰함을 선택함으로써 악이라는 것을 있게 만들었다고 답한다. 즉, 악이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절대적인 것이 아닌 인간에게 비롯된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어떤 힘이나 실재함을 갖지 못한다. 자신을 신뢰함이란 먹지 말도록 명령된 나무의 실과,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징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을까? 스웨덴북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 안의 감각적인 욕구들의 충동 곧 당장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우리의 보다 높은 본성을 희생시키거나 보류해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시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이 바로 뱀으로서 상징되고 있다. 그리고 뱀으로 상징되는 감각적인 욕구들의 충동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까다롭고 극복하기 힘든 시험에 해당된다. 즉,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이라는 삼각관계의 이야기는 이 말씀이 기록된 머나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같은 진리를 내포한다.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갖게 되는 의문 중 하나는 ‘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섬길지를 선택하도록 창조되어서 이토록 악하게 되었을까?’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택의 자유만이 우리를 참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며 선택의 자유로 인해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사랑하고 싶은 것과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권이 없으면 의를 행함에 따르는 행복이나 미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을 때 그들이 성장되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기로운 부모와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94-195항: 여기서의 ‘뱀’은 인간이 신뢰하는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들짐승’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외적인 인간의 모든 애착을, ‘여인’은 인간 자신의 것 또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냐?”라는 뱀의 말은 인간 자신의 것이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주체는 태고 교회의 세 번째 후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끼며 인정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 이 과정의 첫 상태가 의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 다음 절까지 이어진다. 태고 교회 사람들은 인간 속의 모든 것을 짐승이나 새들에 비유했다. 이러한 관습은 홍수 뒤의 고대 교회에 이르러서도 잔존했고 예언자들 사이에도 보존되었던 것이다. 인간 속의 감각적인 것들은 ‘뱀’으로 불렸는데, 이는 뱀이 땅에 붙어살듯이 감각적인 것들이 육체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태고 교회 인들은 믿음의 신비와 관련된 추론들과 감각들이 증거에 기초를 두는 것을 ‘뱀의 독’이라 부르고, 그렇게 추론하는 자신들은 ‘뱀’이라고 일컫는다. 그들이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곧 눈에 보이는 것들(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 자연적인 것 등)로부터 더욱 추론하여 말씀은 “아훼 하느님께서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라고 기록한다.”

질문 정리

- 1) 성경 첫 장 첫 절을 기억하는가?
- 2) 우리 속의 하늘과 땅은 무엇인가?
- 3) 영적 의미에서 창세기 제 1장은 무엇을 다루는가?
- 4)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 5) 첫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6) 지상에서 발달된 첫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7) 첫 교회의 아름다운 상태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 8) 제 1장이 끝난 뒤 첫 남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 9) 어떤 특별한 나무가 언급되고 있는가?
- 10)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1) 생명나무는 이야기 처음에 동산 어디에 있었는가?
- 12) 첫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 13)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 뱀은 무엇인가?
- 15) 뱀은 이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6) 이브와 아담은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17) 그 뒤 그들은 왜 부끄러워했는가?
- 18) 그들은 그들의 알몸을 어떻게 가렸는가?
- 19) 불순종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는가?
- 20) 동산은 어떻게 보호 되었는가?
- 21) 주님의 강림에 대한 첫 예언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한 처음에... 2)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 3) 거듭나는 단계
- 4)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것 5) “땅”을 지배하라 6) 태고 교회
- 7) 에덴 8) 아담과 이브 9)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10)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된다는 원리 11) 중앙
- 12)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 13)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
- 14) 감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15) 절대로 죽지 않는다.
- 16) 열매를 먹었다 7) 불순종에 대한 죄의식 18) 무화과나무 잎
- 19) 동산에서 추방됨 20) 거룩들 21) 제 15절 참조

3

무 지 개

머리말

뱀의 유혹에 관한 내용은 태고 교회의 타락에 관한 내용과 직결된다. 본문의 주된 내용은 그 타락의 결말인 파멸로부터 남겨져야 할 선한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성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9장 1-17절

9장: 1.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낱아,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거라. 2.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3.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4.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5.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양갓음을 하리라. 어떤 짐승에게도 양갓음을 하리라. 6.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7. 너희는 많이 불고 불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8.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9.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10.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짐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11.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 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12.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 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13.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14. 나는 너 뿐 아니라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17.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것이 땅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교리 요점

* 인간 안에 있는 의지와 이해성

- * 재구성(개혁)과 거듭남의 교리
- * 역사의 기초로서 이어지는 주님의 처방에 관한 생각들
- * 고대 말씀

해설

우리는 흔히 처음으로 가보게 되는 곳으로 운전하는 도중 갈림길을 접하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표지판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야할 길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표지판대로 따르면 가고자 하는 곳에 문제없이 도착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혹 우리는 표지판이 없는 갈림길이나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려하거나 길을 물어보지도 않고 단순한 짐작에 의해서나 혹은 단순히 가기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기에 쉬워서 선택했던 길이 차후에 보니 목적지와는 전혀 반대 방향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택의 기회는 우리의 삶 매순간에 다분하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늘 올바른 표지판을 세워 두신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스스로가 주님보다 더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진다. 한번 잘못 내딛은 길은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뱀의 유혹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계속 내리막길로 치달아 결국 주님의 길에서 아주 멀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의 악한 열정과 거짓된 생각들이 실제로 그들을 파괴할 지경에 이르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태고 교회인들의 파멸은 본문에서 홍수의 이야기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러한 험한 시험 속에서도 굳세게 서서 선을 지키며 악을 사랑하는 다수를 따르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선한 사람들이 바로 노아로 상징되고 있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여 멸망의 폭풍을 타고 넘어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나운 폭우가 지난 후 구름을 뚫고 태양이 비쳐올 때 하늘 어두운 부분의 반대편에서 아름다운 색깔로 된 둥근 테두리를 지닌 무지개를 보게 된다. 무지개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격렬했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지나 소유하게 되는 그 순간을 상징한다. 주님께서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지성 속에 담아 두신 그분의 말씀에서 온 진리의 한 조각을 우리를 위해 밝혀주신다. 즉, 과거에는 쓸모없어 마치 해묵은 쓰레기와 같이 여겨져 마음속 어느 곳에 쳐 박혀 있었던

진리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것이다. 설사 우리의 인생이 어둡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권능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축복하고 계심을 무지개라는 상징적인 한 단어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042항: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이란 거듭나는 영적 사람의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구름사이에 있는 활 또는 무지개가 태양 광선이 빗방울을 수식함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여기며 언약의 표시로 말씀에서 무지개를 취하고 있음을 의아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름사이의 활’이란 거듭남을 표현하고 거듭나는 영적인 사람의 상태도 의미함을 상응을 알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다. 영적 천사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듭난 이들인데, 이들이 저 세상 삶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그들 머리 주위에는 무지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는 무지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일치하여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그들의 속성이 천국과 영들의 세계에 알려진다. 무지개의 현상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것에 상응되는 자연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연적인 것 안에 주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빛이 수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천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영적 천사들이며, 천적인 천사들은 ‘불로’ 거듭난다고 말한다.

질문 정리

- 1) 지상의 첫 교회 사람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2)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3) 어떻게 악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 4) 선한 나머지 구원에 관하여 알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5) 홍수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 6)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첫 행동은 무엇이었던가?
- 7)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8) 그 약속의 표시는 무엇이었던가?

- 9) 무지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10) 우리는 무지개를 언제 보게 되는가?
- 11) 물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2) 구름에 있는 물방울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3)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태고 교회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 14)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 15) 왜 무지개가 노아와 만든 새 언약의 표시가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에덴 2) 태고교회 3) 인간의 불순종 4) 홍수
- 5) 거의 일년(참조 창세기 7:11,8:13) 6) 체단을 쌓다 7) 더 이상 홍수는 없다
- 8) 무지개 9) 물방울에 태양광선이 비춰져서 10) 폭풍이 끝난 직후
- 11) 진리 12) 지성 안의 지식들 13) 지각 14) 양심
- 15) 새로운 상태를 그려주려고 - 빛이 기억 속에 든 진리를 비춘다

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머리말

태고교회와 고대교회의 타락과 몰락을 간략히 살펴본 후 선하여서 남겨진 노아와 아브람의 부르심을 재조명해본다. 그리고 본문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설명한다.

성서본문: 창세기 16장

16장: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마침 사래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 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뜻을 받아들여 기로 하였다. 3.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소실로 들여보냈다. 이것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십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4. 아브람이 하갈과 한 자리에 들었더니, 하갈의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하갈은 그것을 알고 안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5. 그러자 사래가 아브람에게 호소하였다.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은 당신 탓입니다. 나는 내 몸종을 당신 품에 안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업신여깁니다. 야훼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몸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사래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은 주인 곁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7. 야훼의 천사가 빈들에 있는 샘터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터는 수르로 가는 길 가에 있었다. 8. 그 천사가 “사래의 종 하갈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하고 물었다. “나의 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자, 9. 야훼의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10. 이렇게 일러 주는 것이었다. “내가 네 자손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11. 야훼의 천사는 다시 “너는 아들을 배었으니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네 울부짖음을 야훼께서 들어 주셨다. 12. 네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닥치는 대로 치고 받아 모든 골육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13.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야훼를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뵈다니!”라고 한 데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14. 그래서 그 샘터를 “라하이 로이”라고 불렀다. 그 샘터는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15.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준 것은 아브람의 나이 팔십 육 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교리 요점

- *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
- * 우상의 기원
- * 겸손과 순종 - 영적 발전의 기초

해설

아브람은 역사적인 인물로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아브람의 고향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이다. 그는 고대 교회가 몰락된 후 갈라진 자들 중 하나인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 태어났다. 창세기 11장 1-9절에서는 고대 교회의 몰락이 바벨탑이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기술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면서 까지 하느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인 아브람을 발견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를 불러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라고 하였고, 거기서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브람은 이에 순종했고 주님께서는 그를 크게 번성시켜 주셨다.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와 그의 아내 사래는 아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다. 이에 조바심이 난 사래는 자신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진정한 결혼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상태여서 아브람 역시 사래의 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해 할 때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지해서 저지른 일은 경중에 관계없이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쁜 일인지 알면서 행한 것들로만 심판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래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옳은 것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하갈이 사래를 업신여겼을 때 아브람은 사래를 옹호했다. 하갈은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사래의 여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했다. 하갈이 슬피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를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셨다. 지금도 그분은 하갈을 대하시듯이 우리 모두를 대하고 계신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광야에 있는 샘터”이고, 그분의 전달자 곧 천사들은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며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갈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는

아브람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할 사항은 본문의 이름 “아브람”과 “사래”는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 17장 1-5절과 15-16절을 보면 그들의 이름에 붙이게 된 “h”는 주님의 이름 “Jehovah”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과거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처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이름에 “h”를 첨가하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949항」: “네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합리적인 진리를 의미함은 ‘들나귀’가 합리적인 진리를 상징함으로부터 명확해진다. 말씀 속에는 말, 승마자, 노새 그리고 나귀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것들이 지적인 것과 추론에 관한 것 그리고 기억적인 지식을 의미함을 아는 자는 여태껏 아무도 없었다. 이런 동물들과 승마자들이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짐은 주님의 신성한 자비로 인해 각자에게 적절한 부분에서 더 많은 확증을 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분류 속에 ‘들나귀’가 있는데, 이는 들나귀가 광야의 노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나귀는 인간의 합리성을 의미하지만, 복합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합리성이 아닌 합리적인 진리를 겉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합리성일 뿐이다. 진정한 합리성은 선과 진리로 이뤄진다. 다시 말해서, 이타애에 속하는 것과 믿음에 속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들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의 합리적인 진리에 해당된다. 이 진리가 이스마엘에 의해 표현되어 위의 구절로 기술되는 것이다. 즉, 선에서 분리된 합리적인 진리가 이스마엘이라는 특성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합리적인 진리를 말하거나 합리성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스마엘로 특징되는 합리성을 가진 사람은 설사 그가 믿음의 진리에 있다하더라도 진리 안에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타애의 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은 늘 침울하며 결실을 맺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에 부정적이어서 모든 이들을 거짓 속에 있는 자들로 간주한다. 또한 그는 항상 남을 비판하는 것에 빠르며 남을 응징하고 처벌하려고 한다. 게다가 그의 마음은 동정심 또는 타인과 보조를 맞추려하거나 적응해 보려는 것이 없고, 단지 상대방의 마음을 구부러트리기 위한 것만 알고 할 뿐이다. 그 이유는 그가 진리에서 근원된 모든 것은 열심히 찾으려하나 선에서 근원된 것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는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며느릿감을 이집트에서 골라 맞아들였다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창세기 21:9-21). 이 모든 것은 이와 같은 합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질문 정리

- 1) 세 번째 교회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가나안 땅의 어느 방향에서 정착했는가?
- 3)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아브람이 원하는 것 중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 5) 사래는 남편의 부족함을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했는가?
- 6) 하갈은 어느 나라 출신인가?
- 7) 그 여자는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8) 왜 하갈은 안주인을 피해 도망갔는가?
- 9) 그녀는 어디로 갔으며, 주님의 천사는 어디서 그녀를 발견했는가?
- 10) 천사는 그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렀는가?
- 11) 천사는 그녀의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12)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남쪽 3) 사래 4) 아들
- 5)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주었다 6) 이집트 7) 안주인을 업신여겼다
- 8) 박대 받았기 때문 9) 광야, 샘터 10) 되돌아가 순종하라
- 11) 큰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12) 이스마엘

5

이삭과 리브가

머리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아둔다. 그리고 이스마엘 대신 이사악이 상속자가 되었던 이유도 알아야 할 것이다.

성서본문: 창세기 24장

24장: 1.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야훼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2.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늙은 심복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3. 하늘을 내신 하느님,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며, 4.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사악의 신부감을 골라 오겠다고 하여라.” 5. 종이 물었다. “신부 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 가도 됩니까?” 6.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 가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7.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느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 오도록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8. 신부감이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 가지만은 말라.” 9.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10. 그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열 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 갔다. 11.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때여서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무렵이었다. 12.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훼여! 오늘 일이 모두 뜻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심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 주십시오. 13. 저는 지금 이 샘터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면 14.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 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느님의 심복 이사악의 아내감으로 정해 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제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15.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었다. 16.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터에 내려 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17.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 가서 그를 받기며 항아리의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청했다.

18.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 마시게 해주었다. 19.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 주고 나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다. 20. 그리고 병에 남은 물을 얼른 구유에 붓고는 물을 길으러 샘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21.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야훼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22. 이윽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는 반 세겔 나가는 금코고리를 아가씨에게 걸어 주고 다시 십 세겔 가는 금팔찌 두 개를 팔목에 끼워 주고는, 23. 리브가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뉘 닮았습니까?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는 하룻밤 쉬어 갈 만한 방이 없겠소?” 24. 리브가는, “저는 브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하고 대답하고 나서 25.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쉬어 가실만한 방도 있습니다.” 26. 그는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27. “내 주인의 하느님 야훼, 찬양을 받으실 분이여라. 야훼께서는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의 친척집에까지 인도해 주셨고나” 하며 찬양하였다. 28. 아가씨는 뛰어 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29.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으러 우물로 뛰어 나왔다. 30. 라반은 코고리와 누이동생 팔에 끼여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 나온 것이다. 나와 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서 있었다. 31. 라반이 권하였다. “야훼께 복 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 놓았고 낙타 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32.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신 다음 낙타 등에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 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 왔다. 33. 그리고 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심부름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에는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하였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34. 그는 입을 열어 말하였다.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35. 제 주인은 야훼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야훼께 많이 받았습니다. 36. 안주인 사리는 늘그막에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37.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38.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를 찾아 가서 며느리감을 골라 오너라.’

39. 제가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이 저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하고 여쭙었더니

40.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내가 섬겨 온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따라 보내시어 네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골라 올 수 있을 것이다. 41.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한테로 가기만 하면 네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42. 저는 오늘 그

샘터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42.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43.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혼기가 찬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 달라고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44. 만일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야훼께서 정해 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45.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길으러 샘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46.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47. 저는 리브가에게 뉘 덕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브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고리를 걸어 주고 두 팔목에 팔찌를 끼워 주고 나서

48.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인님의 조카딸을 주인댁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 내게 하셨습니다. 49.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길을 찾겠습니다.”

50. 그러자 라반과 브두엘이 “이 일은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51.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52.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53.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54. 그와

그의 일행은 융성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야겠다고 하자, 55.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56.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찾아 온 목적은 야훼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 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하고 듣지 않았다.

58.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 봅시다.” 58.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하겠습니다.”

59. 그러자 그들은 누이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 딸려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너는 역조창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네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61.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62. 그 때 이사악은 리하이 로이라는 샘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네겟땅이었다. 63. 저녁때가 되어 이사악은 들에 바람쐐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 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64.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사악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시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66.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경위를 낱낱이 이사악에게 보고 하였다. 67. 이사악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 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사악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랬다.

교리 요약

- * 보다 높은 합리적인 능력과 보다 낮은 합리적인 능력
- * 결혼에 관한 교리
- * 생명이 있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함과 진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해설

주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위해 기적을 수행하셨다. 그 이유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넘었기 때문이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우리는 21장에서 사라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어머니는 광야에 나가 살도록 쫓겨났다. 그곳에서 이스마엘은 또 다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성경에서도 이스마엘족이라는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삭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이는 사라가 127세까지 살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 형제인 나홀에게 그의 종을 보내서 나홀의 후손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했다. 샘터에서의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인에게 아주 친숙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내를 선택하는 방법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걸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행복한 결혼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내적 의미로 담겨져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을 신뢰함이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는 주님의 분부를 지켰고, 아브라함의 종은 주님의 인도로 적합한 조건의 처녀를 발견했다. 리브가의 가족과 리브가 역시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했고, 이삭은 그런 과정으로 선택된 아내를 의심 없이 맞이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거룩한 것으로서 결혼이 준비되어야 하고 배우자를 찾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바램과 의도를 충분히 교육시키며 그들의 삶으로서 보여준다면 깨어지는 가정이 줄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212항: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랠다가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위로를 받음’이라는 의미가 새로운 상태로써 명백해진다. 위로를 받는 상태란 새로운 것이고, 이 상태는 지나온 상태에 이어 계속되어 ‘어머니를 잃은’ 상태로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은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다시 태어난다’ 혹은 ‘새로이 창조되었다’라고 한다. 따라서 그가 거듭날 때 그의 마음은 천국을 향하여 열려져 천국에 있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천국을 향해 열려있고 주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근거한 믿음 안에 거하는 마음이 바로 새사람이다. 이러한 심정 상태의 변화는 인간의 육체로는 지각될 수 없고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 이유는 육체가 영을 싸고 있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거듭났다면 육체를 벗고 영만이 나타날 때 이는 전체적으로 또 다른 형체이다. 그 이유는 그 형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선행의 형체를 지니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디 출신인가?
- 3) 왜 그는 거룩한 땅에 가게 되었는가?
- 4) 그는 어디서 정착했는가?
- 5)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인가?
- 6) 하갈은 누구인가?
- 7) 아브라함의 첫아들은 누구인가?
- 8) 이사악은 누구의 아들인가?
- 9)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는가?
- 10) 왜 아브라함은 이사악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가?
- 11) 아브라함은 이사악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 12) 보낸 곳은 어디인가?
- 13) 누가 그곳에 정착했었는가?
- 14) 아브라함의 심복은 어디서 멈췄는가?
- 15) 그는 그곳에서 주님께 어떤 징조를 구했는가?
- 16) 누가 그 징조를 성취해 주었는가?
- 17) 리브가는 누구의 손녀인가?
- 18) 왜 그녀의 부모는 아브라함의 심복과 떠나도록 했는가?
- 19) 이사악은 그녀를 어디서 만났는가?
- 20) 이사악은 그녀에게 만족했는가?

- 21) 이스마엘과 이사악은 무엇과 상응되는가?
22) 샘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우르 3) 하느님이 부르셔서 4) 헤브론 5) 사라 6) 사라의 하녀
7) 이스마엘 8) 사라와 아브라함 9) 이사악을 놀렸다 10) 우상 숭배자여서
11) 심복 12) 하란 13) 아브라함의 형제 14) 샘터에서 15) 물을 길어 올려주는 여인
16) 리브가 17) 나홀 18) 그녀를 보내는 것이 하느님이 뜻이라고 믿어서
19) 들에서 20) 만족했다 21) 첫 번째와 두 번째 합리성 22) 말씀

6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머리말

야곱의 어린 시절과 하란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야곱의 꿈을 간략히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29장: 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2.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들이 세 무리로 엮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다. 3. 그 돌뚜껑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에서 굴러 냐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는 다시 제 자리에 덮어 두는 것이었다. 4. 야곱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5. 그가 물었다. “그러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말고요.” 6. 야곱은 그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잘들 지내십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이 말을 듣고 7.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대낮이 아닙니까? 가축을 모아들일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 가지고 가서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떼가 다 모여 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이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9. 야곱이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목동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10.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11. 그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었다. 12.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말하자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13. 라반은 친누이의 몸에서 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 가서 만나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14. 라반은 “너야말로 내 골육임에 틀림없다”하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15.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네가 내 골육이라고 해서 내 일을 거저 해셔야 되겠습니까? 품삷을 얼마나 주면 좋겠습니까 말해 보아라.” 16.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17.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18.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칠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19.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20.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칠 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21.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왔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22.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23.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 자리에 들었다. 24. 이 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25.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 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 일을 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26.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보내는 법이 없네.”하며 부탁하였다. 27. “초례 기간 한 주일만 채워 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칠 년 동안 내 일을 해 주어야 하네.” 28.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29. 라반은 딸 라헬에게 자기 계집종 빌하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30. 야곱은 라헬과도 한 자리에 들었다.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칠 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다. 31.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32.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 33.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나에게 또 아기를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34.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드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35.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 뒤 얼마 동안 레아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35장: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즈블룬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편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교리 요점

- * 삶의 세 평면으로는 의지와 사고 그리고 행동평면 혹은 천적과 영적 그리고 자연적인 평면이 있다.
- * 이러한 평면들은 자연적인 평면에서 천적인 평면으로 발달되어 간다.
- * 자연적인 평면은 겉과 속을 지니고 있다.
- * 행동속의 동기에 주님과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선할 수 없다.

해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열조들”이라고 부른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들을 자신들의 선조들로 간주하고 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명칭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다.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는 창세기 32장 24-2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그가 도망친 이유는 쌍둥이 형인 에사오가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형의 권리인 장자 상속권과 더불어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는 주님께서 야곱의 잘못을 그냥 눈감아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야곱은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는 쌍둥이 가운데서도 집을 더 사랑했지만 자신이 행한 잘못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했고,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형 에사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 야곱이 귀향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수반되는 인과까지 없어지지 않는 앎을 가르친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그녀를 사랑하는 것, 그가 그녀를 위해 종살이를 더 하는 것, 그에게 처음 주어진 아내는 레아였다는 것 그리고 열 두 아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비유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 비유적인 이야기들이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젊은이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나 그의 앞길에 예상치 못했던 역경들이 발생되어 곤란과 실패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한 인내로서 결국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부모가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동기로 하나간다면 그들은 일하는 가운데서 끝없는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아만을 위해 집착하는 것에는 진정한 행복이나 영적 성장이 결코 없음을 명심하자.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819항: “레아가 언니인 이유는 외적인 진리가 먼저 습득되기 때문이며, 라헬이 동생으로 불린 것은 내적인 진리는 외적인 진리가 습득된 후에야 비로소 배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외적인 진리에 먼저 감동을 가진 후에 내적인 진리에 감동된다. 외적인 진리도 내적인 진리와 비슷하여 개별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윤곽을 지닌다. 예를 들어, 사물의 경우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에 속한 어느 부분도 개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의 글자 안에 전체적인 사상이 있고, 내적인 의미는 그 속에 개별적인 진리로 들어있다.”

질문 정리

- 1) 야곱은 어떻게 예사오의 자리를 차지했는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는 누구에게 고용되었는가?
- 5)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야곱은 어느 딸을 사랑했는가?
- 7) 야곱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딸은 누구인가?
- 8) 야곱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렀는가?
- 9) 그의 아들은 몇 명인가?
- 10)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 11) 그가 하란에서 낳은 마지막 아들은 누구인가?
- 12) 베냐민은 어디에서 출생했는가?

- 13)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하란의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레아와 라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장자의 권리를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 2) 에서의 위협
- 3) 하란
- 4) 라반
- 5) 레아와 라헬
- 6) 라헬
- 7) 레아
- 8) 20년
- 9) 열 둘
- 10) 요셉과 베냐민
- 11) 요셉
- 12) 베들레헴 근처
- 13) 의지와 생각과 행동
- 14) 말씀
- 15) 진리에 대한 외적인 애착과 내적인 애착
- 16) 선과 진리의 모든 측면

7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머리말

본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친숙한 말씀이다. 줄거리의 앞뒤를 질문 형식으로 연결하면서 본과를 진행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1장

41장: 1. 그로부터 세월이 이 년이나 흐른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는 나일강 가에 서 있었다. 2.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밭을 뜯고 있었다. 3. 그런데 곧 이어 여위고 불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그 여위고 불품없는 소들은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소들 곁으로 가는가 했더니, 4. 이내 그 살이 찌고 잘 생긴 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났다. 5. 그러나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일곱 이삭이 나와 토실토실 여물어 가는 것이 보였다. 6. 그런데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셋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7. 더우기 그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인 줄 알게 되었다. 8. 파라오는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다 불러들이고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풀지 못했다. 9. 그 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10. 언젠가 폐하께서 소신과 빵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경호대장 맥 감옥에 집어넣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11. 소신과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12. 그 때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젊은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는 그 꿈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었습니다. 13.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몽해 준 대로 소신은 복직이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14. 파라오는 곧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 오라고 영을 내렸다. 그들은 서둘러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나서자 13.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다. 그러던 중 내가 들으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풀다면서?” 16.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 주실 이는 하느님뿐이십니다.” 17.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나는 꿈에 나일강 가에 서 있었다. 18.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밭을 뜯는 것이었다. 19. 이어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왔는데 나는 이집트

은 땅에서 그렇게도 볼품없고 여윈 소는 처음 보았다. 20. 그런데 여위고 볼품없는 그 소들이 먼저 나온 살진 일곱 마리 소를 잡아 먹는 것이었다. 21.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고도 여전히 볼품없어서 그것들이 다른 소를 잡아 먹었으려니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 때 마침 나는 깨어났다. 22.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즐기 하나에서 이삭 일곱이 돌아 나 토실토실 여물어 갔다. 23. 그러나 곧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셋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24.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했으나 그 뜻을 알려 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25. “폐하의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될 일을 하느님께서 폐하께 미리 알려 주신 것입니다. 26.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를 말합니다. 잘 여문 이삭 일곱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27. 뒤따라 나타난 마르고 볼품없는 일곱 암소나 셋바람에 말라비틀어진 일곱 이삭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28. 폐하께 이미 말씀드린 것같이, 폐하께서 하실 일을 하느님께서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29. 앞으로 올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겠습니다. 30. 그러나 곧 뒤이어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언제 배불리 먹은 일이 있었더냐는 듯이 옛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년으로 나라는 끝장이 납니다. 31. 이렇듯이 뒤따라오는 흉년은 하도 심해서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32. 폐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씩이나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지체 없이 그대로 하시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33. 그러니 폐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4. 이 나라 일을 감독할 자들을 세우시어 풍작이 계속되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것을 그 오분의 일씩 받아들이도록 조치하십시오. 35. 앞으로 올 좋은 세월 동안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이셔야 합니다. 폐하의 권한으로 밀을 거두어 들여 도시들에 식량을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36. 그 식량은 이집트 땅에 일곱 해 계속될 흉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망하는 일을 면할 것입니다.”

37.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는 이 제안이 좋아 보였다. 38.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는 39. 요셉에게 부탁하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40. 그러니 나의 온 왕궁을 네 수하에 두겠다. 내 백성은 다 네가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41.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다”고 하며, 42.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는 고운 모시옷을 입혀 준 다음 목에다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43. 그리고는 요셉을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태우고 행차할 때마다 앞서가며 “물렀거라”하고 외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다음, 44. 파라오는 요셉에게 일렀다. “내가 왕이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이집트 전국에서 사람들은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45. 파라오는 요셉에게 시브냐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고 온이라는 곳의 성직자 보디베라의 딸 아세넛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46.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삼십세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에집트 전국을 순찰하였다. 47. 칠 년 동안 풍년이 들어 땅에서는 많은 소출이 났다. 48. 이렇게 에집트 땅에서 칠 년 동안 생산된 각종 많은 식량을 그는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그 식량을 여러 도시에 갈무리해 두었다. 도시마다 근처 밭에서 나는 식량을 저장시켰다. 49. 이렇게 요셉이 갈무리한 밀은 바다의 모래더미 같았다. 마침내 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 없어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50.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온이라는 곳의 성직자 보디베라의 딸 아세넛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다. 51. “하느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하면서 요셉은 만아들의 이름을 므나쎄라 지었다 52.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53. 이집트 땅에서 칠 년이나 풍년이 들어 흥청댔지만, 그런 세월이 다 지나자, 54. 요셉이 말한 대로 칠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55. 이집트 온 땅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파라오는 온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명하였다. 기근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 동안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은 날로 심해 갔다. 57. 그 기근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물려들었다.

교리 요점

* 기억 안에 들어 있는 지식의 본성

* 영적 사항이 기억 속에 든 지식의 통치자이다.

해설

여러분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매우 친숙하고 사랑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것을 이야기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흔히 있는 “성공담”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요셉의 이야기의 간략한 줄거리는 어린 한 소년이 형제들의 질투심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난 후 노예로 팔리게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집트에서 왕 다음가는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요셉은 정직 근면하며 신중하고 신실한 젊은이였다. 그러나 이 밖에 우리가 자칫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는 바로 본문에서 파라오가 요셉을 옥에서 꺼내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꾀다더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파라오와 대면하게 된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풀고 그에게 다가올 흉년에 대해 말하고 슬기로운 자를 선택해서 흉년에 대비할 것을 권면했다. 그러자 파라오는 그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을 믿었고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했다. 따라서 요셉이 이집트를 통치했을 때 진정으로 그곳을 통치하신 이는 주님이셨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첫째 교훈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지 않고서는 지혜로워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삶에 대한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풍족한 시기 곧 풍년의 칠 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방법대로 살면 힘들다고 생각함에서 비롯되는 흉년의 칠 년 곧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식하게 해주는 칠 년의 고난도 겪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풍년동안에 가능한 많이 주님의 진리를 우리의 지성 속에 저장해둔다면, 우리는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하고 불평하게 되는 흉년동안에 미리 저장해둔 주님의 진리를 끄집어내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갖는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은 삶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획득하는 삶에 대한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주님과 그분의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풍요로운 횃수가 더 많아지도록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5326항」: “새로이 창조되는 인간의 자연적 속성 혹은 거듭나는 인간의 자연적 속성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자연적 속성과는 아주 다르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 속성은 인간 바로 그 자체로 그것으로 생각하고 바란다. 이러한 사람은 합리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이상 그의 합리성이나 영적인 속성이 닫혀져 있어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것이 그의 모든 것이어서 그의 성질(性質)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원인이 결과의 성질을 결정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는 원인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거듭난 사람의 자연적 속성은 그의 영적인 속성이 존재하는 대로 되어간다. 자연적 속성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즉 자연계로부터 이끌어지는 지식 같은 것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속성이 자연적 속성 안에서 행동되는 데에 따라 동의하며, 자연적 속성은 수단으로서 자연적인 것일 뿐이다.

질문 정리

- 1) 요셉은 어떻게 이집트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두 시종장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 3) 왜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게 했는가?
- 4) 파라오의 두 꿈은 무엇인가?
- 5)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6) 요셉은 파라오에게 무엇을 충고했는가?
- 7) 파라오는 그 충고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 8) 파라오는 요셉에게 어떤 권력을 주었는가?

- 9) 파라오는 요셉에게 누구를 아내로 삼도록 했는가?
- 10)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 11) 요셉은 어떻게 기근을 준비했는가?
- 12) 요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이집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기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5)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언함으로 2) 꿈을 해석해 주었다
- 3)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술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 4)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불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
잘 여문 이삭 일곱-말라비틀어진 이삭 일곱
- 5) 칠 년 풍년과 칠 년 흉년 6)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 양식을 저장하라
- 7) 요셉 8) 전 국토의 통치자 9) 아세넛 10) 므나쎄와 에브라임
- 11) 전 국토에 양식을 저장했다 12) 우리의 종교적인 감성
- 13) 기억속에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 14) 새 진리를 배우기에는 지금 너무 바쁘다는 식
- 15) 영적인 원리의 지배하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놓아 둬

8

열 가지 재앙

머리말

본문의 분량은 상당히 긴 편이지만 본문 전의 이야기를 미리 읽어두면 공부하는데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기근이 끝나면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계획했던 일을 그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에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나 어려운 광야 생활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7-10장

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2.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주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3.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역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이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4.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5.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6. 모세와 아론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7.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팔십 세, 아론은 팔십 삼 세였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9.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려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11. 파라오도 이집트의 현자들과 요술가들을 불러 들였다.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12.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도 모두 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다. 13. 그래도 파라오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4.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 15. 그가 아침에 물로 나갈 때에 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거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16.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17. 그래서 야훼께서는, 내가 야훼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18. 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9. 야훼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강이나 운하나 늪이나 그 밖에 물이 권 모든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 이집트에서는 나무그릇이나 돌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피가 되리라.” 20. 모세와 아론은 야훼의 분부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내려 치자 강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 21. 강에 있는 고기가 죽어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22.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23. 이번 일에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 갔다. 24.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이집트인들은 물을 찾아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25.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칠 일이 지났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7. 만일 네가 그들을 기어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리라. 28.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떼 지어 올라 와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 들어 가 너의 침대에까지 뛰어 오르리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의 집에도 기어들며, 너의 술과 떡 반죽 그릇에도 뛰어 들리라. 29.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들 몸에까지 마구 뛰어 오르리라.’”

8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모든 강가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뻗쳐 개구리가 온 땅에 기어오르게 하라고 일러라.” 2. 아론이 이집트의 모든 물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기어올라 와 이집트 땅을 온통 뒤덮었다. 3.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4.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부탁하였다. “개구리가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야훼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 백성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 5. 모세가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궁궐에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남아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물러가게 기도를 드릴까요?” 6. 파라오가 내일까지 해 달라고 부탁하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야훼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 이제 개구리들은 당신과 당신의 궁궐과 신하와 백성들에게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8.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 나왔다. 모세는 개구리가 파라오를 더 괴롭히지 않게 해 달라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9. 야훼께서 모세의 청을 들어 주셨다. 집과 뜰과 들에 있던 개구리가 모두 죽어 갔다. 10. 더미로 쌓인 개구리들이 썩는 냄새가 온 땅에 가득 찼다. 11. 이리하여 한숨 돌리게 된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일러라. 그러면 이집트 땅 어디에서나 먼지가 모기로 변할 것이다.” 13.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땅의 먼지를 치자 먼지가 모기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 땅의 먼지는 모두 모기로 변하였다. 14.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그같이 해 보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이 물가로 나가 보아라. 파라오가 그리로 나올 터이니 그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7. 만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등애를 보내어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을 쓰고 너의 집안에도 들끓게 하리라. 너희 이집트인이 사는 집이나, 너희가 서 있는 땅은 남은 구석 없이 등애 천지가 되리라. 18. 그날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등애가 날아들지 못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나 야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19. 이와 같이 나는 나의 백성을 너의 백성과 구별할 터인데, 이러한 증거가 내일 일어나리라.’” 20.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슬한 등애가 파라오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에 날아들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온 땅은 등애 등쌀에 쑥밭이 되었다. 21. 마침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일렀다. “가서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22.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릴 때, 이집트인들이 부정한 것을 바치다가는 그들 손에 죽지 않겠습니까? 23.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나흘 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24. 그러자 파라오가 “너희가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광야로 나가서 너희의 신 야훼께 제사를 드려도 좋으나 멀리 가면 안 된다. 어서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 하여라”하고 허락을 내렸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 앞에서 물러나가는 길로 야훼께 기도하겠습니다. 등애로 하여금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에게서 내일까지 모두 떠나게 해 달라고 빌 터이니 다시는 번덕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내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26. 모세는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오는 길로 야훼께 기도를 드렸다.

27. 야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등애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8.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9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 만일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3. 야훼의 손에 들에 있는 너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4. 그러나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이집트인들의 가축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5. 야훼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리라.” 6. 이튿날,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인들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가마솥 밑에 붙은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쥐어라. 그리고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려라. 9. 그 그을음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 나가 이집트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굶아 터지게 되리라.” 10. 그들은 가마솥 밑에서 그을음을 긁어모아 가지고 파라오 앞에 나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자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굶아 터지게 되었다. 11. 이집트의 미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되었다. 미술사들까지도 온 이집트에 번진 종기에 걸렸던 것이다. 12. 그러나 야훼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역지를 부리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4. 내가 이번에는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누리에 나 같은 신이 없음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리라.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너와 너의 백성을 질병으로 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16. 까닭이 있어 너를 남겨 두리라. 그것은 너에게 나의 힘을 나타내어 이 땅 위에서 나의 이름을 두루 떨치려는 것이다. 17.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나의 백성을 업신여겨 내보내려 하지 않으니, 18. 내일 이맘때 나는 우박을 역수로 퍼부으리라. 이집트에 나라가 선 뒤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우박을 내리리라. 19.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뿐 아니라 들에 있는 것을 안전한 데로 모아 들여라. 들에 남아서 미처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모조리 죽으리라.’” 20.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 들었으나 21. 야훼의 말씀을 허술히 여긴 자들은 들에 있는 종과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쳐들어라. 그리하면 우박이 이집트 땅에 쏟아지리라. 이집트 땅의 사람과 가축과 모든 풀 위에 쏟아지리라.”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쳐들자, 야훼께서 천둥소리와 함께 우박을 쏟으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비졌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신 것이다. 24. 번개가 번쩍거리며 우박이 맹렬하게 쏟아졌다. 이집트 나라가 생긴 뒤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심한 우박이었다. 25. 이집트 전국에 걸쳐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이며 들에 있는 풀들이 모두 우박을 맞았고 나무들도 우박을 맞아 모조리 부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27.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다. 야훼께서 옳으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나빴다. 28. 그러나 야훼께 기도해 다오. 하느님께서 발하시는 저 천둥소리와 이 우박은 견디어 낼 수가 없구나. 어서 가거라. 더 이상 너희를 이곳에 붙들어 두지 않겠다.” 29.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서면 곧 야훼께 손을 들어 빌겠습니다. 그러면 저 천둥소리가 멎고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야훼의 것임을 알려 드리리다. 30. 그래도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하느님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31. 마침 보리는 이삭을 패고 아미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그것들은 결판났으나, 32. 밀과 쌀보리만은 아직 이삭이 쫄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남아났다. 33.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오면서 야훼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멎고 땅에 내리던 비도 멎었다. 34. 파라오는 비가 그치고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뒤틀려 신하들과 함께 고집을 부렸다. 35.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대로였다.

10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라. 나는 그들에게 온갖 증거를 보이려고 그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2. 이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혼내 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를 네가 네 후손에게 대대로 자랑스레 이야기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3.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나?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4.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일 메뚜기를 너의 영토 안에 몰아넣겠다. 5.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메뚜기로 뒤덮으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

너희가 가꾸는 들나무들도 값어 먹으리라. 6. 그뿐이랴 너의 궁궐과 네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인의 모든 집을 덮치리라. 이는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발붙인 뒤로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서 발길을 돌려 물러나왔다. 7.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자들을 내보내어 저희의 신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이집트가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 모르십니까?” 8.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러 갔다. “너희의 신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9.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어린이고 노인이고 모두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딸도 데려 가고,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야훼께 축제를 올리려는 것이니까요.” 10.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 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팔려 보낼 성싶느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11. 어렵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쳐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푸성귀를 먹어 치우리라.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모든 것을 먹어 버리리라.” 13. 모세가 곧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치자 야훼께서 그 땅에 주야로 셋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어 보니 셋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14.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 전역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에게 뒤덮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온 땅을 새카맣게 덮은 메뚜기들은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땅의 모든 푸성귀와 나무 열매를 먹어 버렸다. 온 이집트 땅에 풀이고 나무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16. 파라오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여 말하였다. “너희의 신 야훼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17. 한번만 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라. 너희의 신 야훼께 기도하여 이런 모양으로 죽지는 않게 해다오.” 18.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야훼께 기도를 올리자 19. 야훼께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세찬 해풍이 불게 하셨다. 그 바람은 이집트 땅에 있는 메뚜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휩쓸어다가 홍해바다에 쓸어 넣었다. 20.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온통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리라.” 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치니 이집트 땅이 온통 짙은 어둠에 싸여 사흘 동안 암흑세계가 되었다. 23.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장만은 환하였다. 24.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들어 말하였다.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딸린 식구들은 데리고 가도 좋지만 너희의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 두어야 한다.” 25.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하느님 야훼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26. 우리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를 골라서 우리 하느님 야훼께 바칠 터인데,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는 무엇을 야훼께 드려 예배할지 모릅니다.” 27.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28. 파라오는 모세에게 호통을 쳤다. “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아라. 다시 내 앞에 열썬거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29.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영적 목적에 대한 초점을 잃을 때 사건이 발생된다.
- * 세상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높은 본성을 점진적으로 파괴시킨다.
- * 악에 대해서는 아주 고집스럽게 대처해야 한다.

해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이 외국인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래서 파라오(왕)들은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불어나자 그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파라오들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마침내 파라오들 중 한 명은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여 버리라고 명령했다. 앞서 우리는 아기 모세가 구원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다. 모세는 주님에 의해 보존되었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 그들의 진정한 고향인 거룩한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큰 임무를 맡게 되었다. 파라오가 지속적으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본문에 언급되는 열 가지 재앙들은 주님의 뜻에 완강히 저항하는 파라오의 고집이 하나씩 꺾여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 가지 재앙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거룩한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천국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다. 지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은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다. 우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지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과 쾌락들을 발견하여 그것들에 빠져 살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지상에서 일시적인 체류자임을 망각하기도 한다. 우리가 우리 속의 높은 자질들을 세상이 노예화시키는 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인격의 질은 저하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향으로 가게 하여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파라오의 고집스런 결정으로 야기된 열 개의 재앙이 이집트의 국토를 황폐케 만드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선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선용을 통해서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의 영혼 안에 천국을 만드는 두 가지 사랑인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7273항: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경이로움)을 많이 행하리라(출애굽기 7:3)’는 온갖 종류의 경고이며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표징과 이적이 진리의 확증을 의미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신성한 권능의 수단으로 여기서는 경고들이다. 그 이유는 표징과 이적이 그들에게 거짓 속에 있었음과 신성한 권능을 보여주어 그들이 경고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 속에 있는 이들에게 뭔가를 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고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저 세상 삶에 들어 올 때도 이들에 대한 저주가 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먼저 방문한 후 곧 검토된 후 있어지기 때문이다. 검토는 영들과 천사들이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음을 납득하도록, 즉 그들이 저주받을 삶만을 영위하여 그런 성질 속에 있음을 깨닫도록 해 준다. 이리하여 모두 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필요가 없게 된다.”

「천국의 신비」 제 7280항: “‘이집트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출애굽기 7:5)’란 이집트인들이 신성을 두려워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란 신성을 두려워함을 뜻하고, 이집트인들이란 거짓 속에 있는 자들과 그 거짓이 만연된 것을 의미함에서 확실해진다. 신성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짓된 자들도 있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이 지옥을 억누르고 그 속의 사람들을 묶어두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올바르게 사는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뒹어두는 끈 역할을 하는 까닭은 올바른 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내적인 두려움으로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영혼이 멸하지 않게 되고 양심, 즉 양심 속에 든 선과 진리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되어서 공의와 공정 곧 주님사랑과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해주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선행으로부터의 애착과 결합되는 정도만큼, 즉 주님 사랑에 결합되는 정도만큼의 두려움(경외함)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말씀에서 자주 언급되는 ‘하느님을 경외함’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있게 되는 내적인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한 두려움이나 양심을 위한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맞는 거짓 원리를 가지고 혹독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내적인 두려움 대신 외적인 두려움, 즉 자신의 명예나 소득을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나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바로 악한 자들이 갖는 두려움이다. 악한 사람들은 저 세상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 내적인 두려움으로 억류되거나 매여질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과거의 벌에 의해 외적인 두려움으로만 붙잡혀 있게 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악을 행함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 거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신성을 두려워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외적인 두려움은 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바램도 결여되어 있고 단지 몸이 움츠러들 정도의 어떤 격렬한 벌에서 오는 공포만이 있게 된다.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가?
- 2) 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두려워했는가?
- 3) 파라오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4)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누구를 들어 세우셨는가?
- 5)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6) 어떤 이적을 행해서 모세가 권능을 가졌음을 입증해 보게 했는가?
- 7) 누가 모세를 도왔는가?
- 8) 모세는 파라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주님께서는 파라오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0) 몇 개의 재앙이 일어났는가?
- 11)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3)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14) 마술사들은 어떤 재앙을 흉내 내었는가?
- 15) 이집트는 우리 삶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이집트에 억류된 이스라엘 후손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열 재앙은 넓은 측면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이집트에 머물렀다 2)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3)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 4) 모세 5) 이집트에 재앙을 6) 지팡이가 뱀으로 7) 아론
- 8) 백성들을 떠나가게 해달라 9) 재앙으로 위협 10) 10 11) 물이 피로
- 12) 개구리 13) 첫배 새끼가 죽었다 14) 1-2번째 재앙 15) 세상적인 지식수준
- 16) 세상욕에 노예가 된 우리의 높은 본성
- 17) 세상적인 인격을 고집함으로 퇴보되는 연속적인 단계들

9

메추라기와 만나

머리말

본장에서 상기해 둘 사항은 과월절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월절이 구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의 주님의 생애와도 깊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문 전의 이야기들인 홍해를 건너는 것과 긴 여행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도되었던 과정도 기억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6장

16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썩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2.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3.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4.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 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5. 여섯째 날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차려 보면 다른 날 거두어들인 것의 곱절이 되리라.”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분이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7.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야훼께서는 너희가 당신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8. 모세는 말을 계속하였다. “야훼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다. 야훼께서 당신께 불평하는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나? 너희가 하는 불평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야훼께 하는 것이다.” 9.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일러 주시오. 야훼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 주셨으니, 모두들 그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 주시오.” 10.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2.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 주어라.” 13. 저녁때가 되자 난데없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14. 안개가 걷힌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 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15.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나?”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16. 야훼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여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어들이면 된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많이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덜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으나 18.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었던 것이다. 19. 모세는 그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을 위하여 남겨 두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20.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남겨 둔 것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모세는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21.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들였고, 그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 버렸다. 22. 여섯째 날에는 일인당 두 오멜씩, 이틀 분을 거두어 들였다.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 일을 알리자, 23.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모두 쉬어야 하는 야훼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굵고 싶은 대로 굵고 끓일 만큼 끓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 두어라.”

24.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으나 쉬지도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 그것이 없을 것이다. 26. 옛세 동안은 거두어들일 것이 있겠지마는 이레째는 안식일이니, 이 날에는 거두어 들일 것이 없다.” 27.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레째 되는 날에도 거두어들려고 나가 찾아보았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28.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29.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이레째 되는 날에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30. 그래서 백성들은 이레째 되는 날은 쉬었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었고 맛은 벌꿀과자 같았다. 32. 모세가 말하였다. “야훼의 명령이시다.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대대로 보관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먹여 살린 양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도록 하여라.” 33.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야훼 앞에 보관해 두도록 하시오.” 34.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관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35.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36.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다.

교리 요점

- * 재구성이란 무엇인가?
- * 거듭나지 못한 삶을 재구성시키기 위해 수반되는 곤란은 무엇인가?
- *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해설

과월절 이야기, 홍해를 건너는 장면, 마리의 쓴 물이 단물로 되는 광경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어진 휴식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 주님께서는 먼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적을 하나씩 베풀어 주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불평은 이집트에 있을 때 가졌던 “고기 가마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한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집에 부족한 것이 많다며 다시 불평하기도 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은 새 집에는 없는 것이 옛 집에는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또 다시 이사를 간다면 그는 새로운 집에 만족할 수 있을까? 그는 불평만 늘어 될 뿐 100%만족하는 집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옛말에 “불평이 일어나면, 먼저 네가 받은 축복부터 헤아려 보아라.”라는 교훈이 있다. 우리는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은택이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듯이 우리를 매우 온화하게 다루신다.

메추라기와 만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가르쳐 준다. 즉,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양식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도 포함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영적 양식이란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문제나 시험을 위한 지혜와 힘을 의미한다. 우리는 매일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필요한 영적 양식을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며 일주일 동안 받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주님의 집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불평들을 모두 한쪽에 내려놓고 예배시간이나 성경 공부시간동안 주님 안에서 “휴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예배이며, 쉽이라는 안식하는 날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주일을 뺀 나머지 날들은 시험과 시련의 연속일지 모른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날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비치해두고 계신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날마다 얻어야 할 양식이 있는 것이다. 시편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이 진실로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상기시켜 준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8452항: “저녁때가 되자 난데없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란 구절은 자연적인 기쁨을 통해 선이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메추라기’의 의미가 자연적인 기쁨이라는 것으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다. ‘메추라기’가 자연적인 기쁨을 명시하는 것은 메추라기는 바다의 새였기 때문이다. 바다의 새는 자연적인 것을 의미하고, 바다의 고기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적인 기쁨을 통해서 선이 있게 됨을 명시하는 까닭은 저녁때가 되자 메추라기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저 세상의 삶에도 저녁때에 상응되는 상태가 있는데, 이는 선한 영들 곧 천사들이 과거 세상에서 가졌던 자연적인 인간의 기쁨인 자연적인 애착으로 돌아가는 상태이다. 이렇게 된 위치되는 이유는 선이 그 상태에서부터 나오기도 하며 그들이 그런 상태로 인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외적인 인간 곧 자연적인 인간 안에 선행과 믿음이 이식됨으로써 완전해진다. 선행과 믿음이 인간에게 이식되지 않으면, 선과 진리는 내적인 인간 혹은 영적인 인간 곧 주님으로부터 그 인간 안으로 흘러갈 수 없게 된다. 즉, 자연적인 인간이 없으면 그릇이 없는 것과 같아서 흘러 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받을 그릇이 없으면 유입은 멈추고 멀해지는 것이다. 즉, 내적인 인간 역시 닫히고 만다. 위의 사항으로 명백한 것은 자연성은 숙박시설과 같은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기쁨을 수단으로 있어진다. 자연적인 인간에 속하는 선들이 기쁨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이 기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족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무엇이 그들의 여행을 인도했는가?
- 3) 주님께서서는 홍해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그들이 썩은 광야에 접어들자 어떤 불평을 늘어 놓았는가?
- 5) 주님께서서는 저녁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는가?
- 6)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 7) 그들은 발견한 것을 어떻게 불렀는가?
- 8) 만나란 무엇을 뜻하는가?
- 9) 만나를 수집하는 지침은 무엇인가?
- 10) 만나를 수집하는 명령사항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1)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어떻게 수집했는가?
- 12) 주님께서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가?
- 13) 주기도문에서 만나를 상기하게 해주는 구절은 무엇인가?
- 14)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족은 무엇을 그리는가?
- 15) 메추라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만나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구름(불)기둥 3) 물을 가르심 4) 고기가 없다고 5) 메추라기
- 6) 싸라기 같은 빵 7) 만나 8) 이게 무엇이야? 9) 매일 한 오멜씩
- 10) 더 수집한 만나는 썩었다 11) 6일째 되는 날은 두 배로 수집함 12) 40년
- 13)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4) 재구성

15) 선을 행함에서 오는 외적 만족

16)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워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에서 오는 영적 선함

10 성막

머리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나이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일 년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의 출발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야 비로소 볼 수 있다. 우리는 시나이 지역에서 일 년에 관한 것과 그곳에서 이뤄진 것들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시나이에서 주어진 법과 예배의 외적 형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로 응집시켜 주었다.

성서 본문: 출애굽기 26장, 27장

26장: 1. 내가 살 성막은 피륙 열 폭을 들어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실과 자줏빛 양털과 붉은 빛 양털과 진홍빛 양털로 무늬를 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2. 그 길이는 이십 팔 척, 나비가 사 척으로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여라. 3.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4. 나란히 이은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 자줏빛 털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도 같은 고를 만들어라. 5. 한 쪽 끝에 붉은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6.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서로 맞걸어서 한 성막을 만들어라. 7.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은 염소털로 짠 피륙으로 열 한 폭이 되게 만들어라. 8. 그 열 한 폭은 길이가 삼십 척, 나비가 사 척으로 모두 치수를 같게 하고 9.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남은 여섯 폭도 따로 이어라. 그리고 천막 앞쪽에 늘어지는 여섯째 폭은 접어 올려라. 10.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다른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11. 그리고 낫쇠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두 쪽을 맞걸어 한 천막이 되게 하여라. 12. 여분으로 남는 천막 반쪽은 장막 뒤쪽에 늘어지게 하고 13. 천막 폭 길이에서 양쪽으로 일 척씩 남는 부분은 장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 덮게 하여라. 14. 또 주홍물을 들인 수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워라. 15.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라. 16. 널빤지 길이는 십 척, 나비는 일척 반으로 하고 17. 널빤지마다 축꽃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널빤지는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18. 성막 오른편인 남쪽 가장자리에는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우고 19. 그 널빤지 스무 장을 세울 밀받침 마흔 개는 은으로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축꽃이를 꼿을 밀받침 두 개를 만들어 놓아라. 20. 그 반대편인 성막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워라. 21. 그리고 은으로 밀받침 마흔 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다른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놓아. 22. 성막 서쪽인 뒷면에는 널빤지 여섯 장을 만들어 세우고 23. 널빤지 두 장을 더 만들어 성막 뒷면 두 귀통이에 겹세워라. 24.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세워서 첫 고리 높이까지 같은 모양으로 세워라. 이렇게 널빤지 두 장을 세워 두 귀통이를 벌려라. 25.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 여덟 장에 밀받침은 모두 열여섯 개가 된다. 26. 아카시아나무로 널빤지들을 켈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 다섯 개, 27. 성막 다른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도 다섯 개, 성막 서쪽인 뒷면 널빤지에도 다섯 개를 만들어라. 28. 중간 가로다지는 널빤지들 가운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마치게 해야 한다. 29.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켈 널빤지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30.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규격대로 성막을 세워라. 31.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꼿 모시실로 거롭 모양의 무늬를 놓아 가며 휘장을 짜라 32. 이 휘장을 칠 기둥 네 개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거기에 휘장을 칠 금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으로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 기둥들을 그 위에 세워라. 33.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레를 모셔라.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것이다. 34. 지성소에 있는 증거레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35. 휘장 앞에 젓상을 놓고 젓상 맞은편 성막 남쪽 가에 등잔대를 놓고 젓상을 북쪽 가에 놓아라.

36. 성막 문간을 가릴 막을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꼿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짜라. 37. 이 막을 칠 기둥 다섯 개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는 금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밀받침 다섯 개는 낫쇠를 부어 만들어라.

27장: 1. 아카시아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오 척, 나비 오 척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높이는 삼 척으로 하여라. 2. 제단 네 귀퉁이에는 뿔 네 개가 돌아나게 만들고 제단에 놋쇠를 입혀라. 3. 그을음받이와 부삽과 피 뿌리는 쟁반과 집게와 향로 등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를 놋쇠로 만들어라. 4. 제단에 두를 놋 철망을 그물 모양으로 엮어서 만들고, 이 철망 네 쪽에 달아, 철망이 제단 중간에까지 닿게 하여라. 6.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 놋쇠를 입혀라. 7. 그 채는 제단 양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8.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그대로 만들어라. 9. 성막을 둘러 쌀 울은 남쪽 오른쪽에 길이 백 척 되는 휘장을,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로 만들어라. 10.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1. 북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백 척 되게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2. 서쪽 울에 칠 휘장은 길이가 오십 척 되게 만들고 휘장을 칠 기둥 열 개와 밀받침 열 개를 만들어라. 13. 해가 뜨는 쪽인 정면의 길이도 오십 척이다. 14. 그 정문 한 쪽 가에 밀받침 세 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5. 다른 쪽 가에도 세 밀받침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6. 울의 정문에 드리울 막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 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천으로 이십 척 되게 만들고 그 기둥 네 개와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라. 17. 울을 돌아가며 세울 기둥마다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에 놋쇠로 된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8. 울의 길이는 백 척, 나비는 오십 척, 높이는 오 척이 되게 놓아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는데, 놋쇠로 만든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9.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예식에 쓰이는 기구와 울에 박을 맡뜩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20.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짠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21. 아론과 그 후손들은 그 등불을 만민의 장막 안 증거대 앞의 휘장 밖에 켜 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교리 요점

- * 질서적인 삶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 * 모든 개개인은 가장 작은 형태의 교회이다.

해설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과 불기둥 그리고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떠났을 당시에는 견디기 힘든 속박에서 막 탈출한 유목민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3개월 후 시나이라고 불리는 큰 산에 도착했는데, 그 산은 평지에 우뚝 세워 둔 것처럼 보였다. 구름과 불기둥은 그곳에서 멈췄고, 그들은 산 앞 평지에 진을 쳤다. 이후 그들은 거의 일 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을 규율할 방대한 법전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형성시켜 주셨다. 당시 주어진 법전은 오늘날의 법전과는 달리 종교가 중심이 된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는 십계명이었다. 사실 계명들은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계명들이 모세 시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다른 나라의 법전들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법들이 인간 사회의 진정한 기초가 되며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하느님에 의하여 인류의 시작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임을 염두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 법이 주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시나이 산 꼭대기로부터 불과 연막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말해졌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계획서와 그 안의 모든 가구들과 그곳에서 집행될 예배에 관한 모든 지침도 주셨다. 이렇게 지어진 성막은 진지 중앙에 위치해졌고, 행군할 때에는 대열의 중앙에 있도록 분부되었다. 이 성막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집”으로서 인간들 사이에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였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었는데, 이는 하느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하느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주님의 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뻗쳐 나아가 지휘 감독하게 된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세워진 성막이란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과 그분의 진리가 세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성막과 그 내부에 있는 세 장소 그리고 가구들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들은 차후에 다루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을 공부하면 우리의 인격 속에 주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고린도전서 3:16)”라고

쓴 서한을 상기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9643항: “밀받침이 ‘은’으로 되고 널빤지가 ‘금’으로 입혀진 이유는 널빤지가 선을 의미하고 밀받침이 진리를 뜻하는 바, 선이 진리로 받쳐져야 힘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금’은 선을, ‘은’은 진리를 의미한다. 선은 진리를 통해 힘을 가진다는 것은 진리가 선을 모양 있도록 하여 선이 그 내용이 되고 진리는 그 형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십계명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 2) 주님께서는 시나이산에서 십계명 외에 어떤 다른 법을 모세에게 주셨는가?
- 3) 성막이란 최근의 용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 4) 성막의 벽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 5) 성막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졌는가?
- 6) 성막은 몇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가?
- 7) 각 부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8)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9)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10) 성막 뜰의 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11) 성막 뜰에는 어떤 두 가지가 있었는가?
- 12) 성막 건축에 쓰인 세 가지 금속은 무엇인가?
- 13) 각 금속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 14) 휘장은 무엇인가?
- 15)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예배 드려야 했는가?
- 16) 성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성막의 세 구역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8) 궤가 지성소에 있음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시나이산 2) 각종 규정이나 예배 방법 3) 천막 교회
- 4) 판자들을 금으로 입혔다 5) 동물 가죽 6) 3 7) 지성소, 성소, 성막을 8) 궤
- 9) 젓상, 분향단, 등잔 10) 커튼 11) 물두멍, 제단 12) 금, 은, 동
- 13) 금은 나무를 씌우는데, 은은 팽팽하게 하는데, 동은 받침으로
- 14) 내부 커튼 15) 유목민 16) 질서 있는 인간의 삶 또는 인격
- 17) 의지, 생각, 행동 18) 우리의 심정 속에 하느님의 법이 새겨져야 한다

11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머리말

아말렉 사람들에게 당한 패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리 오래 기억되지 못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가르쳐진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도 망각하고 있었다. 본과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이들과 그 도전의 참혹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16장: 1. 레위의 증손 코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할이요, 할아버지는 크핫이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르우벤의 손자요 벨렛의 아들인 온도 따라 일어났다. 2.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백 오십 명이 따라 일어났다. 3.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와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지나치오.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야훼의 회중 위에 군림하오?” 4.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5. 코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야훼께서 알려 주실 것이다. 누가 당신의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 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택한 사람을 당신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6.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대 코라와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라. 7.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내일 야훼 앞에 향을 피워라. 그 때 야훼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레위의 후손이라는 그대들이야말로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8.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그대, 레위의 후손이라는 분들은 내 말을 들어라. 9.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대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시어, 당신 앞에 나와 야훼의 성막에서 섬기고 회중 앞에 나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도 불만이나? 10. 하느님은 그대에게 그대의 일족인 레위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 앞에 나와 섬기는 특권을 주시었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성직자 직마저 요구하는가? 11.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야훼께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대들이 그에게 불만인가?” 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오라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전갈을 보냈다. 13. “우리를 쫓과 끌어 흐르는 땅에서 데려 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젠 우리 위에 군림하여 호령까지 하려 두시오? 14.

당신은 우리를 쫓고 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차지할 밭이나 포도원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였소.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오? 우리는 못 가요.” 15. 모세는 참을 수 없어 화가 나서 야훼께 아뢰었다. “저들이 가져오는 봉헌물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16. 모세가 코라에게 일렀다. “내일 그대는 그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야훼 앞에 나오라. 그대 일당과 함께 아론도 나타날 것이다. 17. 사람마다 제 향로에 향을 피워 가지고 야훼 앞으로 나와야 한다. 사람마다 각기 제 향로를 들고 나오면, 향로는 모두 이백 오십 개가 될 것이다. 그대와 아론도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18.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에 불을 피워 향을 태우면서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섰다. 19. 코라는 온 회중을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모인 회중에게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20.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1.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떨어져 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22.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느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숨길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느님이여,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십니까?” 2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4. “이 회중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26.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27. 백성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딸린 식구들과 함께 자기네 천막 문 앞에 나와 선 것을 보고 28. 모세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여지껏 한 모든 일이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야훼께 보내심을 받아한 일임을 알게 되리라. 29.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30. 이제 야훼께서는 여지껏 딸린 식구들과 함께 삼켜 모두 산 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과연 이들이 야훼를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31.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다. 32.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 버렸다. 코라에게 딸린 사람과 재산을 모조리 삼켜 버렸다. 33. 그들이 식구들과 함께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땅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다. 34.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주변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도 삼키겠구나” 하며 달아났다. 35. 향을 피워 가지고 나왔던 이백 오십 명도 야훼에게서 나온 불이

살라 버렸다.

1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아론 성직자 의 아들 엘르아잘을 시켜 불탄 자리에서 향로를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가져다 쏟아 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와 불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다. 3. 큰 잘못을 저지르고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를 모아다가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라. 이것은 야훼 앞에 가져왔던 것인 만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4. 성직자 엘르아잘은 타 죽은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그 구리 향로들을 모아다가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웠다. 5. 이것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혈통을 이어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야훼 앞에 나가 향을 피울 수 없다는 것과 만약 무엄하게 나갔다가는 코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6.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야훼의 백성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불평하였다. 7. 이렇게 회중이 그들에게 모여 들어 덤비자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장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 때 거기에 구름이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8.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 다다르자, 9.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빠져 나오너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1.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워 가지고 어서 회중 있는 데로 가서 그들이 죄 값으로 받을 제양을 막아 주시오. 야훼의 진노가 터져 염병이 번지기 시작하였소” 12. 아론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 갔으나, 염병은 이미 백성 가운데 번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를 흔들어 향내를 풍기게 하여 백성이 죄 값으로 받을 제양을 막아 주며 13. 염병이 물러갈 때까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14. 코라의 일로 죽은 사람은 제외하고 이번 병으로 죽은 사람만 만 사천 칠백 명이나 되었다. 15. 염병이 물러가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 왔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매순간 우리를 떠 받쳐 주고 계신다.
- *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어져 있고,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의 판단을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

- *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예배라는 격식을 차려서 존재되는 것도 아니다.
- * 이기적인 동기로 행하는 우리의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이타애란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해설

본문의 이야기는 일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내려졌다는 기이하고 처절한 벌이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간은 자연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에 아주 매혹되어져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연계가 저절로 존재하여 스스로 발달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이 동물 중에서 지능을 가진 상위 동물로 스스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여 왔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문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신구약성서의 기적들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불행한 사실은 그들의 발언이 대중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시대의 “사색가들”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 곧 자연이 저절로 창조될 수 없어서 하느님께서 분명히 계셔서 창조가 어떤 지혜로운 작용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기적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자연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은 본문을 토대로 당시에 지진과 번개와 천둥이 있었고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연의 움직임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자연적인 원인 뒤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위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인류를 복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노력 속에서 그분을 돕거나 방해하게 된다. 인간은 종종 하느님을 부정함으로 인한 실제적인 결과들, 즉 아픔이나 고통 혹은 시련 등이 자신에게 허용될 때야 비로소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이나 욕망들로부터 정신을 차리게 된다. 선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결과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죄 있는 자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 충분한 교훈을 얻게 된다. 코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반역을 지지한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괴케 함으로부터 예방되도록 하는 교훈의 대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교훈의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성서에 담아 두셨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온 이타적인 사랑을 자아애로 만들어 결국 그것으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지와 이해성만을 고집하는 이들은 본문에서 성막에 가는 대신 자신들의 천막 문가에 머무른 이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땅은 그들을 삼켜 버렸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적인 것이 그들의 영적 생명을 파괴시켰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어리석은 태도 중 어디에라도 자신이 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들은 그들을 파괴하게 될 악들에 의해 재앙이 오게 됨을 명심하자.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324-6항: “코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식구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땅이 집어 삼켰다. 그들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 향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삼켜진 이유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선을 모독했음을 의미하며, ‘모세’와 ‘아론’은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평한다는 것(반역)’은 주님에 대해서와 거룩한 직무 수행에 관한 불만으로 신성모독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제단에서 불을 취했을 때 제단으로부터 불이 토해져 나왔고, 그 불은 그들의 향로들이 제단을 덮도록 만들어졌다.”

질문 정리

- 1) 누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도록 모의했는가?
- 2) 코라는 어떤 지파 소속인가?
- 3) 레위지파의 직무는 무엇인가?
- 4) 아론의 직무는 무엇인가?
- 5) 코라는 왜 불만족했는가?
- 6) 코라 외에 누가 반역에 가담했는가?
- 7) 이 두 사람은 어떤 지파소속인가?

- 8) 그들은 어디에 머물겠다고 고집했는가?
- 9)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몰살되었는가?
- 10) 코라를 지지한 어떤 다른 집단이 그와 더불어 성막에 왔는가?
- 11)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 13) 계속 불평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이 재앙은 어떻게 멈추었는가?
- 15) 다단과 아비람이 받은 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16) 향로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코라와 그를 지지한 회중 대표들이 받은 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18) 왜 향로는 파괴되지 않았는가?

질문의 답

- 1) 코라 2) 레위 3) 성막과 예배를 돌봄 4) 대성직자 5) 아론을 시기함
- 6) 다단과 아비람 7) 르우벤 8) 그들의 친막 9) 땅이 삼켰다
- 10) 250명의 회중 대표 11) 불이 살랐다 12) 제단을 덮도록 만듦 13) 재앙
- 14)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15) “믿음만”의 결과 16) 예배
- 17) 자신이 원하는 쪽을 지지하도록 진리를 왜곡시킨 결과
- 18) 과실이 예배 때문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이므로

「보충 설명」

다음은 17장 11-15절의 깊은 의미에 대한 간략한 주석이다.

11절: 너의 예배를 실지로 만들라. 형식적인 예배로 인한 악을 제거하라.

12절: 위의 악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겉으로 만의 헌신은 그 안에 파괴가 있음을 알아라.

13절: 죽은 예배와 산 예배의 차이점을 명백히 구분하여라.

이리하여 영적인 가치에 더 손실이 없게 하라.

14절: 자신의 어리석은 처신에 따른 손실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라.

15절: 그런 다음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로 돌아오라.

12

요르단강을 건너다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도록 했음을 상기하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고리 역할로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광야에서의 전투와 열 두 스파이(민수기 13-14장)에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상기해 보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을 신뢰했고 모세에게 즐거운 조언을 했음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3, 4장

3장: 1.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는 천막을 거두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시뻘을 떠났다. 요르단강에 다다른 그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묵었다. 2. 사흘 후에 장교들이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며 3.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레위인 성직자 들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이 보이거든 너희도 각기 있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라. 4.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 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천 척 가량 궤를 앞세워라. 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모두들 목욕재계 하여라. 야훼께서 내일 아침에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6. 여호수아는 또 성직자 들에게 명령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 선두에 서서 강을 건너라.” 명령대로 성직자 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7.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부터 온 이스라엘이 너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겠다. 내가 모세의 곁에 있어 주었듯이 네 곁에도

있어 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8. 너는 계약궤를 멘 성직자 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강에 들어 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가까이들 와서 너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0. 여호수아는 말하였다. 브리즈족, 기르갓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은 반드시 쫓겨나리라. 11. 이제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가 너희 선두에 서서 요르단강을 건널 것이다. 12. 그러니 즉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열 두 사람을 뽑아라. 13.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를 멘 성직자 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 물에 닿으면 곧 요르단강 물은 끊어져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독을 이루어 우뚝 서리라.” 14. 백성들이 천막을 거두고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성직자 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15. 그 궤를 멘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이르렀다. 마침 추수철이 되어 독에까지 물이 넘쳐흐르고 있었는데, 궤를 멘 성직자 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16.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우뚝 일어서서 아담에서 사르단 성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독을 이루는 것이었다. 아라바 호수라고도 하는 사해로 흘러내리던 물이 다 끊어져 백성들은 예리고 맞은편으로 건너 갔다. 17. 야훼의 계약궤를 멘 성직자 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 결국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넜다.

4장: 1.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너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열 두 사람을 뽑고 3. 여기 요르단강 한복판 성직자 들이 발을 붙이고 섰던 데서 돌 열두 개를 날라다가 이 백성이 이 날 밤 목을 곳에 두라고 명령하여라.” 4.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낸 열 두 사람을 불러 모으고 5. 일렀다. “너희의 하느님 야훼의 궤 앞으로 지나 요르단강 한복판으로 들어 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사람마다 어깨에 돌 한 개씩을 메어 내오너라. 6. 이것이 너희 가운데 기념으로 남으리라. 훗날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7. 야훼의 계약궤 앞에서 요르단강 물이 끊어진 사실을 알려 주어라. 그리고 이 돌들은 그 궤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졌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전하는 기념비라고 알려 주어라.” 8.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돌 열두 개를 메어 내다가 그날 밤 목을 곳에 세워 두었다. 9.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계약궤를 멘 성직자 들의 발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 요르단강 한복판에 돌 열두 개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10. 야훼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이르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케를 멘 성직자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11. 온 백성이 다 건너자 성직자들은 야훼의 케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갔다. 12. 르우벤과 가드와 므나쎄 반쪽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전투대열을 편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나섰다. 13. 무장한 그들 사단 명 정병들은 야훼 앞에 나서서 예리고 평야를 바라보며 싸우러 나갔다. 14. 그 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를 늘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15.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6. “증거케를 메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하여라.” 17. 여호수아가 성직자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18. 야훼의 계약케를 멘 성직자들이 요르단강에서 나왔다. 그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강 물은 물길을 따라 이전과 같이 양쪽 언덕에 철철 넘치도록 흘렀다. 19. 백성이 요르단강에서 나와 예리고 동편 길가에 진을 친 것은 정월 십일이었다. 20.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에서 메어 내온 돌 열두 개를 길가에 세우고 21.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훗날 너희의 후손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22.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받을 적시지 않고 건넌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23.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바다를 말리시어 우리가 모두 건너도록 해 주시지 않았느냐? 것처럼 우리 앞에서 요르단강 물도 말리시어 우리로 건너게 해 주신 것이다. 24. 그리하여 세상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의 손이 얼마나 힘 있으신가를 알게 하고 언제까지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옳은 길로 정진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
- * 계명들은 우리의 지침서이며, 모든 어려운 결정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 * 주님을 신뢰함이 믿음의 시작이다.
- * 의를 행함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거듭나는 상태의 시작이다.

해설

성서에서 가나안 땅, 거룩한 땅 또는 약속된 땅이 모두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과 요르단강이

물질세계와 천국 사이의 경계선을 상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상기해야 할 사항은 천국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 이들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진실로 선하게 사는 자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천국이 임하여 몸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마음은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명심해야 할 사항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천국적인 인격을 우리 안에 형성하지 못하면 사후에도 천국에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거룩한 땅으로 가는 여행에서 각 단계들을 거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영적인 여행에도 단계들이 있다. 우리는 단 번에 천국적인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영적인 여행에는 넘어야 할 두 가지 경계선이 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세상적인 삶과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정 사이를 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홍해로 성경에서 언급된다. 두 번째는 주님께 순종하는 면에서 있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둘 사이를 가르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요르단강으로 언급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와 요르단강 모두를 건너야 했는데, 그들은 처음에 두 강을 건너갈 수 없는 장애물처럼 느꼈다. 그러나 그들이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자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셨다. 이처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하지만 영적인 여행을 막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세상욕과 이기심을 주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성실하게 계명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때는 온다. 즉, 요르단을 건너는 때가 온다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하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에도 이어지는 천국에 있는 상태인 계명에 가까이 순종하고 즐겁게 순종하는 상태로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못해”라는 태도는 어떤 곳에도 우리를 도달 시켜주지 못한다. 여호수아는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의미를 지닌다. 그의 임무란 그가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르쳐진 대로 행동하는 것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설명」: “여기서 ‘요르단’과 그 강물은 악으로부터 나온 거짓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가나안이 당시 우상 숭배 국가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주님만이 지옥에서 오는 악의 거짓을

흡으시고 제거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의 신성한 진리만이 천국과 교회 안에 신실함을 가져올 수 있으며 천국과 교회 안에 동봉된 법이 신성한 진리라는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요르단을 건넌 후에 있어서 내가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명령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케를 멘 성직자 들의 발이 요르단 강물에 닿자마자 강물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이고, 그들이 모두 강을 건넌 뒤 물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이 강물은 천국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입문적인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요르단이 가나안 땅의 첫 경계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들어갔을 때의 그 땅은 교회를 표현하는데, 요르단 강은 그 땅으로 가는 입문을 표현한다. 요르단 강물은 소개하는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강 한 북편에서 돌 열두 개를 메고 나오도록 명령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룻밤을 지낸 첫 장소로 그 돌들을 운반한 것은 ‘돌’이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르단 강 한북편에서 메어낸 열 두 개의 돌’이란 교회속의 진리들을 의미하게 된다.”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2) 누가 모세의 지도권을 승계 받았는가?
- 3) 여호수아에게 어떤 임무가 내려졌는가?
- 4)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지는 어디인가?
- 5) 그들은 한 해의 어느 철에 마지막 진영지에 도착했는가?
- 6) 거룩한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벽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강은 어떻게 갈라졌는가?
- 8) 여호수아는 강 한북편에 무엇을 세웠는가?
- 9) 거룩한 땅에서의 첫 진영지에 무엇을 세웠는가?
- 10) 여호수아는 왜 이 돌을 세웠는가?
- 11)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12) 왜 그렇게 불렀는가?
- 13) 그곳에서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4) 여호수아는 우리속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요르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요르단강을 건너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느보산 2) 여호수아 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 4) 예리고성 반대쪽 5) 수확 철 6) 요르단강 7) 기적으로 8) 열 두 개의 돌
- 9) 열 두 개의 돌 10) 강을 건너 기적을 회상하라 11) 길갈(굴림, 벗김)
- 12) 이집트인들의 수모가 벗겨졌기 때문 13) 과월절, 할례식 14) 싸우는 진리
- 15) 영적인 삶을 소개하는 진리들
- 16) 의지를 바꾸기 시작한 뒤 영적인 삶을 진정으로 영위해 감

13

기브온 주민들

머리말

본과이전에 강조되었던 사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이 적들로 가득 했음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면 승리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예리고의 함락과 아이성의 포획에 관한 이야기도 간략히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9장

9장: 1. 이 소식을 듣고 요르단강 건너편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대해 연안을 끼고 레바논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왕들은 모두 2. 동맹을 맺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3.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고와 아이를 해치운 이야기를 듣고, 4.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너털너털한 부대와 터져서 기운 헨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떠날 채비를 차렸다. 5. 또 발에는 닳아빠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말라서 바삭바삭하는 빵을 가지고 떠났다. 6. 그들은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 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자, 8.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들은 누군가? 어디에서 왔는가?”하고 묻자, 9.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당신의 하느님 야훼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고

10. 요르단강 건너 지역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디롯에 사는 바산왕 옥을 해치우신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11. 우리 나라의 장로들과 온 백성이 도중에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면서 당신들을 만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12. 여기에 우리의 빵이 있습니다. 당신들께 오려고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떠날 때는 따끈따끈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말라서 바삭바

삭해졌습니다. 13. 이 부대도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졌고 우리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14.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은 야훼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그들에게 양식을 받았다. 15.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16. 그런데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해 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그들이 인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성읍인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키랏여아림에 이르렀다. 18. 그러나 회중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대표들을 원망하게 되자, 19. 모든 대표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20. 우리는 그들을 살려 둘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준 맹세 때문에 입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21. 대표들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들을 일단 살려 두고 우리 회중을 섬기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을 길게 하자.” 온 회중은 대표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22.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어찌자고 너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끼어 살면서 아주 먼 데 산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23.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대대로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으며 종살이를 해야 한다.”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 주민을 모두 당신 앞에서 멸하고 이 땅을 모두 당신들에게 주라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서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소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겁에 질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25.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소견대로 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26.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대신, 27. 그 날로부터 그들은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의 제단 일을 거들게 된 것이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신다.
- * 말씀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 * 우리의 순종은 곧 믿음의 척도이다.

* 우리는 실수로 인한 결과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경험삼아 최선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해설

우리는 요한 계시록 제 21장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거룩한 성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사가 금자로 그 성을 재었더니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가 똑같았으며 그 측량 자는 “사람의 자요 천사의 자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 계시록의 거룩한 성도 구약 성서의 거룩한 땅처럼 천국을 상징한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에도 우리속의 지성과 심정 내에 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들 속에는 천국을 재는 자를 가진 잠재적인 천사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가능성을 “측량”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들 각각은 서로 아주 다른데, 이는 각기 특정한 유전적인 능력과 한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우리 안의 거룩한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시작하던 때의 가나안 땅처럼 우리의 영적 발전을 저지하려는 적들로 가득하다.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참작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함을 인식하여 그것을 선용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묘사이다. 간혹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과 여호수아의 관계와 같이 우리속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잠시 넘어가는 때가 있다. 즉, 우리가 이런 경향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실제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구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경향성들을 우리 인격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과 동맹을 맺는 이야기이다.

간단한 예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경향성들 중에서 “남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데 열성을 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성향은 본문에서 기브온족이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자연스런 성향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이 성향을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품성처럼 수긍해 버린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성향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차차 그 성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약함에 속함을 깨닫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그 성향이 있어야 할 마음속의 위치를 보여주시게 되어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우리의 천국적인 목적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 모두는 이웃의 흠을 잡기 위해서 혹은 호기심으로 자신의 이웃을 지켜보며 이리저리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지켜보며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을 쉽게 납득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들 속에 있는 천사의 자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더 자라도록 도와주신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4431항: “히위족들은 고대 때부터 내면의 진리를 의미했고 성품이 좋은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 부정한 행위가 그들을 소멸시키지는 못했다. 즉, 교회속의 진리가 다른 국가들과 같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히위족인 기브온 주민들은 주님의 섭리로 여호수아와 회중지도자들과 맺은 조약을 수단으로 보존되었던 바다.”

「천국의 신비」 제 1097항: “유대교회에 관하여 말씀 안에 쓰인 모든 것은 주님의 왕국을 표징한다.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각각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의 왕국의 어떤 용도에 충당되었다. 그분의 왕국 내에 계신 주님과 관계없이 사용된 말씀속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는 지옥적인 것까지도 사용하지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길갈에 무엇을 세웠는가?
- 2) 길갈에서 이스라엘족들은 무엇을 기념했는가?
- 3) 거기서 그들의 음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4) 거룩한 땅 내의 적들 중 누가 여호수아에게 평화를 원했는가?
- 5)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속였는가?
- 6) 여호수아는 어떤 측면을 소홀히 했는가?
- 7)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과 어떤 조약을 맺었는가?
- 8)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조약을 파기했는가?
- 9)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어떤 책임을 지웠는가?
- 10) 이 이야기에서 약속에 관한 무엇을 가르치는가?
- 11) 기브온 주민의 선조는 누구인가?

- 12) 그들은 우리속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그들의 ①헤어진 옷 ②말라서 바삭바삭해진 빵은 무엇을 그리는가?
- 14)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게 하고 물을 기르도록 했음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열 두 개의 돌 2) 과일절 3) 만나가 중지됨 4) 기브온 사람들
- 5) 먼 나라에서 온 체했다 6) 주님에게 상의하지 않았다
- 7)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8) no 9)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라
- 10) 약속을 성급히 하지 말라 11) 히위족(노아의 아들 함으로부터 온) 12) 지적 호기심
- 13) ①행동지침의 생각 ②영성(spirituality)
- 14)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수단인 실제적인 지식을 얻고자 지적 호기심을 사용함

14

판관 「입다」

머리말

여호수아의 가나안땅 정복과 각 지파별 할당부분을 언급한 후 판관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 땅에서 강세를 얻게 된 까닭을 설명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입다의 성급한 서약과 여호수아의 기브온 사람과 체결한 성급한 조약도 비교해 본다. 입다의 딸에 관련된 사건은 5반의 내용을 참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11장

11장: 1.마침 길르앗 사람 가운데 입다라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2.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라서 입다에게 “너는 바깥 여자에게서 난 노이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하면서 그를 쫓아 내었다. 3.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돕이라고 하는 지방에 도망가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을 모아 비적떼의 두목이 되어 있었다. 4.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은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의 일이었다. 5.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길르앗 원로들은 돕 지방으로 입다를 데리러 가서 6. 그에게 청했다. “그대가 와서 우리의 장군이 돼 주어야 우리가 암몬군을 칠 수 있겠소” 7. “나를 미워하여 내 가문에서 쫓아내던 때는 언제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의 청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8. “그래서 우리가 그대를 찾아 온 것이 아니요?”하며 길르앗 원로들은 입다에게 청하였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을 물리쳐만 준다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은 그대를 수령으로 모시겠소.” 9. 입다가 길르앗 원로들에게 재우쳐 물었다. “내가 당신들과 같이 가서 암몬 백성과 싸운다고 합시다. 그 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당신들이 나를 수령으로 받든단 말이지요?” 10. 야훼께서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군 말씀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두고 보시오.“ 길르앗 원로들이 이렇게 다짐하자, 11.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을 따라 나섰다. 백성들이 그를 수령이자 사령관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자, 입다는 야훼 앞에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그 곳은 미스바였다. 12.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나와 그대 사이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내 영토에 쳐들어 왔는가?” 13. 암몬족 임금은 입다의 사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

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 올 때 아르논 개울과 야벡강 사이에 있는 내 영토를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빼앗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고이 돌려보내라.” 14.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다시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15. “나 입다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영토나 암몬족의 영토를 빼앗은 적이 없다. 16.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거쳐 홍해바다를 지나 카데스에 이르러 17. 에돔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으나 그도 거절하여 할 수 없이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18.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영토를 돌아서 모압 영토 동편으로 갔었다. 아르논 개울이 그 국경이었으므로 아르논 개울 건너편에 진을 치고는 모압 국경에는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 19.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스본에서 왕노릇하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에게 사절을 보내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을 넣었다. 20. 그런데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와서 야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21.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부수고 그 지역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2.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개울과 야벡강 사이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온 땅을 광야에서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3.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네가 우리를 몰아내겠다는 말이냐? 24. 너는 네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빼앗아 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신 야훼께서 빼앗아 주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쩔단 말이냐? 25. 모압 왕 시뵐의 아들 발락도 이스라엘과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싸우지 못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덤비느냐?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거기 딸린 촌락, 아로엘과 거기 딸린 촌락, 또 요르단강을 끼고 있는 마을들에 자리잡고 산지도 삼백 년이나 되었는데, 너는 왜 여태까지 이 고장들을 찾지 않았느냐? 27. 나는 너에게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전쟁을 걸어오다니 어찌 된 일이냐? 심판자 야훼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기 바란다. 28. 그러나 암몬족의 임금은 입다에게서 온 전갈을 듣고도 못 들은 체 하였다. 29.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나세 지역을 일주하고 길르앗 미스바에 있다가 다시 거기에서 암몬군의 배후로 돌았다. 30. 거기에서 입다는 야훼께 서원하였다. “만일 하느님께서 저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 주신다면, 31. 암몬군을 쳐부수고 돌아 올 때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야훼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32.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진지로 쳐들어 갔다.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 주셨으므로 33. 아로엘에서 민닛 어귀에 이르기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었다. 또 아벨그라뎀까지 진격하며 마구 짓부수었다. 이리하여 암몬군은 이스라엘군에게 꺾이고 말았다.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 오는데,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와 그를 맞는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다. 35.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쳤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내 가슴에 칼을 찌는구나. 내가 입을 열어 야훼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어쩔단 말이냐!” 36. 그러자 딸이 아뢰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두고 야훼께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야훼께서 아버지의 적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셨는데, 저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37. 그리고서 딸은 한 가지만 허락해 달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청을 드렸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벋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 가 돌아 다니며 처녀로 죽는 몸, 실컷 울어 한이나 풀겠습니다.” 38. 입다는 두 달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 보냈다. 두 달 동안 딸은 벋들과 함께 산에 들어 가 처녀로 죽는 것을 한하여 실컷 울었다. 39. 두 달이 지나 아버지에게 돌아 오자 아버지는 딸을 서원한 대로 하였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엔 한가지 관습이 생겼다. 40.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처녀들은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애곡하게 된 것이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흥정할 수 없다.
- * 말씀의 영적 의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정반대되는 때가 있다.
- *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자신의 원하는 바와 반대되더라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함도 포함된다.
- * 선행에는 언제나 주님께 순종함이 포함된다.

해설

판관기에는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판관시대 이전의 이스라엘백성들은 걸출한 지도자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가졌는데, 이들 모두는

제각기 신성하게 임명된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즉 그들의 숙원이었던 거룩한 땅의 정복 후 그들은 각 지파 별로 할당된 지역들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지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이 안정되자 자만심에 빠져 버렸다. 판관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 시기에 관하여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21:25).”라고 전한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을 행하는 것이 나로서 최선이 아닐까?”하는 주장을 종종 듣게 된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아주 그럴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한 것들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꾸준히 지켜 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의 진리를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변역을 이루게 될 때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거듭하여 당부한 모세의 경고를 끝내 잊어버렸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누군가가 자신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던 악은 머리를 들고 일어서며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러했듯이 강한 세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준비를 완료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입다가 행했던 바대로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하며 자신의 욕망을 진실로 포기하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설 때 그분은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
- 3) 본문의 판관은 누구인가?
- 4)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5) 본문에서는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6) 입다는 무엇을 서약했는가?
- 7) 입다가 승리하고 집에 올 때 처음 환영 나온 자는 누구인가?
- 8) 입다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서약을 깨트리도록 노력했는가?
- 9) 그녀는 어떤 요청을 했는가?

- 10) 이로 인해 어떤 관습이 생기게 되었는가?
- 11) 판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입다의 딸이 번제물이 된 것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백성들이 주님을 잊었다 2) 판관을 세워 주셨다 3) 입다 4) 요르단 건너편 5) 암몬
- 6) 자기를 환영 나온 첫 사람을 제물로 바침 7) 입다의 딸 8) 노력하지 않았다
- 9) 두 달간의 여유 10) 해마다 사흘씩 곡함 11) 필요성을 만날 특별한 진리
- 12)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라

15

빼앗긴 궤와 돌아온 궤

머리말

판관시대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전 민족적인 지도자가 있었을 때의 백성들과 판관시대 백성들의 상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또한 본문 이전의 내용인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본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4장1-11절, 5장, 6장 1-16절

4장: 1.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통하게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오자, 이스라엘군도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에벤패에 진을 쳤고 블레셋군은 아베크에 진을 쳤다. 2. 블레셋군이 이스라엘군을 향하여 열을 지어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패하여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사천 명이나 되었다. 3.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군에게 패하게 하시니,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내실 것이다.” 4. 그리하여 진영에서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 거룩을 타고 만군을 거느리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게 하였다. 당시에 그 계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였다. 5. 야훼의 계약궤가 진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군은 땅이 진동하도록 함성을 올렸다. 6. 블레셋군은 이 함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저렇게 큰 함성이 터지니 웬일이냐?”하며 웅성거리다가 야훼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7. 블레셋군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 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8.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서 우리를 살려 내겠느냐?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9.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자! 지금까지는 히브리인이 우리를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국이니, 자 - 사나이답게 싸우자!” 10. 이리하여 블레셋군이 짓쳐 들어오자 이스라엘군은 크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삼만이나 쓰러졌으며 11.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5장: 1. 불레셋군은 빼앗은 하느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2. 불레셋군은 그 하느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겨다가 다곤 바로 곁에 두었다. 3.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 자리에 세웠다. 4.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넘어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성한채로 남아 있었고 부러진 목과 동강난 두 손은 문지방에게 구르고 있었다. 5.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곤의 성직자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6. 야훼께서는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시어 공포에 몰아 넣으셨다. 아스돗에 종기가 돌고 온 지경에 쥐가 들끓었던 것이다. 7. 이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 다곤과 우리에게 마구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8. 사람을 보내어 불레셋 추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겼다. 9. 그런데, 그것을 그리로 옮기자 야훼께서 손으로 그 성도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온 성에 종기가 돌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조리 종기가 났다. 10.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다시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느님의 궤가 에크론에 닿자, 에크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 일족을 죽일 작정이냐?” 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11. 그래서 그들은 불레셋 추장들을 모두 불러,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내어놓지 않았다가는 우리 일족이 몰살을 당하겠다.”고 하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 손으로 성마다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폐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12.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자는 종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온 성에서 울리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6장: 1. 야훼의 궤가 불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지 칠개월이 지났다. 2. 불레셋 사람들은 성직자들과 점장이들을 불러 놓고 물었다.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 보시오.” 3.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죄제물을 엮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가 왜 당신들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도 될 것입니다.” 4. 그들이 “면죄제물로 무엇을 엮어 보내야 합니까?”하고 묻자, 이렇게 알려 주었다. “금으로 종기 모양을 다섯 개, 쥐 다섯 마리를 만들어 보내십시오. 그런 재앙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추장에게 미쳤으니,

그것을 불레셋 추장들의 수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5. 진국을 휩쓸고 있는 이 종기와 쥐들의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신께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땅을 치던 손을 거둘 것입니다. 6.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공연히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에게 혼이 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7.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멩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젓먹이 송아지들은 떼어 우리로 보내십시오. 8. 그리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돌려보낼 금면죄제물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낸 다음 9. 잘 보십시오. 만일 소가 제 고장을 향해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 이 큰 재앙은 바로 그가 내린 것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찌다가 당한 재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10. 그들은 하라는 대로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11. 그리고 수레에는 야훼의 궤를 싣고 금귀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12. 그러자 소는 벳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 갔다. 불레셋 추장들은 벳세메스 지방까지 따라 가 보았다. 소는 울면서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 13. 마침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 들이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14. 수레는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와 멩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수레를 부수어 암소를 야훼께 번제로 드렸다. 15. 레위 사람들이 야훼의 궤와 금예물이 든 상자를 그 큰 바위 위에 내려놓자 그 날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6. 그 날 불레셋의 다섯 추장은 이것을 보고서야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교리 요약

- *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
- * 말씀의 진리는 쌍날을 가진 검이므로, 선한 이는 보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파괴한다.
- * 사랑과 선한 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교리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 * 우리는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 배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해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언약궤는 시나이 산에서 주님께서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상자이다. 우리는 이 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가구였다는 것과 주님께서 두 거룩들 사이에 있는 증거궤 위의 속죄판 위에서 "살아있는 목소리"로 대성직자 들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한다(민수기 7:89). 그리고 궤는 이스라엘 후손을 위해서 경이로운 일들, 즉 요르단 강을 갈랐고 예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기적들도 행한 바 있다.

궤에 관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계명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계명을 앞세워야 함을 주님께서 강조하여 가르치시고 계심을 당부하고 있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명은 우리의 심정 안에 씌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은 성막에서 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옮겨 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 당했고, 궤마저 빼앗겨서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지고 말았다.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계명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고 우리의 악이 우리를 심판하도록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에서 블레셋 족은 특이하고 어려운 어떤 시험을 상징한다. 그들은 우상인 [다곤]에 예배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머리와 손은 가졌으나 몸은 물고기인 신이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거 비린내가 나는데."라는 표현은 '뭔가 수상하다' 혹은 '의심쩍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들려온 말이 고백된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말한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는 추궁 받게 되는데, 결국 솔직히 말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적인 여정의 경우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만약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며 선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은 제시하지만 정작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블레셋"이 우리의 "궤"를 빼앗아 가버린 것과 같다.

블레셋 족의 진영으로 옮겨진 궤는 그 위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블레셋 군이 궤를 다곤 신전 안의 그 신상 곁에 두자 그것은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쓰러져 있었고, 그것의 머리와 손은 동강나져 버리고 몸통만 성한 채 남아 있었다. 이것은 계명이 우리가 고백한 공의는 험잡일 뿐 아무런 진정성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의미한다. 그 후 재앙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발발했는데,

취떼가 그들의 작물을 파괴시키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던 모든 악들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곧 우리 삶과 비교하게 될 때 나타나는 상황을 표현한다. 그리하여 블레셋 군들은 면죄제물과 함께 본래의 영토로 퀘를 되돌려 보냈다. 즉, 우리가 선한 사람인채 해왔음을 알게 된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계명을 바른 곳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장소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심장부이다. 면죄제물이란 우리가 진실한 회개와 진실로 선하게 되고자하는 의지로 우리의 행동선상에 이기심 대신 이타심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0항: “그들은 성직자 와 점쟁이들이 하라는 대로 명예를 멘 적이 없는 어미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수레에는 야훼의 퀘를 싣고 금귀와 종기형상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성직자 와 점쟁이들이 이런 격식을 갖추어 행하라고 조언한 이유는 그들에게 상응에 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지식은 그들에게 신학이었고 신학박사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와 점쟁이들은 익히 아는 사항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단지 그러한 지식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사용해서 외적인 것들을 예배했고, 그 외적인 형상이 표현하고 있는 내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 2)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3) 이스라엘군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짜냈는가?
- 4) 퀘를 성막에서 끌어낸 두 성직자 는 어떻게 되었는가?
- 5) 퀘는 어떻게 되었는가?
- 6) 퀘와 같이 있던 블레셋의 신상에 어떤 변이 일어났는가?
- 7)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퀘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 8) 누가 블레셋 사람에게 퀘를 돌려보내야 하는 방법을 말해주었는가?

- 9) 케는 어디에 실려 되돌려 보내졌는가?
- 10) 케와 더불어 무엇이 보내졌는가?
- 11) 케는 어느 곳에 도착했는가?
- 12) 불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왜 불레셋은 케를 간직할 수 없었는가?
- 14) 새 수레와 어미소는 무엇을 그리는가?
- 15) 불레셋의 점쟁이는 케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어떻게 알았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팔레스타인 3) 케를 전투지역에 가져다 놓기로 함
- 4) 죽었다 5) 빼앗겼다 6) 그들 신이 부서졌다 7) 케를 되돌려 보내자
- 8) 성직자와 점쟁이들 9) 새 수레 10) 다섯 개의 종기와 쥐 11) 벳세메스
- 12) 순종 없는 지식 13) 재앙이 계속 있으므로
- 14) 새로운 자세, 새롭게 된 애착 15) 상응지식으로

16

사울과 요나단

머리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체격과 외모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신체적 강함과 용감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을 언급할 것인데, 이는 차후 공부를 위한 배경지식이 되므로 기억해 두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4장 1-46절

14장: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당변에게 “우리끼리 저 건너 불레셋 초소로 가자”하고 일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 그 때 사울은 육백 명 가량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게바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진을 치고 있었다. 3. 실로에서 야훼의 성직자로 있던 엘리의 증손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이가봇의 조카며 아히톱의 아들인 아히야가 예봇을 모셔 왔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리를 뜬 줄은 아무도 몰랐다.

4. 불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 양쪽에는 날카로운 돌기둥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보세스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고 하였다. 5. 하나는 북쪽에서 믹마스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를 향하여 서 있었다. 6. 요나단이 자기 무기당변에게 일렀다. 6. “자! 오랑케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야훼께서 손을 써 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하겠느냐?” 7. “생각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저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무기당변이 이렇게 말하자 8. 요나단은 입을 열었다. “그럼 좋다. 놈들이 볼 수 있는 데로 건너가자. 9.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게 섰거라’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놈들한테로 올라 가지 말고 10. 만약 자기들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 가 치자. 바로 이것으로 야훼께서 이미 놈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를 삼자.” 11.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불레셋 초소에서 보이는 자리로 나서자 불레셋 사람들이, “저 봐라. 히브리놈들이 숨어 있던 구멍에서 기어 나왔다!”하면서 12.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변을 건너다보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알려 줄 게 있다”하고 외쳤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무기당변에게 “나만 따라 올라 오너라. 야훼께서 놈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하고는 13. 손과 발로 기어올라 갔다. 그의 무기당변도 뒤를 바짝 따랐다. 요나단

은 앞으로 걸어 나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무기당번도 뒤따라가며 쳐 죽였다. 14.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은 첫 대전에서 하루같이 발을 반 이랑 갈아 젖히듯, 이십 명 가량 죽였다. 15. 진지 안에 있는 군대, 전장에 있는 군대, 초소에 있는 군대, 기습부대 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 덮쳤다. 16. 베타민 지방 게바에서 보초를 서던 사울의 군인들은 블레셋군이 갈광질광하는 것을 보았다. 17. 그러자 사울이 함께 있던 군인들에게 “인원을 점호하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 나갔는지 알아내어라”하고 명령하였다.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이 보이지 않았다. 18. 사울이 아히아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일렀다. 그 때 에봇은 이스라엘 앞에서 아히아가 모시고 있었다. 19. 사울이 성직자 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블레셋 진영은 점점 더 소란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성직자 에게 “그만두어라”하고는 20. 전군을 거느리고 소리치며 싸움터에 다다라 보니, 적군은 제 편끼리 칼로 치고 찌르고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21. 이제껏 블레셋에 붙어 그들과 같이 싸우러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에 가담하여 싸웠다. 22.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숨었던 온 이스라엘군도 블레셋군이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합세하여 쫓아가며 그들을 무찔렀다. 23. 이렇게 그 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주셨으므로 싸움은 베호론 건너편까지 번져 갔다. 24. 그 날 이스라엘군이 하나 둘 모여 왔을 때 사울은 전군에게 맹세를 시켰다. “해 떨어질 때까지는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이니 그 때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전군은 아무 것도 먹지를 못했다. 25. 마침 거기 들에는 풀이 든 벌집이 있었는데 26. 군인들은 벌집 가까이 와서 풀이 푹푹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맹세한 일이 무서웠던 것이다. 27.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전군에게 다짐을 준 말을 듣지 못한 터이라,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풀을 찍어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28. 군인 중의 하나가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님께서 오늘 안으로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전군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지쳐 있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29. 그러자 요나단은 투덜댔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은 손도 못 대게 하시다니, 풀 한 번 찍어 먹고 나는 이렇게 눈이 다 번쩍 뜨였는데 30. 오늘 적군한테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었던들 지금쯤은 블레셋군을 더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31. 그 날 이스라엘군은 블레셋을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며 쳐 죽였다. 그런데

군인들은 허기진 나머지 32. 약탈에 나서 양, 소, 송아지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피 썰어 먹어 버렸다. 33. 사울은 군인들이 고기를 피 썰어 먹어 야훼께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하느님을 배반 하였구나”하면서 큰 돌을 굴러 오라고 명령하였다. 34. 그리고는 전군에게 흩어져 나가, 소와 양을 가져다 거기에서 잡아먹되 고기를 피 썰어 먹어 야훼께 죄를 지어선 안 된다고 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저마다 소를 몰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35. 이리하여 사울은 야훼께 제단을 세워 드렸는데 이것이 그가 야훼께 처음으로 세워 드린 제단이다. 36.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일제히 오늘 밤 사이에 추격해 내려가 불레셋을 해뜨기 전에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쳐부수자.” 그러자 군인들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했으나, 아히야 성직자는 우선 하느님께 여쭙어 보자고 제의하였다. 37. 사울은 하느님께 여쭙었다. “불레셋을 추격해 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도 내리시지 않았다. 38. 그러자 사울이 선언하였다. “군대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서거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리라.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야훼, 살아 계신 야훼 앞에서 나는 맹세한다. 그 죄가 내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 하여도 마땅히 죽이리라.”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40. 사울이 온 이스라엘군에게 외쳤다. “너희는 모두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편에 서리라.”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하고 대답하자 41.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아뢰었다. “오늘 소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만약 그 허물이 저나 제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뭉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을 풀려났다. 42. 사울이 말하였다. “나와 요나단 사이에 주사위를 던져라.”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해 보아라.”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기 끝으로 꿀을 좀 찍어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44. 사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요나단은 사형이다”하고 선언하였다. 45. 그러자 군인들이 사울에게 간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번 대승을 안겨 준 요나단을 죽이시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야훼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은 요나단을 살려 내어 죽지 않게 하였다. 46. 사울은 불레셋군을 더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불레셋군도 자기 고장으로 물러갔다.

교리 요약

- *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이세상의 좋은 것을 즐기도록 원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즐거움은 우리의 안목을 좁게 하여 우리에게 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악들을 공격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 * 왕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 *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첫 사상이 불완전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은 이루어낸다.

해설

요나단의 선한 인격은 그가 성경에서 사랑받는 영웅이 된 원인이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아주 용감했지만, 아주 성급하며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님의 예언자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고 그분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명령을 무게있게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그에게 승리만을 주실 수 없었던 것이다.

요나단도 사울처럼 아주 용감했지만, 그는 주님을 더 신뢰하여 자신의 판단이나 힘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사울을 서서히 떠나 도망쳐 블레셋의 공포를 피해 각자 살 궁리만을 염두 했을 때 요나단은 그의 무기당변만을 데리고 사울에 협력했다. 그리하여 그는 용감하게 전진하고 적을 공격하면서 오로지 주님으로부터의 호의적인 징조만을 기대하며 적진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이겠느냐?”라는 과거 그들의 역사에서 입증된 진실에 의존했다. 그래서 그의 초기 승리가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고 사울의 군대로 하여금 블레셋을 몰아내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종종 너무 크고 높은 절벽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에 빠져 버리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단같이 주님의 권능만을 신뢰하여 시험이 오자마자 대담하게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듯 보였던 적이 아주 쉽게 정복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문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더 주고 있다. 적군을 다 부술 때까지 어떤 음식의

맛조차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람이 종교로 인해 스스로를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삶을 즐기는 것과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연상케 해 준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사용하고 즐기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그것들을 쓰고 즐기되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던 중 별집을 발견했고 그 꿀을 맛보자 눈이 변쩍 뜨였던 것이다. 우리는 과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도록 해 주셨고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사를 준비해 주셨음을 기억한다. 성경은 만사의 맛이 “별꿀과자 같았다”고 말한다. 주님께서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시지 모시기 힘든 험한 공사장의 감독자와 같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619-8항: “그 당시 가나안땅에는 많은 꿀이 있었는데, 이는 주님의 교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무엘상서에서 알 수 있는바, 그들이 숲에 들어서면 그 지역에 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땅에 꿀이 흐르고 있었다든지 요나단의 눈이 꿀을 맛봄으로 열렸다(사무엘상 14:25-27,29) 하는 말들을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요나단의 눈이 꿀을 맛봄으로 변쩍 뜨인’ 이유는 ‘꿀’은 자연적인 선 그리고 그 선으로 인해 맛보게 되는 기쁨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선은 우리에게 충명을 주어 우리의 마음을 계발해 준다. 이로 인해 요나단은 자신이 잘못 행했음도 알았다. 이사야서에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야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라는 구절이 있다. 그 이유는 상응이 그들의 바깥쪽 곧 그들의 결과에 시기적절하게 보여야 했고 이스라엘 교회의 모든 것이 상응으로 구성되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의미되거나 표현되어야 했던 섭리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누가 초대 왕이었는가?
- 2)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좋아했는가?

- 3) 그는 어떤 적과 처음 싸워 승리했는가?
- 4) 사울의 약점은 무엇인가?
- 5) 어떤 적이 그를 괴롭혔는가?
- 6) 사울의 아들은 누구인가?
- 7)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떤 점이 달랐는가?
- 8)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변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9) 왜 요나단은 둘이서도 적을 해치울 수 있다고 했는가?
- 10) 어떤 곳에서 그들은 적과 접전했는가?
- 11) 요나단은 주님께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2) 요나단의 습격이 승리하자 불레셋 진영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사울의 군대가 불레셋에 진격하면서 사울이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 14)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 15) 사울은 요나단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 16) 누가 요나단을 구했는가?
- 17) 성경에서 왕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요나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불레셋 진영이 이수라장이 된 모습은 무엇을 그려 주는가?

질문의 답

- 1) 사울 2) 키가 크고 힘이 세계 보여서 3) 암몬족
- 4) 성급하고 불순종적이며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 5) 불레셋 6) 요나단
- 7) 주님을 신뢰했다 8) 불레셋 진영을 공격했다 9) 믿음 10) 가파른 바위
- 11) 만일 그들이 올라오라 말하면... 12) 공포에 휩싸였다 13)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 14) 꿀을 맛보았다 15) 죽이려 했다 16) 군인들 17) 통치하는 원리
- 18) 경험에서 온 지식 19) 자만심을 부추기는 논쟁들이 서로 다툼

17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머리말

요나단을 중심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변화를 살펴본다. 사울의 시기심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강조되며, 다윗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인해 그가 최후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짜의 죄와 벌은 본문에서 상당히 드라마적인 부분이지만,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이는 것이 본문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서본문: 사무엘하 6장

6장: 1.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정병 삼만 명을 소집했다. 2. 다윗은 이 전군을 거느리고 유다 바알라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것이었다. 그 궤는 거룩을 타고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3.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4. 우짜는 궤 옆에서 따르고, 아효는 궤 앞에서 인도했다. 5.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금과 거문고를 뜯고 소구와 땡땡이와 바라를 치면서 마음껏 노래부르며 춤을 추었다. 6.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다. 소가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짜가 손을 대어 붙들었는데 7. 야훼 하나님께서 우짜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를 치셨다. 우짜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8. 다윗은 야훼께서 우짜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 곳을 베레스우짜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9. 다윗은 그 날, 야훼가 너무 두려워, “이래서야 어찌 야훼의 궤를 모실 것인가”하였다. 10. 그래서 다윗은 야훼의 궤를 자기 도성으로 맞아 들이려 하지 않고 갓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모셨다. 11. 야훼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 둔 석달 동안, 야훼께서는 오베데돔과 그 집안 식구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12.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 두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집 식구들과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왕은 너무나도 기뻐 하느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 도성으로 모시고 올라 왔다. 13. 야훼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긴 다음 다윗은 살진 향소를 잡아 바쳤다. 14. 그리고 다윗은 모시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15.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야훼의 궤를 모시고 올라 왔다. 16. 야훼의 궤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 올 때 다윗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 덩실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17. 다윗은 미리 성막을 쳐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야훼의 궤를 모셔 놓고 야훼께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18. 이렇게 번제와 친교제를 드린 다음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9. 그리고 모여 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 한 개, 마른 대추야자 한 뭉치, 건포도떡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0.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체통이 참 불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21.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 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소.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출 것이며 22. 이번보다도 더 경망히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여편네들은 나를 더욱 우리를 것이요.” 23.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교리 요점

- * 잘못된줄 알고 저지른 행동은 죄이다.
- * 우리에게 “자연적인 수준”처럼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을 때가 많다.
- * 하느님의 법은 영원하며 인간의 바람에 맞춰서 해석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 * 우리는 시험을 추론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해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사울과 많이 달랐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소년으로

성장했고, 후에 큰 용사가 된 뒤에도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신뢰하며 의지했다. 다윗의 초지일관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세는 우리의 영적 발달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다윗은 뛰어난 하프 연주자였으며, 시편서의 많은 부분을 쓴 시인이기도 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후 법궤 곧 유대인의 삶의 중심을 의미하는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와야 함을 알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씌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궤는 20여 년 동안 키랏여아림 성에 모셔져 있었는데, 그곳은 과거 블레셋 군이 궤를 벳세메스 성에 되돌려 보낸 후 다시 옮겨져 안치되었던 장소였다. 우짜의 사건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한다. 그 이유는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흔들려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짜가 손을 내밀어 법궤를 붙든 것은 당연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궤에 손을 댄 것은 인지상정으로 볼 때는 당연하지만, 결코 올바른 행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법궤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다루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궤의 권능은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져 왔었다. 우짜는 본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법궤를 통상적인 상자로만 여겼지만, 모든 레위인들은 주님의 지엄한 명령에 의해 법궤에 손을 댄 수 있는 자가 기름 부어진 성직자 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법궤의 거룩함과 권능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십계명의 두 돌판은 궤 안에 담겨 있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계명을 지킬 때만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게 됨을 의미한다. 십계명은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느님의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우리의 의무는 오로지 계명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것이다. 계명은 그 자체의 권능으로 영원히 서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0-28항: “온갖 종류의 악기가 소리를 내거나 연주하는 것과 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춤을 춘 것은 궤가 의미하는 신성한 진리의 유입이 주님으로부터 나와 선과 진리에 대한 애착으로 결과 맺는 기쁨과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까지

의 궤의 여행 중에 언급되는 악기들은 진리에 대한 자연적이고 영적인 애착에서 오는 마음의 반가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다윗의 춤과 마음껏 노래 부르고 악기를 켰던 것은 영적이며 천적인 선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온 심정의 환희를 표현한다. 하모니를 이룬 음악 소리는 영계로부터 존재하고 그들의 반가움과 환희를 가진 애착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누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가?
- 2) 누가 그 왕을 기름 부었는가?
- 3) 그는 기름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었는가?
- 4) 누가 그 왕의 친한 친구였는가?
- 5)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시기하도록 했는가?
- 6)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누가 그를 구해주었는가?
- 7)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죽었는가?
- 8) 다윗은 어떤 성읍을 빼앗아 수도로 삼았는가?
- 9) 그는 그곳에 무엇을 모시고자 했는가?
- 10) 궤는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 11) 왜 우짜에게 변이 발생했는가?
- 12) 누가 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다윗을 비웃었는가?
- 13) 그녀가 받은 벌은 무엇인가?
- 14) 다윗은 예루살렘 어느 산에 궤를 모셨는가?
- 15) 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심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우짜의 행위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사무엘 3) 아니다 4) 요나단

- 5)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 6) 요나단 7)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8) 예루살렘 9) 퀘
- 10) 키랏여아림 11) 퀘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죽게 되었다
- 12) 미갈 13) 아이를 낳지 못했다 14) 시온산
- 15) 계명을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함
- 16) 삶의 중심에 하느님의 법을 놓는 것
- 17) 하느님의 진리의 권능을 의심함

18

성전 건축

머리말

열왕기상 5장 17절(개역 5:3)에서 언급되는 성전을 짓고자하는 다윗의 바램과 주님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셨던 이유가 내포하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본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의 차이점도 재고해본다. 성전의 세부 사항은 제 2반에서 많이 다루지고 있으므로 다른 반은 2반의 내용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전체적인 특성과 건축 재료들 그리고 장식에 따른 각종 타입도 생각해 보자. 또한 열왕기상 5장에서 언급되는 띠로의 왕 히람과 솔로몬의 거래 내용도 파악해 두자.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6장

- 6장: 1.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지 사백 팔십 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 년째 되던 해 둘째 달 곧 시브월에 솔로몬은 야훼의 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2. 솔로몬왕이 야훼께 지어 바친 전은 그 길이가 육십 척, 나비가 이십 척, 높이가 삼십 척이었다.

3. 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전 자체의 나비 그대로 이십 척이고 그 나비는 전의 길이에 잇대어 십 척 더 나왔다. 4. 전의 창들은 우묵 들어간 틀에 넣었다. 5. 그는 또 전의 벽 둘레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본당과 내실을 들렀고 사방에 돌아가며 결방들을 꾸몄다. 6. 아래층은 나비가 다섯 척이고 가운데층은 여섯 척, 삼층은 일곱 척이었다. 전 밖에는 벽에 단을 두어 버팀돌보가 전의 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7.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

8. 가장 낮은 층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내었고 나선형 층계를 밟고 가운데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삼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9.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을 마쳤는데 전의 천장은 송백나무 들보와 널빤지로 되었다. 10. 또 온 성전 곁에 건물을 지었는데 각 층은 높이가 다섯척으로서 송백나무 재목으로 전과 맞붙게 하였다. 11.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12.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네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13.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내리라.” 14.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마쳤다. 15. 그는 전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보푼의 들보에 이르기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다. 전의 바닥은 전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16. 또 이십 척 되는 전의 뒤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지었는데 그 내부를 밀실 곧 지성소로 지었고 17. 이 밀실 앞쪽에 있는 본전의 길이가 사십 척인데 18. 전의 안에 있는 송백나무에는 호리병과 여러 가지 꽃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가 송백나무이며 돌은 눈에 띄이지 않았다. 19. 밀실은 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그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셨다. 20. 그 밀실은 길이 이십 척, 나비 이십 척, 높이 이십 척인데 순금으로 입혔고 밀실 앞쪽에는 사슬을 늘어 놓았는데 그것도 금을 입힌 것이었다. 22. 그는 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밀실에 있는 제단도 금을 입혔다.

23. 밀실에는 올리브나무로 높이 십 척 되는 거룩을 돌 만들어 놓았다. 24. 거룩의 한쪽 날개가 다섯 척이고 다른 날개도 다섯 척이었다. 그래서 날개 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는 십 척이 되었다. 25. 다른 거룩도 십척이 되었다. 두 거룩이 같은 치수, 같은 모양이었다. 26. 한 거룩의 높이도 십 척이고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는데 거룩의 날개는 펼쳐져 있어 한 거룩의 한쪽 날개가 한 벽에 닿았고, 다른 거룩의 한쪽 날개가 다른 벽에 닿아 있었으며 각각 나머지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잇대어 있었다. 28. 솔로몬은 거룩에 금을 입혔다. 29. 그는 전의 온 벽을 돌아가며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돌을 새김으로 새겨 놓았다. 30. 또 성전 안팎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31. 내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32. 두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에는 거릅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돌을새김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거릅 모양에도, 종려나무 모양에도 금을 입혔다. 33. 본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는 사각형을 이루었다. 34. 두 문이 전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문이 두 부분으로 접혔고 또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혔다. 35. 그 위에다가 거릅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36. 또 다듬은 돌 세 줄과 송백나무 한 줄로 들보를 만들어 안뜰을 지었다. 37. 제사 년, 시브월에 야훼의 전 기초를 놓았다. 38. 그리고 제십 일년 팔월 곧 불월에 전이 그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 지 칠 년째 되던 해였다.

교리 요점

- *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있어지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준비되는 재료들로 지어진다.
- * 진정한 지혜는 이해하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혜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식별하여 올바른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능력이다.
- *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지식들은 그분을 섬기는데 고용될 수밖에 없다.

해설

사울의 주님에 대한 반항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보좌를 계속 이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은 예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윗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언제나 보좌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윗은 죽기 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후대 왕으로 기름 붓도록 명령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의미이다. 그의 이름처럼 그의 통치는 평화와 큰 영예를 누렸다. 그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적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유함까지 주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허용되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 성막은 판자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일종의 천막에 불과했다. 성막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룩한 땅으로 진입한 후에도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고정된 중심지도 갖지 못한 채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이 그대로 존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게 되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한 묘사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우리 고유의 본성 속에 있는 악 그리고 악함과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전쟁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예배와 그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심을 우리의 심정상태가 다양하게 바뀐다하더라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심 역시 간직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동안의 성막으로 상징되고 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이 이스라엘 왕국의 강건하며 항구적인 중심지가 되었을 때 다윗은 그곳에 궤를 모셨다. 솔로몬은 다윗의 정복으로 얻어진 평화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보다 오래가는 영적인 인격에 대한 묘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주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뇨?”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은 예루살렘성 밖에서 준비되어졌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혹은 다른 연장을 다루는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에 직면하여 싸우게 될 때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님께 우리 속에 지으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모양을 닮아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인격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발견하게 됴므로서 완성되며 그 인격을 상징하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은 우리가 날마다 하게 되는 선과 악의 선택으로 준비되어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7847-4항: “ ‘성전’은 지극히 높은 의미로 볼 때 주님께서 가지시는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22절에서 직접 가르치고 계신다. 성전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분의 교회를 의미하고, ‘문설주’와 ‘문 위의 가로대(상인방)’는 자연적인 것 안에 든 선과 진리로서 소개(입문)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성전에서 문기둥은 올리브나

무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올리브나무’는 진리의 선 또는 영적인 교회 속에 있는 선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다윗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 2) 왜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가?
- 3) 누가 성전을 지었는가?
- 4) 솔로몬이란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 5) 누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공급했는가?
- 6) 솔로몬은 그 재료의 값을 어떻게 치렀는가?
- 7) 성전 건축의 주재료는 무엇인가?
- 8)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 9)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 10) 성전은 예루살렘 내의 어느 곳에 지어졌는가?
- 11) 왜 성전이 다른 건축물보다 훨씬 조용하게 세워졌는가?
- 12) 성전 건축은 몇 년이나 걸렸는가?
- 13)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을 그리는가?
- 14)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15) 성전 건축 재료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미리 다듬어졌다고 함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질문의 답

- 1) 적을 정복함 2) 평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3) 솔로몬 4) 평화 5) 히람
- 6) 곡식, 기름, 성읍들 7) 돌, 나무, 금 8) 전체적인 윤곽측면에서
- 9) 성전은 더 견고하고 항구적이다 10) 모리아산
- 11) 원산지에서 돌을 깎고 다듬었기 때문 12) 칠 년
- 13) 사울 - 의무감에서 진리를 순종함

다윗 - 존경심에서 진리를 순종함

솔로몬 - 사랑함에서 진리를 순종함

14) 시험과의 싸움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인격의 형체가 이뤄진다

15) 바깥 삶 곧 일상생활 중에 있는 올바른 행동으로 인격이 형성된다

19

엘리아의 겉옷

머리말

솔로몬 왕국의 분열과 그 원인을 살펴본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대신 베텔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로 예배를 대체시킨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은 엘리아와 엘리사의 선교활동과 분단된 왕국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장

2장: 1. 야훼께서 엘리아를 회오리바람에 태워 하늘로 데려 가실 때가 되어 엘리아가 길갈을 떠나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2.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 있게.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베텔로 내려갔다. 3. 베텔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마중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4.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예리고로 가야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함께 예리고로 내려갔다. 5. 예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를 따라 요르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7. 예언자 수련생 오십 명이 뒤를 따라 가다가 두 사람이 요르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는 것을 멀찍이 서서보고 있었다. 8. 엘리야가 겹옷을 벗어 맡아 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9.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 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는가? 말해 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두 뭇을 물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10. 엘리야가 말하였다. “자네는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 될 것일세.” 11. 그들이 말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뿔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12. 엘리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겹옷을 집어 들고 되돌아 와 요르단강 가에 서서 14. 엘리야의 겹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느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15. 예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검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그러면서 엘리사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16.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군세고 용감한 장정이 오십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찾아보게 합시다. 어쩌면 야훼의 기운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17. 그들이 계속 졸라 대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허락 하였다. 그리하여 오십 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18. 그들이 예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 오자 그가 나무랐다. “내가 뭐라고 하였나? 갈 필요 없다고 하지 않던가?” 19.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20.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자, 21. 엘리사는 샘터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정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2.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하여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23.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하며 놀려 대었다. 24. 엘리사는 돌아 서서 아이들을 보며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콰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아이들 사십 이 명을 찢어 죽였다. 25.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가르멜산을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 왔다.

교리 요점

- *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발휘된다.
- * 우리가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 * 말씀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도달할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 * 우리가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의미로 전해짐을 알게 되면, 말씀의 글자는 우리 안에서 더욱 새롭게 되며 우리 안에서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권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해설

솔로몬에게 내려진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분열되는 상황은 우리가 자신 혹은 타인 속에 든 악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워 버리기를 거절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솔로몬의 통치로 그려지는 상태, 즉 의를 행하기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심정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오는 깊고 어려운 시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나는 언제나 바른 사람이라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라고 느끼거나 “어느 누구도 솔로몬 같은 심정상태에 도달할 수 없어.”라고 느낄 때 들이닥치는 시험인 것이다.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의 북쪽과 요르단 건너편 지역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국 독립된 왕국을 건설했다. 그곳의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왕국을 세운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나쁜 것은 우상들을 세운 것이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금송아지

들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하나씩 세웠다.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예배하여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즉, 온 백성들을 우상숭배자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기에 몇 가지 시험들과 싸워서 이긴 후 스스로 좋은 인격이라고 여겼던 것을 완성했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젠 성서를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혹은 “이젠 예배에 좀 빠져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이미 이웃에게 친절하며 도와주는 것으로 선을 베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단 말인가?”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만 몰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 보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에게 발생한 문제이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북쪽 지파들에게 두 명의 큰 예언자, 즉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다.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을 대변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자”는 하느님에 의해 쓰인 말씀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여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살피 주실 수 있다.

엘리야는 그의 임무가 끝나자 그의 종이며 제자인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그때 엘리사는 스승 보다 갑절(두 몫)의 영감(영감)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엘리사의 소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뒤 엘리사는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엘리야를 태우고 간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고, 엘리야의 겂옷이 엘리사를 위해 땅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글자로 이뤄진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우리를 천국과 연결시켜 주는 책임을 알게 될 때 갑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묘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395-4항: “엘리야는 주님을 진리 자체인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고, 엘리사가 이를 잇고 있다. 그러므로 ‘겂옷’이란 넓은 의미에서의 신성한 진리 곧 가장자리에 이른 말씀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겂옷이 요르단 강물을 갈랐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겂옷을 엮어 주었다 함은 말씀에 관한 주님을 표현함이 엘리사에게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트린 겂옷을 엘리사가 집어 들었다’함은 이 표현성이 엘리사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이 표현해야 하는 것에 따라 옷 입혀지기 때문이다. ‘겂옷’이란

넓은 의미에서의 신성한 진리인 말씀 또는 한통속에 든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엘리야의 겹옷이 요르단 강물을 가르되 처음에는 엘리야에 의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엘리사에 의해 갈라졌다는 것은 가장자리에 이르러 있는 신성한 진리의 권능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요르단강물’은 교회를 소개하는 첫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런 첫 진리들은 말씀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왕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는가?
- 4)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내진 두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 5) 엘리야의 직무가 끝나자 엘리사는 무엇을 요청했는가?
- 6) 엘리야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 7) 엘리사에게 어떤 환상이 주어졌는가?
- 8)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무엇이 땅으로 떨어졌는가?
- 9) 예언자 수련생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10) 엘리사는 수련생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가?
- 11) 어린아이들은 엘리사를 어떻게 놀렸는가?
- 12) 그 말이 그토록 나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린이들에게 무슨 변이 생겼는가?
- 14) 분단된 왕국의 두 부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예언자의 겹옷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엘리야와 엘리사의 상응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둘로 나뉘었다 2) 이스라엘, 유다 3) 유다 4) 엘리야, 엘리사 5) 두 배의 영검 6) 만일 내가 가는 것을 본다면 가능하다 7) 불말과 불수레 8) 그의 겹옷 9) 겹옷으로 요르단

강물을 가르는 것을 보고 10) 물을 정하게 했다 11) 대머리라고 12) 불손함의 표시 13) 곰이 찢어 죽었다 14) 지성, 심정 15) 말씀의 글자 16) 엘리야 - 순종함에서 말씀을 공부함
엘리사 - 내적인 의미를 인식하면서 말씀을 공부함

20

요 시 아 왕

머리말

이스라엘 왕국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를 무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아시리아 왕국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사악한 왕들이 유다왕국에 잇달아 출현하여 주님에 대한 예배가 쇠퇴되고 우상이 범람했지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혁신을 꾀한 소수의 선왕들도 있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국에게 유다왕국까지 정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23장까지 읽어두면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2장

22장: 1. 요시아는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시갓 출신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을 여디다라 하였다. 2. 그는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 모든 일을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3. 요시아 제십 팔 년에, 왕은 므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공보대신 사반을 야훼의 전으로 보내며 일렀다. 4. “대성직자 힐키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백성이 야훼의 전에 바친 헌금을 야훼의 전 문지기에게서 받아 내어 5. 야훼의 전 공사감독들에게 주어 수리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6. 목수와 돌 쌓는 사람이나 미장이에게 품값을 주고 수리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사도록 하시오. 7. 그러나 일단 돈을 내준 다음에는 계산하지 마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할 것이요.’”

8. 대성직자 힐키야는 야훼의 전에서 법전을 찾았다고 하며 그 책을 공보대신 사반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은 9.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나아가 왕의 신하들이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은을 쏟아 야훼의 전을 수리하는 공사 감독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고하였다.

10. 그리고 나서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대성직자 힐키야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왕의 면전에서 크게 읽었다. 11.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 12. 그리고는 대성직자 힐키야, 사반의 아들 아히캄, 미가야의 아들 악볼, 공보대신 사반과 시종 아사야에게 명하였다. 13. “이번에 찾아 낸 이 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와 온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야훼께 나가 여쭙어 보시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야훼의 진노를 사게 되었소.” 14. 대성직자 힐키야와 아히캄, 악볼, 사반, 아사야는 연예언자 홀다를 찾아 갔다. 홀다는 하르하스의 손자요 디크와의 아들인 의상담당관 살롬의 아내였다. 그들이 예루살렘 신사기에 살고 있는 홀다에게 가서 용건을 말하자, 15. 홀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신 그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하시오. 16. ‘나 야훼가 선언한다. 유다 왕이 읽는 책에 적혀 있는 재앙을 내가 이제 이곳과 이 곳 국민들에게 내리리라. 17.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저희 손으로 만들어 세운 온갖 우상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 나의 속을 썩여 주었다. 그런즉 나의 분노가 이곳에 불길같이 떨어지면,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18. 야훼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너는 나의 말을 받아 들었다. 19. 이곳이 쑥밭이 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저주 받으리라고 한 나의 말을 듣고 너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므로 나도 너의 소리를 들어 주기로 하였다. 이는 나의 말이라, 어김이 없다. 20. 네가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날 너의 무덤에 고이 안정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네 눈으로 하나도 보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돌아와 이 말을 어전에 아뢰었다.

교리 요점

- *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생존해 있기 위해서는 이해성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한다.
- * 우리가 세상적인 사상을 우리의 이해성 안에 들어오도록 방지하면, 이기심은 우리의

마음속을 서서히 기어 다니기 시작한다.

- * 우리가 진실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 * 우리가 우리 속의 결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진실로 고쳐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한다. 우리의 외부적 환경에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순간순간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속의 영혼 곧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혼 곧 심정과 지성을 진실로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배우며 언제나 그 뜻을 따르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주위의 환경에 관계없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의 “왕국”이 자주 분열된다는 것이다. 이는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왕국이 둘로 분열된 것과 같다. 우리의 심정은 선한 사람으로 있으려고 하나 우리의 이해성을 온갖 거짓 사상이 기어 다니도록 내버려 둘 때가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대신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논리에 의해 규율되고 만다. 유다왕국 처럼 우리의 심정은 다윗의 계보에 충성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지속하지만, 우리의 이해성은 주님 대신 금송아지를 제단에 놓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 이야기 속에는 두 왕국 곧 남쪽의 유다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왕국이 세워졌다. 이 두 왕국이 각기 통치하는 것은 분리된 우리의 심정과 이해성을 상징한다.

본문은 두 왕국의 말기에 해당된다. 이스라엘 왕국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갔다. 그들의 적은 점차 강해져 갔고,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아시리아 왕국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다. 더욱이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했다. 간혹 그들을 “잃어버린 지파들”로 칭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도 그러한 언급이 있다.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훌쩍 빠져 버리는 때가 바로 “잃어버린 지파”가 상징하는 것이다. 심정은 이해성보다 오래 지속된다. 심정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의 선한 의도는 파괴되기 상당히 어렵다. 예루살렘과 주님의 성전은 유다왕국 안에 있으며, 여러 선한 왕들이 그 왕국을 통치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 왕이다. 요시아 왕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회개해서 재구성을 시도하여 과거의 상태로 회귀해 보려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빠져 버린 나쁜 상태를 실감하게 되면 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애쓴다.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면 노력한다. 요시아 왕 역시 그러했다. 우리는 요시아 왕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오용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전이 언제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기 위해서 다시 성서로 되돌아간다. 우리 속에 요시아가 살아 있는 한 우리 심정속의 유다왕국은 지속된다. 즉,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고치려고 진실로 발버둥 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틀어박혀진 나쁜 습관을 깨트려 버리기 쉽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나쁜 습관을 부숴내려면 그에 따르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거듭남에 있어서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만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요시아가 죽자 유다 왕국은 즉시 우상숭배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하여 유다왕국은 머지않아 바빌론 왕국에 의해 정복되고 만다.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혹은 행동하는 것들이 모여서 우리 속에 있는 하늘 왕국을 낳게 된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7항: “‘하르마게돈’이란 명예 받기를 사랑함과 남을 지배함 그리고 명성을 얻기를 사랑함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전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애통이 뒤 따르는 것이다. 뜨기또 역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질문 정리

- 1) 두 왕국 중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를 따랐는가?
- 2) 유다 왕들은 이스라엘 왕처럼 한결같이 악했는가?
- 3) 오늘 본문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는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가?
- 5) 그의 치적의 첫 사업은 무엇인가?

- 6) 그는 성전 수리 내용을 어떻게 지불했는가?
- 7) 성전을 수리할 때 무엇을 발견했는가?
- 8) 그 책이 요시아에게 읽혀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 9) 그는 주님께 여쭙 보도록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 10) 홀다는 뭐라고 말했는가?
- 11) 요시아는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가?
- 12) 요시아 왕 이전의 왕들도 건드리지 못한 어떤 것을 요시아 왕이 철거했는가?
- 13) 나라에 질서가 잡히자 그는 어떤 축제를 기념했는가?
- 14) 요시아는 어떻게 죽었는가?
- 15) 그가 죽은 뒤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 16)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왕국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성전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유다왕국에서 가끔 선한 왕들이 즉위했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19) 이스라엘이 망하자 유다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유다 2) 아니다 3) 요시아 4) 8 5) 성전수리 6) 백성의 헌금으로 7) 율법책
- 8) 옷을 찢었다 9) 여 예언자 홀다 10)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요시아 시대에는 그 벌이 없으리라 11) 우상과 제단, 산당을 철거했다 12)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 13) 과일절
- 14)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15) 바빌론에 정복당함 16) 이스라엘 - 지성, 생각 유다 - 심정, 느낌 17) 우리의 인격 18) 심정이 재구성과 회개의 때를 가끔 가지게 됨
- 19) 생각들이 세상적인 욕심에 포로가 될 때, 심정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오래 버틸 수 없다

21

주님께 의지하는 자

머리말

성경에서 시편은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놓여 있다. 시편을 공부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알아두어야 한다. 시편은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늘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책이다.

성 서 본 문 : 시편 91편

1.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이,
2. 야훼께서 네 피난처시요 네 요새이시며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느님이라고 말하여라.
3.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덧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어
4. 당신의 날개로 덮어 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 주시리라.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5.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말아라.
6. 밤중에 퍼지는 염병도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도 두려워 말아라.
7. 네 왼쪽에 천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쪽에 천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8. 오직 눈을 뜨고 보기만 하여라.
악인의 죄 값을 네가 보리라.

9. 야훼를 너의 피난처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10.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네 집을 가까이 못하리라.
11.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12. 행여 너 돌뿌리에 밧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13. 네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새끼와 구리뱀을 짓이기리라.
- 14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 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 주리라.
- 15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 주고 높여 주리라.
- 16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리라."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신다.
- * 시편서는 새교회의 정경에 속한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 * 누군가의 마음이 이타적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이 세계에 사는 동안도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다.

해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사랑한다. 이는 그 책이 노래로서 우리의 심정에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시편이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들을 주시어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약한 면을 넘어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그분의 절대적 필요성을 표현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제아무리 완고한 물질주의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큰 위험을 겪는 순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심정의 깊은 곳에 늘 하느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함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고 있다고 자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 특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더욱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란 바로 주님을 아는 능력 곧 그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그분께로부터 비롯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를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본문의 시편 91편에서도 여느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다.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편 64편에서 사악한 자들에 관한 “칼처럼 혀를 버리고, 화살처럼 시위에 독설을 매겨.”라는 구절을 읽게 된다. 진실로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것들은 거짓된 생각과 우리의 선의지를 갉아먹는 우리 안의 이기적인 바램들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며, 그 시험 중의 어떤 것은 마치 밤중에 퍼지는 염병과 같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직면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아무런 선전 포고 없이 당하고 치러야 하는 전쟁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시험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이 우리가 뻔히 볼 수 있는 곳으로 들이닥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시험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꺼이 시험에 대항하려고 들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모든 시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수호천사들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잘 차려진 밥상에서 어떤 것을 먹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며 그분의 진리를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배운 대로 순종한다면, 본문의 시편에 있는 구구 절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그분께서 약속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악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분의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7102-10항: “여기서 ‘밤에의 놀람’이란 은밀한 가운데 있는 거짓이고, ‘낮에 흐르는 화살’이란 이미 드러나 있는 거짓이다. ‘흑암 중에 기어 다니는 염병’이란 아주 은밀한 가운데 있는 거짓을 의미하며,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거짓을 말한다.”

「천국의 신비」 제 7505항: “‘극한 염병’이란 일반적으로 완전히 소진됨을 뜻하는데, 이는 염병에 의해서 진리가 황폐해짐을 말해 줌으로써 명백해진다[시편 91:5-6]. ‘흑암 중에 기어 다니는 염병’이란 은밀한 가운데 황폐해지게 하는 악을 의미하며,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란 드러내놓고 황폐화시키는 악들을 말한다.”

질문 정리

- 1) 본과에서 공부하는 성경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시편은 무엇인가?
- 3) 우리는 시편서가 영감된 하느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아는가?
- 4) 왜 모든 이는 시편을 사랑하는가?
- 5) 주님께서서는 시편 91편에서 그분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 6) 본 시편은 위험을 어떻게 둘로 분류했는가?
- 7)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육체에 해당되는 위험을 말씀하고 계신가?
- 8) 주님께서서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갑옷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9) 그분은 천사들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 10) 우리는 이 시편이 우리를 돕도록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11) 낮에 있는 위험과 밤에 있는 위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시편 2) 노래 3) 누가복음 24:44 4) 심정에 호소하므로
- 5) 보호 6) 밤과 낮 7) 아니다 8)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
- 9) 우리를 돌볼 것이다 10) 나쁜 생각과 느낌에 대해 사육
- 11) 낮 - 결과를 예상하면서 있어진 악
밤 -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있어진 잘못

22

성전에서 솟는 샘

머리말

에제키엘서를 중심으로 하여 대 예언서의 일반적 요점을 소개한다.

성 서 본 문 : 에제키엘 47장 1-12절

47장: 1.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리어 성전 정문으로 가 보았다.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에서 뺨은 선을 타고 흘러 내려갔다. 2. 나는 그분에게 이끌리어 북문을 나가 바깥길로 해서 바깥 동문께로 돌아 가 보았다. 물이 그 대문 오른쪽에서 솟아나는 것이 보였다. 3. 그분이 측량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 찼다. 4.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에 찼다. 5.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보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이나 치면 건널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었다. 6. “너 사람아, 보지 않았느냐?”하고 말하며 그분은 나를 강가로 도로 데리고 갔다. 7. 되돌아와 보니 강을 끼고 양쪽에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보였다. 8.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 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물마저 단물이 된다. 9.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며 살 수 있다. 어디로 흘러들어 가든지 모든 물은 단물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득실거리게 된다.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생명이 넘친다. 10. 이 강의 물고기 종류는 지중해의 그것만큼이나 많아서 엔게디에서 에네그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언덕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 놓고 늘어서 있으리라. 11. 그러나 수령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 있으리라. 12.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

교리 요약

- * 모든 진리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 * 말씀은 깊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진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되 말씀을 통해서 와야만 한다.
- * 선한 일 안에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해설

본문은 에제키엘서인데, 이는 대 예언서들 중의 하나이다. 대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서로 총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대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12권의 소 예언서보다 부피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히즈키야왕 시대에 유다에서 살았다. 예레미야 역시 유다에서 살았는데, 그는 유다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 포로가 되기 얼마 전부터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다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화되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남아 있던 백성들 가운데서 예언을 계속했다. 그리고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고 포로들 가운데서 예언을 했다.

본문인 에제키엘 47장 1-12절의 내용은 에제키엘이 25년간의 포로생활 중에 가졌던 긴 환상중의 일부로서 그의 마지막 환상이기도 하다. 그는 환상 중에 천사에 의해서 거룩한 땅으로 데려가졌고 성전 이곳저곳으로 인도되었다. 이후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강에 관한 환상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 이유는 강이란 말씀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심을 인식해야 한다. 이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욱 배워가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를 거듭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가 바로 말씀임을 느끼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퍼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임을 발견하게 됨으로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본문에서 에제키엘이 한 발씩 더 들어갈 때마다 더 깊어 가는 강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강은 흘러가는 곳마다 수렁이나 웅덩이를 제외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며 치료도 해준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순수하고 온전하게 만드실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심정이 끌리고 있는 약함과 악들 그리고 우리 속의 약함과 악들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거나 아예 인정하려 들지 않는 마음일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우리 속의 결점들을 보여주고 그 결점과 싸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줌을 느끼며 그대로 따르게 되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주게 된다.

에제키엘이 본 강은 에덴의 동산을 적시던 강과 같은 강이며,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강과 같은 강 곧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으로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강을 말한다(창세기 2:9, 계시록 22:1). 그리고 시편에서는 “강물의 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존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시편 46:4).”라고 표현되어 있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424항: “강은 말씀이다. 모든 것을 살게 만드는 강물이란 그 안에 든 신성한 진리이다. 물고기는 기억 속에 든 지식이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629-8항: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받아 어떻게 총명이 증가하는지는 예언자가 건너간 강물로 묘사되고 있다. 발목까지 차는 물이란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무릎까지 차는 물이란 영적이면서 자연적인 것을, 건널 수 없는 강이란 천적인 총명을 그리고 이 총명을 지혜라고 부르는데, 이 지혜는 삼층 천의 천사들이나 천적 인간이 가진 지혜이다.”

질문 정리

- 1)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에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어디로 옮겨졌는가?
- 3) 천사는 무엇을 맨 먼저 측량했는가?
- 4) 에제키엘이 알고 있는 성전 내용 중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 5) 천사가 강을 측량할 때 얼마큼씩 멀리 측량했는가?
- 6) 에제키엘로 하여금 건너가보도록 허용된 세 가지 깊이는 무엇인가?
- 7) 마지막 깊이는 얼마나 깊었는가?

- 8) 강가에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9) 강가에 누가 서 있었는가?
- 10) 강물이 닿는 곳은 어떻게 되었는가?
- 11) 살아있게 만들 수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
- 12) 이런 장소는 어떻게 남아있는가?
- 13) 나뭇잎은 무엇에 쓰였인가?
- 14) 강은 무엇을 그리는가?
- 15) 잎과 열매는 무엇을 그리는가?
- 16) 우리가 항상 말씀을 더욱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바빌론 2) 예루살렘 3) 성전 4) 물 5) 천 큐빗 6) 발목, 무릎, 허리 7) 머리 너머까지 8) 나무 9) 어부 10) 건강하게 된다 11) 짚물로 13) 치료 14) 말씀 15) 잎 - 좋은 생각, 열매 - 선한 행위 16) 말씀에는 끝없이 많은 지혜가 있다

23

느부갓네살의 꿈

머리말

다니엘서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주님께서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성서 안에 알맞은 장소를 정해 주셨다. 유다왕국의 함락과 그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한다.

성서 본문: 다니엘 제 2장

2장: 1. 느부갓네살왕 제 1년에,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2. 왕은 자기가 꾸는 꿈을 알아내려고 미술사, 술객, 요술장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려 그들이 대령하자 3. 이렇게 물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4.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해몽하여 드리겠으니, 그 꿈을 소신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5. 그러나 왕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안된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더미로 만들리라. 6. 그러나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줄 터이니 내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보아라.” 7. 점성가들이 다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 주어야 해몽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8.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내 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9. 너희가 내 꿈을 알아 내지 못한다면 죽이리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꾸며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어렵도 없다, 당장 내 꿈을 알아내어라. 그래야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아니냐?” 10. 점성가들은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것을 미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게 묻은 적이 있습니까? 11. 임금님께서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12. 왕은 노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바빌론의 재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13. 재사들을 죽이라는 영이 내리자 병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14. 마침 왕의 형리부장 아륙이 바빌론 재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물었다. 15. “어명을 받드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영을 내리셨습니까?” 아륙이 그 사정을 알려 주자 16. 다니엘은 자기가 입궐하여 해몽할 터이니 말미를 달라고 청하였다. 17. 다니엘은 마침내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 가서 자기 동료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18.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 재사들과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19. 그 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20.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21.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오, 재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어라.

21.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어라.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23. 이 몸, 하느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4.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은 아륙을 찾아 가 청하였다.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를 입궐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25. 아륙은 곧장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고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 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로잡혀 온 유대인입니다.” 아륙의 말을 듣고 26. 왕은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네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나? 그리고 해몽할 수도 있단 말이나?”

2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느 재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장이라도 밝혀 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28. 하늘에는 어떤 비밀도 밝혀내실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훗날 일어날 일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잠자리에 누워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훗날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30.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소신에게 그 비밀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 드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31.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2.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쇠요, 33.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4.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35. 그러자 쇠, 흙, 놋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돌은 산 같은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36. 꿈은 이러합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37. 임금께서는 왕이실뿐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38. 하느님께서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임금님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39.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쇠쇠로 된 나라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40. 네 번째로 설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겠습니다. 쇠는 무엇이나 부습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기는 하겠지마는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는 웅기 흙과 섞여 있습니다. 42. 발과 발가락들이 쇠와 웅기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 43. 임금님께서 보신대로 쇠가 웅기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웅기 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44.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45.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쇠쇠와 웅기 흙과 은과 금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46. 그러자 느부갓네살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47.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48.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바빌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또 바빌론의 재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앉혔다. 49.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근무하였다.

교리 요점

* 하느님의 섭리는 역사를 조절한다.

- * 계시는 예언자들에게 종종 꿈으로 주어지기도 했다.
- * 진정한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 * 겸손함은 선행(이타애)의 필수 요건이다.

해설

선왕인 요시아가 죽은 후 유다 왕족과 백성들은 그들의 악한 길로 되돌아가버렸고, 그 결과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 없는 때가 더욱 빨리 초래되었다. 먼저 이집트가 쳐들어와 공물을 바치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 바빌론이 거룩한 땅을 이집트로부터 가로챘다. 한 동안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유다를 통치하도록 바빌론에 의해 허용되었지만, 그들이 바빌론에 반역함에 따라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던 성전을 파괴했고 극빈자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제일 먼저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인들은 예루살렘이 몰락되기 전에 끌려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은 아마 유다의 젊은 왕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가진 능력이나 재주가 탁월했고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갈대아의 모든 지식으로 교육시켜서 이용할 계획이었다. 이 왕자들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다니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친숙하다. 이는 그가 성경전체를 망라하여 주님에 대한 겸손과 순종으로 지혜와 용기를 얻은 사람의 표본이 되기 때문이다. 본문은 그가 어떻게 바빌론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관한 꿈의 내용이 스스로가 슬기롭고 위대하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선함과 지혜를 차차 잃게 되어 결국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묘사임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꿈이 바빌론의 미래에 관한 것임을 해몽해 주었다. 그러나 그 꿈은 이 정도의 해몽 이상의 아주 폭넓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더 깊고 깊은 의미를 준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전후에 대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해 두어야 한다. 먼저 다니엘이 자신에게 필요한 진리를 보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다. 두 번째는 그가 꿈의 의미를 말해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갔을 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잘난 체 하는 데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진리를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공공연히 선언했다. 이로 인해 꿈의 의미가 설명된 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부와 권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하느님을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인정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혹은 교회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되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으스대거나 자신이 선한 사람이어서 선행을 베푸는 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화자찬이나 남을 지배해 보려는 바램들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의 뿌리가 시작되려는 움직임이 자신 속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1029-5항: “다니엘에 의한 꿈의 해석이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시작에서 끝까지의 상태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 교회의 상태가 꿈속의 형상인 머리, 가슴, 팔, 배, 넓적다리, 정강이 그리고 발에 이르기 까지 단계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 은, 놋쇠, 철 그리고 진흙이 재료가 되어 형상의 머리부터 발까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역시 처음에 주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선에서 나온 지혜로 가득 했었음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부분인 머리는 지혜를 의미하고, 금은 이 교회의 초반에 있었던 주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발과 발가락이 쇠와 흙이었다는 것은 이 교회가 마지막 상태에 가서는 어떤 선이나 지혜도 없이 존재할 것임을 의미한다. 인척관계 곧 사람의 씨를 맺는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 즉 말씀속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불일치는 당연한 결과 일 수밖에 없는 바, 이 교회는 끝에 진리의 응용이 인간을 예배하게 되어 왜곡되고 만다.”

「천국의 신비」 제 9406-7항: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쇠, 놋쇠, 은 그리고 금을 쳐서 가루로 만들었다 함은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받는 측면의 멸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악과 거짓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의 글자를 인용할 때인 바,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끝장난 상태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 속에는 어떤 천국적인 사랑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오직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만 있게 될 따름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당시 유대 왕국이 말씀만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태고시대 때의 경우 말씀의 진정함은 금으로 의미되었다. 하지만 말씀의 속뜻은 말씀의 글자를 통해서만 추상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왜 주님은 언제나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계발해 주실 수 있으셨는가?
- 3) 다니엘 당시 누가 통치했는가?
- 4) 이 왕은 그 나라의 현자들에게 무엇을 대답하라고 요구했는가?
- 5) 다니엘은 그 대답을 어떻게 구했는가?
- 6)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인가?
- 7) 이 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무슨 금속으로 만들어졌는가?
- 9) 그 발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 10) 어떻게 형상이 파괴되었는가?
- 11) 형상을 부순 돌은 무엇이 되었는가?
- 12)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느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13) 그 왕은 다니엘에게 어떤 보상을 내렸는가?
- 14) 상을 만든 네 금속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5) 그 상의 발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16) 이 환상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바빌론 2) 그의 믿음 3) 느부갓네살 4) 왕의 꿈을 재생하고 해석함
- 5) 기도를 통해 6) 큰 상(형상) 7) 금 8) 은, 동, 철 9) 철과 진흙

- 10) 돌 11) 산같이 큰 바위 12) “하느님들의 하느님” 13) 온 지방의 통치자
 14) 금 - 주님을 사랑, 은 - 믿음, 동 - 자연적인 선함, 철 - 자연적인 진리
 15) 바깥쪽 삶 16) 지배욕이 자신의 삶에서 발달하도록 허용하는 자는 영적인 과멸을 갖는다

24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머리말

우선 소 예언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리한 후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 아모스서 제 8장

8장: 1. 다시 주 야훼께서 보여 주신 것은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였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하고 내가 아뢰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도 그 모양이니, 이젠 될 대로 다 되었다. 더 용서해 줄 수도 없구나. 3. 그 날이 오면, 궁궐에서 노래하는 여자들도 울부짖으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간 데마다 버려진 시체 투성이가 되리라.”

4.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더기의 숨통을 끊는 자들아,

5. 겨우 한디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겨까지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빛돈에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켈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 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7. 야훼께서는 야곱이 자랑으로 여기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8. 그리하여 땅은 뒤틀리고
 거기 사는 사람은 모두 쩌들리라.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어 오랐다가 잦아들리라.
9. 그 날이 와서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에 땅이 캄캄해지거든,
 모두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10. 순례절에도 통곡소리 터지고
 흥겨운 노랫소리 그치면
 상여 소리 구슬피 퍼지리라.
 모두들 굵은 베를 허리에 걸치고
 머리를 밀며 외아들이라도 잃은 듯 통곡하리라.
 마지막 날은 이런 비극으로 끝나리라.
11. 나 야훼가 선고한다.

- 에돔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에돔을 벌하고 말리라.
 동기간의 정을 끊고
 칼로 겨누며 달려들었다.
 사뭇 증오심에 불타올라
12. 끝내 앙심을 풀지 않은 죄 때문이다.
 데만에 불을 지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13. 나 야훼가 선고한다.
 암몬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암몬을 벌하고야 말리라.
 길르앗에서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르며
 영토를 넓힌 죄 때문이다.
14. 라빠성에 불을 질러
 그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폭풍이 몰아치는 날
 회리바람과 함께 살라 버리고,
15. 백성을 다스리던 왕은
 귀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 야훼의 말씀이시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벌은 우리가 행하는 악 안에 포함되어 있다.
- * 말씀의 목적중의 하나는 우리속의 악들의 해로움을 경고하는 것이다.
- * 목마름이란 진리의 결핍을 의미한다.

* 굽주림이란 선함의 결핍을 의미한다.

해설

구약 성서의 마지막부분에 위치한 열 두 권의 책들을 소 예언서라고 부른다. 이 책들이 “소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 책들의 부피 때문이지 그 책들의 내용이 가벼워서가 아니다. 따라서 소 예언서들이 말씀의 다른 부분들과 동등하게 중요함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께 의해 보내져서 그 시대에 백성들이 빠져 있는 악을 지적하며 장차 그 악행의 결과를 경고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다. 예언자들 중 일부는 주어진 환상들을 받아쓰도록 명령되었는데, 사실 환상을 받아 쓴 예언자들 스스로도 그들이 본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 이유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단어들이 모두 주님께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예언은 그들 스스로가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예언자들이 거듭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그 중요성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우리 각 개인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주님의 말씀들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꽤 많이 공부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아모스서로부터 발췌한 본문 8장에는 두 가지 명백한 말씀이 등장한다. 그 중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르고 있는 것들에 관한 저주이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흔한 것들이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사업 면에서 속이기 일쑤며, 주님을 잘 예배하는 체하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본문에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본문을 통해서도 물질적인 양식이나 물에 대한 부족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한 양식과 물보다 더 요구되는 것은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단어는 우리의 귀를 수단으로 하여 소리를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 내 말 들리니?”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귀가 멀어서 소리 자체를 듣지 못할까봐 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부모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너 내 말대로 할 거니?”일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서

듣는 것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본문인 아모스서의 구절들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자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386-22항: “ ‘양식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의 결핍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회나 교회의 교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녘에서 동녘으로 돌아다니며 야훼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말씀에서 발견된다.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다’ 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이란 모든 측면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영계에서의 가장 바깥쪽은 선과 진리들이 시작되고 종결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말씀에서 ‘바다’란 선과 진리를 인지함 또는 넓게 보면 일반 지식들을 의미한다. ‘북녘에서 동녘으로’란 선과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방 각처를 의미한다. 북쪽은 진리가 희미하게 보임을, 동녘은 선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다음 절에서 “그날이 오면 아름답고 씩씩한 젊은 남녀들도 목이 타서 쓰러지리라”하고 말해진다. ‘아름다운 처녀’란 선으로부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씩씩한 젊은이’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자체를 의미한다. ‘목이 타서 쓰러진다’함은 위와 같은 선과 진리의 결핍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있는가?
- 2) 왜 우리는 그 책들에 “소”라는 말을 붙이는가?
- 3) 이 책이 쓰여 진 가장 이른 연대는 언제인가?

- 4) 이 책 중 마지막 세 권의 연대는 언제인가?
- 5) 이 책들 중 아모스서는 몇 번째에 들어있는가?
- 6) 그는 언제 살았는가?
- 7)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8)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9) 그는 누구를 향해 예언했는가?
- 10) 본문은 어떤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 11)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12)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제 11절은 어떤 종류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말하는가?
- 14) 복음서의 팔복 중 몇 번째가 위의 11절과 같은가?
- 15)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12권 2) 짧아서 3) B.C. 800년 4) B.C. 400년 5) 3번째
- 6) 우찌야 시대 (약 B.C. 800년) 7) 드고아 8) 목부
- 9) 이스라엘,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족들 10) 여름과일 한 바구니
- 11) 속이고 훔치고 12) 국가가 망한다 13) 말씀을 듣지 못함 14) 4번째
- 15) 심정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듣기 위해 지성을 열면 된다.

강림에 대한 예언

머리말

성경의 두 부분과 단어 「Testament, 성약」의 의미를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말라기서 3장 (개역 3,4장)

3장: 1.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 길을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터 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으리라. 3.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쇠뿔을 걸러 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5. 나는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어 날뽀팔이, 과부, 고아, 뜨내기꾼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6. 나는 야훼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여전히 야곱의 후손으로 대접하리라. 7. 너희는 조상적부터 내 법규를 저버리고 지키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 가겠습니까?”하고 묻는다. 8.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느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느님을 속이겠습니까?’하는구나,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9.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10.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곳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 주는지 갚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1. 내가 해충을 막아 땅의 소출을 축내지 못하게 하고 포도 농사를 망치는 일도 없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2. 너희가 사는 이 땅은 낙원이 되어 못 민족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3. ‘이 무슨 무엄한 소리냐?’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그러나 14.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 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배옷을 입고 울어 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15.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 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 있지 않은가!’ 16.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야훼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책에 적어 두고 잊지 않으리라. 17. 내가 나서는 그 날에 가서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귀엽게 여겨 내 백성으로 삼고, 효도하는 자식처럼 아껴 주리라. 18. 그제야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19. 보아라. 이제 풀무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다가왔다. 그 날이 오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검불처럼 타 버려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0.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쳐와 너희의 병을 고쳐 주리라. 외양간에 매여 있던 소가 풀려 뛰어 나오듯, 너희는 밖으로 나와 21. 나쁜 자들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서는 그 날이 오면, 나쁜 자들은 너희 발바닥에 채처럼 짓밟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2.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나의 종 모세를 시켜 온 이스라엘에게 내린 법과 규정과 계명을 되새기도록 하여라. 23. 이 야훼가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24. 엘리야가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

교리 요약

- * 주님의 오심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언되어져 있다.
- *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만을 말했다.
- * 자신의 지혜를 신뢰함은 신앙과는 정반대이다.
- * 선한 자는 언제나 구원될 것이다.

해설

우리는 이 본문으로 구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다. 단어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특사”라는 뜻이다. 말라기를 통해 주어진 예언들의 주된 내용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수백 년 동안 그분을 따른 유대인들 중의 선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고대 유대교회는 이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혼혼함과 타국에서의 포로 생활이라는 쓰라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곳으로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덮어놓고서 말씀을 자신들의 세상적인 방법에 이용함으로써 결국 선한 사람들까지도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말라기서 이후 사 백 년 동안 그들에게 어떤 예언자도 보내주지 않으셨다. 말라기를 통한 예언이 그들에 대한 마지막 권고이자 경고였던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젠가 그분 자신이 세상에 오실 것임과 신실하게 그분을 의지한 자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도록 준비될 것임도 약속해 주셨다. 본문 제 17절은 위의 약속을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위한 아름다운 글이다. 즉, 그들이 선하게 남아 있다면 그들이 주님의 보석중의 하나로서 세어짐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본문 20절도 위의 구절같이 주님의 인간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이다. 우리가 진실로 선남선녀가 되고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이해성에 명백한 진리의 빛이 드리워지고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혼혼해지며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했던 각종 질병들이 모두 치료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8159-2항: “영적인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시험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수행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 이들을 위해서 지옥에 대항해 주셨는데, 이는 말라기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의미된다. 이 구절은 주님의 오심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이 구절에 있는 ‘레위 후손’은 영적인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레위란 이타에 또는 영적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장간의 불길’은 시험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시험에 의해 순수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 구절 속에서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됨’으로 말해지고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란 믿음과 이타에이고, ‘옛날 그 한 처음’이란 고대 교회시대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2) 마지막 세 권의 책은 언제 예언되었는가?
- 3) 세 권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책은 누가 예언했는가?
- 4) 말라기란 무슨 뜻인가?
- 5)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6) 말라기는 어떤 큰 예언을 하고 있는가?
- 7) 그는 그분의 오심이 무엇 같다고 말하는가?
- 8) 그분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9) 그분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10)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보내진다고 했는가?
- 11) 주님의 오심은 왜 떠오르는 태양 같다고 했는가?
- 12) 말라기 이후 세례자 요한 때까지 왜 예언자가 보내지지 않았는가?
- 13) 왜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준비되어야 했는가?

질문의 답

- 1) 12 2)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3) 말라기 4) 나의 특사
- 5) 십일조 법에 불순종함 6) 주님의 오심 7) 정의의 태양
- 8) 그들을 짓밟으리라 9) 그들을 치료해 주리라 10) 엘리야
- 11) 따뜻함과 빛을 가져오기 때문 12)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
- 13) 주님의 진리가 갑자기 들이닥친 결과로 자아 파멸이 있을 것이기 때문

세레자 요한의 출생

머리말

구약 성서를 공부할 때는 지리적인 배경의 설명을 추가해 왔으나 신약 성서의 공부에서는 하나의 지리적인 배경만 있게 된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의 거룩한 땅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래아였다. 본과를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 갈릴래아 바다, 가파르나움, 요르단강 건너지역 그리고 예리고의 지도상 위치를 기억해둔다. 본문은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하나 주님의 탄생이 성탄절 공부에서 다루지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구약성서와의 연결점을 강조할 것이다.

성서본문: 누가복음 1장

1장: 1.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 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3.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하께 써 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헤로데가 유대의 왕이었을 때에 아비아 조에 속하는 성직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즈가리야였고 그의 아내는 성직자 아론의 후예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6. 이 부부는 다 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7.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이제는 내외가 다 나이가 많았다. 8. 어느 날 즈가리야는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성직자 직분을 이행하게 되었다. 9. 성직자 들의 관례에 따라 주님의 성소에 들어 가 분향할 사람을 제비뽑아 정하였는데 즈가리야가 뽑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10. 안에서 즈가리야가 분향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11.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즈가리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12. 이것을 본 즈가리야는 몹시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3. 그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즈가리야, 하나님께서 네 간구를 들어 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사람이 또한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15.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그 밖의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16.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 올 것이다. 17.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18. 이 말을 들은 즈가리야가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말하자 19.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시종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들고 너에게 일러 주었는데 20.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1.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즈가리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22. 드디어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즈가리야가 성소에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병어리가 된 즈가리야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시늉만 할 뿐이었다. 23. 즈가리야는 성직자 당번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 왔다. 24.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 다섯 달 동안 들어 앉아 있으면서 25.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 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26.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27.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 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하고 인사하였다. 29.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31.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33.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34.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35.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37.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38.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 갔다. 39.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 가서 40. 즈가리아의 집에 들어 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42.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43.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44. 문안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45.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46.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48.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50.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51.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52.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53.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54.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57.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던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가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나서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하였다. 61. 사람들은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하며 62.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63. 즈가리아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64. 바로 그 순간에 즈가리아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65. 모든 이웃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 일은 유다 산골에 두루 퍼져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6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67. 아기 아버지 즈가리야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예언의 노래를 불렀다. 68.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당신의 백성을 찾아 와 해방시키셨으며,
 69.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70.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 하심이요, 72.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시고 73.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74.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내시어 75.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한 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심이라. 76.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 되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77.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리니
 78. 이것은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79.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80. 아기는 날로 몸과 마음이 굳세게 자라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교리 요점

- *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시다.
- * 신약성서 안에 구약 성서가 꾸준히 인용되어 신약과 구약이 함께 묶어져 있으므로, 그 둘을 분리하면 둘 다 이해할 수 없게 된다.
- * 진정한 믿음은 주님에 관한 조그만 지식까지도 흠모한다.
- * 우리속의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거절하도록 만든다.

해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길지만 그 안의 각각의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서만을 읽어야 한다고 여기거나 구약 성서에서 십계명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은 십계명까지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에 관한 지식 없이는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구약 성서가 전 복음서에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약과 구약의 두 성서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두 특사에 관한 예언을 읽게 된다. 그중 하나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엘리야이다. 다른 하나는 “언약의 특사”인데, 이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이 두 예언이 성취되는 광경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천사가 즈가리아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낳을 아기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또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에게서 탄생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이천 년 전 세상에 오셨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크게 여기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가끔 잊고 살아간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가정에 더욱 가까이 와 계심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분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들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심을 느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에 들어오시도록 마음 문을 열어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진정한 신앙인이 되도록 시도해 보자.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졌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마태복음 3:2). 천국은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들에 쏠려 있는 동안은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이 닫혀 있게 되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게 된다. 이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회개이다. 우리는 회개가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상의 것을 의미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회개란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비추어 보고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우리 마음속의 그릇된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지침을 뿌리째 뽑아 던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6988항: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병어리’가 말을 못한다는 의미로부터 명백해진다. 여기서 ‘말을 함’은 단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고백 혹은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내적 의미에서의 ‘병어리’란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들은 몰라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을 뜻하며, 이런 상태의 나라들은 교회 밖에 있는 나라들 또는 교회 내에서 단순한 사람들도 이에 해당된다.”

질문 정리

- 1)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인가?
- 2) 말라기는 어떤 사건을 예언해주고 있는가?
- 3) 말라기는 어떤 두 특사가 올 것이라고 했는가?
- 4) 주님이 오실 당시 그 땅에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은 무엇인가?
- 5) 주님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6) 주님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7) 첫 특사는 누구라고 했는가?
- 8) 본문에서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 9) 그 천사는 누구에게 먼저 왔는가?
- 10)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즈가리아에게 주었는가?
- 11)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12) 천사는 두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 13)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4) 우리는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15)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6) 왜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는가?
- 17) 병어리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했는가?
- 19) 세례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말라기 2) 주님의 오심 3)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특사와 언약의 특사
- 4)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과 선해지기를 원한 이들 5) 풀무불에 타듯이 된다
- 6) 고침을 받는다 7) 엘리야(요한) 8) 가브리엘 9) 즈카리야 10) 아들을 갖는다
- 11)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12) 마리아 13) 아들을 가진다
- 14)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 15) 회개하라! 16) 세례를 주었기 때문
- 17) 영적인 무지 18) 겸손과 회개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
- 19)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우리의 의도

주님의 탄생

머리말

본장은 교회의 절기중 하나에 속하나 성서를 차례대로 배열하고자 이곳에 삽입한 것이다. 성탄절에 본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성탄절에 대한 성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장 1-20절

2장: 1.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2.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3.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5.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 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7.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8.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10.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11.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하고 말하였다. 13. 이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4.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15.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 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사실을 보자”하면서 16. 곧 달려 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17.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18.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20.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교리 요약

- *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의 완성이다.
- *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도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 * 주님께서서는 우리속의 유대 땅 곧 마음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속의 갈릴래아 지역 곧 일상생활에서 성장하시며 우리속의 사마리아 지역 곧 생각을 자주 거치셔야 한다.

해설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연력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범상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쉽게 입증된다. 실제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구약 성서에는 하느님 스스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 왔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시기로 약속된 구세주를 언급하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에 의해 사용된 이름이었다.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예수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를 의미하며, 탄생한 아기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누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이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마리아로부터 인간 본성을 입으셔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시험들을 당하시고 그것들을 극복해내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본보기를 따른다면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역시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천국으로 가는데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길인가를 보여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엄청난 사건들은 우연적으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즉,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초부터 서서히 준비되어 때가 되자 이뤄진 것이라는 말이다. 성탄 이야기를 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의 세부사항들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성탄의 이야기들을 사랑한다. 세월이 지나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를 안겨 준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성탄절 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선사하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그분 자신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6-12항: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말해진다. ‘여관’이란 교훈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그것이 유대인들과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간음질화 하여 오로지 거짓 속에만 있게 되었다. 이것 역시 ‘여관에 방이 없었다’로 의미된다. 만약 주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기뻐하셨다면, 그분은 가장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셔서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침대에 놓여 졌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라면, 그분은 진리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교리와 함께 하셨을 것이고 천국적인 표현역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분은 ‘포대기에 싸서’ 누이셨다고 말해진다. ‘포대기’란 첫 진리를 의미한다. 첫 진리는 순진한 진리이며, 신성한 사랑의 진리이기도 하다.”

『진정한 기독 종교』 제 92항: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혹은 ‘나는 아버지께 의해 보내졌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 보내짐’이 인간들 사이에 내려오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입으신 인간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그분이 입으신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로 실체화 되었는데, 이는 그 인간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느님으로부터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또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하느님의 아들’이란 그분의 인간 안에 있는 여호와 하느님을 의미하고, ‘인간의 아들’이란 말씀에 관한 측면에서의 주님을 의미한다. 반면, ‘마리아의 아들’이란 엄격히 말해서 그분이 입으신 인간을 의미한다. 주님이란 점에서 그분이 가지셨던 신성은 여호와 아버지로부터였고 인간은 어머니로부터였다. 이 둘이 하나를 이루어 하느님의 아들인 것이다. 신성한 삼위 일체 곧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안의 아버지는

신성이고 아들은 신성한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은 신성의 실재하심이라는 것은 본서 제 3장의 주제인 신성한 삼위일체에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2) 주님께서는 대략 몇 년 전에 지상에 태어나셨는가?
- 3) 그분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4)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5)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인가?
- 6) 그분의 탄생이 알려진 이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산 사람은 누구인가?
- 7) 그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는가?
- 8) 베들레헴 근처에서는 누구에게 말해졌는가?
- 9) 그 목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가?
- 10) 누가 그들에게 말해주었는가?
- 11)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2) 천군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목자들은 어디서 주님을 발견했는가?
- 14) 목자들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가?
- 15) 누가 목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했는가?
- 16) 예수란 누구인가?
- 17) 왜 그분은 세상에 오셨는가?
- 18)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 2000년 전 3) 베들레헴 4) 마리아
- 5) 요셉 6) 동방박사 7) 별을 보고... 8) 목자 9)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중에

- 10) 천사 11)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
- 12)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13) 마구간 14) 그들이 만난 사람 15) 마리아 16)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 17)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심 18) 속량, 모든 이로 구원 가능하게 만드심

28

나인성의 과부

머리말

제 1권에서 복음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았으므로, 그 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서에 있지 않은 사건들을 가능한 많이 다루어 같은 사건의 중복을 피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주님 생애의 초기나 세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연관된 사항들은 각 권에서 따로 살펴볼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7장 1-30절

7장: 1.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2. 마침 그 때 어떤 백인대장의 종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이 대단히 아끼는 종이였다. 3. 백인대장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원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 주십사 하고 간청하게 하였다. 4.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그 백인대장은 도와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6.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인대장은 친구들을 시켜 예수께 전갈을 보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사람이 못 되며 7. 감히

주님을 나가 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8.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군중을 돌아다보시고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본 일이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10.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종은 이미 깨끗이 나아 있었다. 11. 얼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 갔다. 12.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때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 오고 있었다. 13.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하고 위로하시며 14.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 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하고 명령하셨다. 15.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16.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와 주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7.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19. 주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하고 묻게 하였다. 20. 그 두 사람이 예수께 가서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십니다”고 말하였다. 21. 바로 그 때 예수께서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도 뜨게 해 주셨다. 22.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23.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24.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 간 뒤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26.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27. 성서에,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 일꾼을 먼저 보낸다.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28.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29.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30.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다.
- * 모든 예언자들은 말씀을 표현한다.
- * 믿음은 확신을 내포한다.
- * 진정한 선행(이타애)은 삶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어야 한다.

해설

본문에는 두 가지 경이로운 이야기가 있다. 그중 하나는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었던 로마군의 백인대장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주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사실로 믿었고, 그와 같은 권능이 하느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알고 있어서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인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에 구애 받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주님의 권능에 대해 듣게 될 때 더욱 확증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로마인이었던 백인대장이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기꺼이 자신을 돌렸듯이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문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만 가난한 과부에 관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녀의 아들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그저 우연히 있었던 일들 짚으로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연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능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위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정한 가르침은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육체를 떠난 우리의 영혼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한다.” 천사들이 볼 때 우리가 일컫는 죽음이란 곧 영혼의 세계에서 태어나게 되는 부활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천사들이 영혼의 세계에서 의식을 갖고 깨어나는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당사자를 위한 축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삶을 이 세상에서 배우고 살아내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죽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자 스스로가 어느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899-11항: “ ‘죽음’은 부활을 의미한다. 고로 ‘죽은 사람’이란 영원한 삶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뜻한다. 그 이유는 ‘죽음’이 지옥 또는 악과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과 거짓들은 인간이 영적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 악과 거짓이 죽어 활동을 그칠 때까지 인간은 영적인 생명을 갖지 못하는데, 이는 말씀 속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 또는 ‘부활’이란 말속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은 말씀 어디서나 인간 고유의 것 곧 그 자체로 본다면 단지 악과 거짓뿐인 생명의 활동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에서의 부활은 그것이 자연적이든 영적 측면이든 간에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에 의해 의미된다.”

질문 정리

- 1)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2) 세례자 요한의 부모는 누구인가?
- 3) 주님이 오신다고 누가 통고했는가?
- 4)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5) 같은 천사가 어떤 다른 통보를 했는가?
- 6) 누구에게 위의 통보는 있어졌는가?
- 7)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두 개의 친숙한 노래는 무엇인가?
- 8)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9)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 10) 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 11) 오늘 본문의 첫 기적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 13)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게 하실 수 있는가?
- 14) 요한은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15) 주님은 요한의 특사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 16) 주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께서는 누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의 예언 2) 즈가리아와 엘리사벳 3) 천사 가브리엘
- 4) 요한의 출생까지 병어리가 됨 5) 주님의 탄생에 관한 것 6) 마리아
- 7) 축가와 찬미가 8) 회개하라 9) 그들에게 세례를 줌
- 10)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여 주시려고 11) 백인대장의 종을 고치심
- 12)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심 13) 그분은 생명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
- 14)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이십니까?”
- 15)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16) 예언자

17)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29

열 두 사도의 파견

머리말

본문은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장에서는 열 두 사도의 파견 부분만을 다루도록 한다. 이는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함 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9장 1-36절

9장: 1. 예수께서는 열 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2.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 주라고 보내시면서 3. 이렇게 분부하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지팡이나 식량자루나 빵이나 돈은 물론, 여벌 내의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5.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나라.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6. 열 두 제자는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 주었다. 7. 한편 갈릴래아의 영주 헤로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8.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들려 왔기 때문이다. 9. 그러나 헤로데는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를 한번 만나 보려고 하였다. 10. 사도들이 돌아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싸이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11. 그러나 군중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뒤쫓아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며 치료해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2.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열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니 군중을 헤쳐 제각기 근방 마을과 농촌으로 가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그러자 13.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저희에게는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들 먹일 만한 음식을 사 오라는 말씀이십니까?”하고 물었다. 14. 거기에 모인 군중은 장정만도 오천 명 가량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대충 오십 명씩 떼지어 앉히라고 하셨다. 15. 제자들이 분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히자 16.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이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 들었더니 열 두 광주리나 되었다. 18.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하고 물으셨다. 19. 그들이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미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0.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이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22.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성직자 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24.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28.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 가셨다. 29.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30.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32. 그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34.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버렸다.

35. 이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36.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교리 요점

- *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화하신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 *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은 주님께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 * 믿음은 남을 도울 능력을 준다.
- * 우리가 남을 위해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설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는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단지 태어난 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말의 요지는 자신의 악들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다. 물론 첫 대목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즉,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섭리 하에 어떤 스스로의 선택 없이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특별한 재능이나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위의 주장의 뒷부분은 진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태어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그렇게 이뤄지는 인간의 최종적인 인격은 어느 누구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가는 길에 걸림돌을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가거나 치워냄으로써 스스로를 더 강건하게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또는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원하게 되면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도와줄 능력이 있는 친구들도 우리 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출생 환경을 자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장소나 기회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장소나 기회는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봐야 백 년이 조금 넘는 아주 짧은 세월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 세월 동안 어떤 인격을 이룰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매일의 선택은 실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스스로 선택하고 이뤄낸 인격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게 될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도가 될 열 두 사람을 뽑으셨다. 열 두 명중에 네 명은 어부라는 미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 가장 가까운 세 명의 제자들 역시 어부출신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사도는 세금 수금원이라는 전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품질들을 열 두 사도들 안에서 각각 보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분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무엇이든지 행했다. 이로 인해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고 그들이 남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실 수 있었으며, 남들 속의 악함이나 악함 혹은 빼앗겨진 사상들을 보고 지적하여 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었다. 본문은 이 가르침의 일부와 사도들이 행하는데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이 사건이 주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도록 하신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른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821-2항: “열 두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합체 안에 있는 교회, 진리와 선에 관한 모든 것 또는 믿음과 선행에 속한 모든 것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믿음과 선행, 그리고 선행으로부터 행해진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 셋이 함께 있을 때는 하나를 이루어 완전한 것을 표현한다. 그들이 하나로서 말해지는 이유는 선행 없이 존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일함 없이는 선행은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국의 신비」 제 5922-5항: “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그분이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바와 같은 신성한 인간을 보여주셨는데, 이 신성한 인간은 신성한 빛 속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여 진 그분의 형체가 말씀의 내적 의미로서 우리에게 보여 지게 되는데, 천국에서의 신성한 진리 역시 이와 같다. 왜냐하면 말씀이란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의 사용을 위한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 사람에게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아가 동시에 보여 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백인대장은 주님께 무엇을 요청했는가?
- 2) 주님께서는 백인대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 4) 세례자 요한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5) 요한의 특사는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6) 주님께서는 그 특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그분은 요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이때 거기에는 몇 명의 사도들이 있었는가?
- 9)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선포했는가?
- 11)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지니지 말라고 했는가?
- 13) 그들은 어디서 머물라고 했는가?
- 14)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 15) 본문에 있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 16) 그 기적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17)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 18) 어떤 세 사도들이 주님과 가장 친근했는가?

- 19) 그 사도들은 무엇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20) 이 환상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
- 21) 우리는 이 환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 22) 열들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23) 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이 변모를 볼 수 있었는가?
- 24) 우리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이들과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2) 그는 큰 믿음을 가졌다 3) 아들을 살리심
- 4) 감옥에 들어갔다 5)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6) 너희들이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 7) 위대한 예언자 8) 열 둘 9) 마귀를 제어하고 병을 고침 10) 하느님의 나라
- 11) 온 동네에서 병을 고치고 전도함 12) 어느 여분의 것도 지니지 말라
- 13) 사람들의 집에서 14)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라 15) 오천명을 먹이심
- 16)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권능 17) 하느님의 그리스도
- 18) 베드로, 야고보, 요한 19) 주님이 희게 빛나심 20) 모세, 엘리야 21) 변모
- 22) 복합체 안의 모든 선과 진리,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애쓸 때 알고 느끼게 되는 모든 것
- 23)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
- 24) 우리를 영접하는 이들과는 자유로이 나누되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머리말

본문에서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부분까지는 몇 개의 장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 몇 장 안에는 비유, 제자들을 가르침, 기적 그리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정 상태를 폭로하시는 것 등이 들어 있다. 제 10장의 첫 부분은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잠금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 이 첫 부분을 먼저 읽고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을 명확한 빛으로 비춰 보게 될 것이다.

성서본문: 누가복음 10장 25-42절

10장: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 26.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하고 반문하셨다. 27.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28.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하고 물었다. 30.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 놓고 갔다. 31. 마침 한 성직자가 바로 그 길로 내려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2.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34.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35.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소’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36.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8.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음에 들었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 들었다. 39.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41.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42.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교리 요점

- * 주님을 예배함은 선한 삶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이다.
- *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
- * 믿음은 선한 일로 결과 되어져야 한다.
- * 각자 안에 든 선이 곧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해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는 누가복음서에만 있는 유일한 비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성서 이야기 중에서 널리 알려져 자주 인용되고 있다. 선하며 친절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지극히 단순하며 도움이 되는 교훈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거나 남용해 버리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만 있으면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 하나님조차 믿지 않더라도 선한 사람이 되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난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도와주는 편이야. 그제 나의 종교거든.”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된다. 우리는 이 말속에 자신을 찬양하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있고 자기 칭찬은 선천적인 이기심을 암시해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혹은 이웃에게 칭찬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는 본문을 읽다보면 본문의 비유가 위와 같은 내용과 전혀관계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서는 첫 단계로 율법교사로 하여금 율법속의 두 큰 계명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계신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 주님께서 이 두 계명 중 첫째가는 계명이 어느 것인가에 대해 “이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구약 성서의 율법을 습득한 사람들로서 주님을 섬김에 대한 그들의 행위적인 면은 대단히 경건했었다.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은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치 않았다. 주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에 사용하셨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멸해왔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웃을 그들의 민족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라고 불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러한 율법 교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은 각 개인 안에 든 선이 사랑하게 될 이웃은 종족, 색깔, 지위 그리고 신분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말씀을 쉽게 왜곡했음을 알고 계셨는바, 이 비유의 말씀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비유를 곡해하지 않도록 섭리해 두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언젠가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실패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마르틴은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었다.” 이런 일은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마르타의 불평에 대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진실 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주님에 관해 꾸준히 배워 가는 길에서만 우리속의 이기적인 사랑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이 자리 잡게 되어 우리를 통해 그분이 세상에 나타내지실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 주님을 사랑함이 첫째가는 큰 계명임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되새겨보기 바란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새 예루살렘과 그 교리」 제 85항: “오늘날 공통되는 견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이웃이라는 것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신중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웃의 정의나 혜택을 베풀 때 삶의 질을 잘 살펴서 그 안에 참된 선행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적으로 교회를 품은 사람은 식별력 곧 총명으로 선행을 이룬다. 그러나 외적으로만 교회를 품은 이들은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선행을 적용하게 된다.”

「진정한 기독교」 제 428항: “악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악마에게 빵을 주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악인은 빵을 독으로 바꿔 놓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마에게 빵은 곧 독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악인은 선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해서 결국에는 빵을 독이 들도록 변화시킨다. 이는 마치 누군가를 죽일는지 모르는 적에게 칼을 건네주는 격이다. 또한 늑대와 같은 심보를 가진 자에게 목자의 지팡이를 맡겨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여 결국 그가 지팡이를 손에 쥘 후 양떼를 광야로 몰고 가 다 죽이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을 약탈하는 것만 연구하고 기회를 엿보는 강도에게 공권력을 주는 경우, 그 사람은 법을 집행하고 재판할 때 부자의 죄는 가볍게 하고 뇌물을 바치는 자는 석방하는 식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사도란 무엇인가?
- 2) 주님의 사도는 몇 명이었는가?
- 3)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은 무엇을 전파했는가?
- 4) 그들은 전도 때에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도록 되었는가?
- 5) 사도들이 군중들을 먹이려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6)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 7)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가?
- 8)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사도는 누구인가?

- 9) 이 세 사람은 어떤 환상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10) 본문에서 율법교사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1) 주님께서는 이 대답을 위해 어떤 책을 참고 하셨는가?
- 12) 율법교사는 무슨 대답을 발견했는가?
- 13) 율법교사는 자신이 옳음을 드러내려고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4)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비유로 답하셨는가?
- 15) 강도당한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가?
- 16)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 하고 지나친 두 사람은 누구인가?
- 17) 누가 이 사람을 도왔는가?
- 18) 사마리아인들이란 누구인가?
- 19) 이 비유는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20) 마리아와 마르타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21) 주님께서는 누가 더 나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22) 왜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뒤에 즉시 이어지는가?

질문의 답

- 1) 파견함 2) 열 둘 3) 하느님의 나라 4) 영접하는 자들
- 5)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불러서서
- 6)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7)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 8) 베드로, 야고보, 요한 9) 변모
- 10)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1) 성경
- 12) 주님과 이웃사랑 13)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14) 선한 사마리아 사람
- 15)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16) 성직자, 레위인 17) 사마리아 사람
- 18) 아시리아 나라가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의 후손 19)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우라
- 20)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했고, 마르타는 봉사하느라 분주했다 21) 마리아
- 22)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법을 배우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1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머리말

본문에서 주님의 기도문이 언급된 앞부분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다소 친숙하지 않게 여겨지는 뒷부분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3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이다. 그 이유는 영혼의 눈을 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간직해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찾으며 그분의 안내와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인(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1장

11장: 1.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2.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6.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 놓을 것이 있어야지’하고 사정을 한다면 7.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하고 거절할 것이다. 8.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 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 주지 않겠느냐? 9.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11. 생선을 달리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12. 달걀을 달리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3.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4. 예수께서 병어리 마귀 하나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병어리는 곧 말을 하게 되었다. 군중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15. 그러나 더러는 “그는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하였으며 16. 또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싸우면 쓰러지게 마련이고 한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18.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19.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러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20.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21.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22.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23.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 들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24.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쉼터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하면서 25.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26.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데리고 들어 가 자리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2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하고 외치자 28.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하고 대답하셨다. 29. 군중이 계속 모여 들고 있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도 악할까!” 하고 탄식하시며 “이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 줄 것이 없다. 30.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사건이 기적이 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도 기적의 표가 될 것이다. 31. 심판 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 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32. 심판 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33. “등불을 켜서 숨겨 두거나 뒷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방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34.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네 눈이 병들었으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35.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라. 36. 너의 온 몸이 어두운 데가 하나 없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을 너에게 비출 때와 같이 너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

37.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어느 바리사이파 사람의 저녁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 38. 그런데 예수께서 손씻는 의식을 치르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깜짝 놀랐다. 39.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속에는 착취와 사악이 가득 차 있다. 40.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신 것을 모르느냐? 41. 그릇 속에 담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42.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그 밖의 모든 채소는 십분의 일을 바치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십분의 일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 안 되지만 이것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43.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즐겨 찾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44.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닌다.” 45. 이 때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그런 말씀은 저희에게도 모욕이 됩니다”하고 투덜거렸다. 46.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 율법교사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워 놓고 자기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다. 47.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48.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행을 두둔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이다. 49.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가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고 하셨던 것이다. 50. 그러므로 이 세대는 창세 이래 모든 예언자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1.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살해된 즈가리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52. 너희 율법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 버렸고 자기도 들어 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53. 예수께서 그 집을 나오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몹시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54. 예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그분 안에 신성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 * 주님께서는 구약 성서를 꾸준히 인용하셨다.
- *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오게 된다.
- * 가장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마음이다.

해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과 자기희생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봉사에 대한 많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또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며,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야말로 부드럽고 친절하시며 사랑과 용서만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저주하신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습득한 자들로서 당시 유대인의 종교를 대표했었다. 그들의 마음은 거만하고 이기적이어서 길바닥같이 딱딱했고, 그들은 오로지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받들어 주기만을 원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죄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라고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걱정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스웨덴본에 따르면 성령이란 우리의 영혼을 계발시켜 주며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보여주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말한다고 한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다는 것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을 진실로 영접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위했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도 주님의 권능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의 권능이 악마의 두목인 “베엘제불”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했지만 진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서 용서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길을 고집하는 이들은 주님의 용서하시는 영이 자신들의 심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거나 진리를 들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을 순수하게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되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을 순종하며 믿었던 제자들에게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위선자들은 주님을 등지고 그들의 마음과 이해성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그래서 결국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이 한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선한 자가 되려면 주님의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로서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을 늘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서 이웃들로부터 인정 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도록 해주는 선행 그 자체로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함이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우리들 속에 있게 될 때 진정한 선함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2000여 년 전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의 육성만큼 생생하게 지금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계심을 느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에 속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794-3항: “인간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두 가지 마음을 지닌다. 우리는 영적 마음을 내적 인간 또는 영적 인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연적인 마음을 외적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인간은 내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지니고, 외적으로는 자연적인 것을 지니게 된다. 내적인 인간은 천국과 결합되어 있고 외적인 인간은 세상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 인간을 통하되 내적 인간으로부터 행동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행해진다. 즉,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있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내적인 것 없이 외적 인간만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자아로부터 행동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11:39-41)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이다. 즉, ‘잔과 접시의 껍질’과 ‘잔과 접시의 안’이다. ‘잔’은 ‘포도주’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접시’는 ‘음식’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포도주’는 진리를 의미하고, ‘음식 혹은 양식’은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선 행위’는 사랑과 선행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기도문을 형태상으로 볼 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 2) 율법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 3) 바리사이파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율법학자들은 무슨 책을 공부했는가?
- 5) 위의 두 계층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고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6) 주님께서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주님께서서는 어떤 징조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가?
- 8) 본문에서는 구약성서의 어떤 두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가?
- 9) 주님께서서는 등불을 어떻게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위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12) 눈이 병들었다 함은 무슨 뜻인가?
- 13) 주님께서는 무슨 과오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셨는가?
- 14) 위선이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은 어떤 것들인가?
- 16) 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는가?

질문의 답

- 1) 제 2반 참조 2) 성경을 베끼는 사람 3)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계층
- 4) 성경 5) 악마 6) 갈라져서 싸워 망하는 집안 7) 요나의 기적
- 8) 요나, 세바 여왕 9) 등경 위에 10) 등불을 켜서 감추어둔 자는 어리석다
- 11) 깨끗함, 순수함 12) 악으로 인해 보지 못함 13) 위선 14) 선한 체 함
- 15) 사람들이 보는데서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며, 경건한 체 행동하고 타인을 판단함
- 16) 주님의 현존과 가르침이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했기 때문

32 큰 잔치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바리사이파인들에 대해서와 주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지녔던 이유를 상기해본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율법학자도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4장

14장: 1.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 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2. 그 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 예수께서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하고 물으셨다. 4.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5.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하여 당장 구해내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6.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7.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8. “누가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나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리게’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안하게도 맨 끝자리에 내려앉아야 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 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사는 이웃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베풀어 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13.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14.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15. 같이 앉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하고 말하자 16.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17.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전하였다. 18.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 봐야 하겠소. 미안하오’하였고 19. 둘째 사람은 ‘나는 거룻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러 가는 길ियो. 미안하오’하였으며 20.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하고 말하였다. 21. 심부름 갔던 종이 돌아 와서 주님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집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그 종더러 ‘어서 동네로 가서 한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22. 얼마 뒤에 종이 돌아 와서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하고 말하니

23. 주인은 다시 종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24.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25.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 서서 말씀하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큼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29.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30. ‘저 사람은 집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하고 비웃을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갈 때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32.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33.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34.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35.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교리 요점

- * 주님께서는 그분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도록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계신다.
- *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그것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의문점을 갖게 된다.
- * 신실하지 않은 믿음은 신실하지 않은 친구와의 관계와 같다.
- * 변명은 우리가 가진 애착의 진정한 본성을 노출 시켜준다.

해설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비유를 보게 된다. 이 비유는 특별히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이파인들을 향한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도덕적인 주제를 담고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 이유는 그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며 기억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때때로 이야기들을 기억에서 끄집어내어 되새기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도덕적인 문제를 생각하기도 한다. 어른들이 이런저런 도덕적인 문제를 직접 가르쳤다면, 어린이들은 아마 귀를 막아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종종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이며, 성경상의 수많은 내용이 이야기의 형태를 띄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린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어린이들이 복잡하고 힘든 주제를 듣기 싫어하듯이 그분의 교훈에 귀를 틀어막기 때문이다. 우리가 귀를 틀어막는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의 과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비유로 읽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제 삼자의 이야기로 들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귀를 틀어막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그 이야기속의 사람같이 여겨지는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야기에 담긴 교훈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틀 안에 살면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의 친구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비유에서 큰 잔치를 준비한 어떤 사람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식탁에 초대받은 처음의 사람들이 곧 우리들이며 그분의 초대를 수락한 사람이 우리임을 알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양식을 허락하고 계심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양식 외에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도 제공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육체를 이 세상에 버리고 떠날 때가 언젠가 오며 우리의 영혼이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취하게 되는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장차 건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추하고 비뚤어진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 준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잔치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게 되는 바, 그분의 집인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 우리는 모두 비유속의 사람들처럼 주님께 평계를 대기도 한다. 즉, 엄밀히 보면 하찮은 존재인데 세상적인 지위와 돈 그리고 야망에 분주해 자신의 신앙을 위한 잔치에 참여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변명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가 뜻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로서, 자신의 죄와 무지함과 약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자신의 허기진 곳을 채우기 위해 주님의 잔치에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아성찰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최소한 이들보다도 더 성한 사람이야”하고 자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부하게 되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252항: “만찬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기쁨의 교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교회와 천국을 ‘만찬’ 또는 ‘결혼’에 비유하고 계신데, 누가복음(14:16-24)에서는 잔치에 비유하고 계신다(마태복음 22:1-15에서의 혼인잔치도 이와 비슷한 의미임). 여기에서의 ‘잔치’도 천국과 교회를 의미한다. ‘핑계를 댄 사람들’이란 교회가 있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 또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진 곳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란 영적으로 그와 같은 이들이고, 교회밖에 있는 이들도. 천국과 교회는 ‘만찬’과 ‘결혼’에 비길 수 있다. 그 이유는 천국은 사랑에 의해 주님과 천사가 결합되고 천사와 천사들은 선행 로 연합되어 모든 기쁨과 더없는 행복의 교류가 온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교회인 바, 이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주님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왜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놓으셨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과오를 보셨는가?
- 4)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비유를 주셨는가?
- 5) 그분의 잔치에 처음 초대된 부류의 사람은 누구인가?
- 6) 이들이 참석 못 한 세 가지 핑계는 무엇인가?
- 7) 이들 속에 어떤 과오가 있음을 보여주는가?
- 8) 그분의 잔치를 즐기도록 발견된 사람은 어떤 이들인가?

- 9) 비유속의 잔치 주인은 누구인가?
- 10)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잔치에 초대하시는가?
- 11) 주님의 집은 어디인가?
- 12) 핑계를 댄 친구들은 누구인가?
- 13) 그분의 초대에 응한 가난한 자란 누구인가?
- 14)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다함은 무엇을 표현인가?
- 15) 세 가지 핑계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도우시기 위해
- 2) 아주 종교적이라고 하는 계층 3)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길 원했다
- 4) 큰 잔치 5) 친구들 6) 밭을 사서, 황소를 부려보려고, 결혼해서
- 7) 이기적이어서 무부분별함 8)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 9) 주님 10)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함유하는 그분의 말씀
- 11) 교회 12)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두
- 13) 겸손이 있는 마음 14) 주님의 선함과 진리로 우리 영혼을 먹이심
- 15) 밭: 지적인 자랑(마음)
황소: 우리 마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음
야내: 이기적인 방법(행동)에 “결혼됨”

방탕한 아들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큰잔치에 뒤따르는 비유이므로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5장

15장: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2.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 누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흔 아홉 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5.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돌아 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하며 좋아할 것이다. 7.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8.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열 닢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닢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 볼 것이다. 9.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0.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1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 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14.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15.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 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7.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18. 어서 아버지께 돌아 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20.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 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25.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26.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물었다. 27.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 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 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29.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30.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 버린 동생이 돌아오니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 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31.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32.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 않겠느냐?’하고 말하였다.”

교리 요점

- *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 * 말씀속의 진리는 영적인 부유함이다.
- * 진리를 잃게 될 때 믿음도 잃게 된다.
- *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의 용서역시 우리에게 도달될 수 없다.

해설

본문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다. 바리사이파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신 것을 흠으로 잡아 그분을 비판했다. 세리들이란 로마제국에 바칠 세금을 거뒀던 유대인들을 일컫는다. 그래서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들을 경멸했다.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몸이 성한 이를 위해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신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그분의 적들에게 대답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똑같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다. 우리 각 개인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한다. 양 백 마리란 우리의 어린 시절에 담겨진 순진함과 신뢰심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자연적 이기심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서게 되면, 어린 시절의 천국적인 마음의 상태들은 하나씩 우리 속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어 자칫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부에서 아주 떨어진 위치로 밀려나가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또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은전 열 닢”을 획득한다. “은전 열 닢”이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들인데, 특별히 요약해서 말하면 십계명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계명 중의 어느 하나가 자신이 기어이 해보고 싶은 일을 금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일을 방해할 것 같은 계명 중의 하나를 우리 이해성의 중심부에서 슬그머니 뒤편으로 밀쳐내어 감춰 버린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추론이라는 먼지 낀 이론으로 은전 한 닢을 덮어놓음으로 우리 속에서 빛나는 “은전”들 중의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성장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신 재능이나 자질들을 점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에 쓰고자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 그분의 품에서 멀리 떠나가서 자신의 고집대로, 즉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때로 본문의 작은아들의 처지 같이 낮고 천한 위치로까지 전락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바람만을 위해 전전공공하는 삶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런 바람이 “돼지”로 상징되며, 돼지가 먹는 찌꺼기 또는 쥐엄나무 열매란 육체적 바람만으로 이어지는 삶을 즐기느라 고심하는 생각들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실제로 결별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세상 삶에 허덕거린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 놓아주시는 그분에 관한 것들은 비록 한쪽으로 밀려나 우리로서는 찾기 힘들고 아예 없어진 듯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 속 깊고 깊은 곳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늘 현존하시면서 우리의 처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방탕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먼 고향으로 떠나갔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 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방법으로 뛰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신 착란이라고 할 수도 있는 큰 계산 착오에 해당된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란 우리가 이러한 계산착오를 절실히 실감하는 때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대목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방탕한 아들은 돼지 떼들 사이에 주저앉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자신을 돌봐 줄 아버지에게로 갈 것을 소원했다.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그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어서 길고 먼 길을 되돌아가야 했지만, 그것을 과감히 선택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를 섬기는 종의 신분이었다. 우리는 때로 이 부분을 이 이야기에서 쉽게 간과해 버린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께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 그리고 이기적인 느낌들을 바꾸어서 하느님의 아이들 같이 처신하는 마음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279-6항: “‘방탕한 아들’이란 영적인 부를 낭비한 이들, 즉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낭비한 이들을 의미한다.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고백’은 심정의 참회요 겸손함을 의미한다. ‘그가 입었던 처음 의복’이란 일반적이고 제일가는 진리들이고, ‘손에 낀 가락지’란 내적 또는 영적 인간 속에서의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한다. ‘발에 신은 신발’이란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 속에 든 선과 진리이다. 그래서 위의 두 가지는 거듭남을 의미하게 된다. ‘살찐 송아지’란 사랑과 선행으로부터 나오는 선을 의미하고, ‘먹고 즐긴다’함은 연합과 그에 따른 천국적인 기쁨을 의미한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천국의 교리」 제 159-161항: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하고 회개의 일을 행해야 한다. 죄를 고백함이란 악이 무엇인지 알고 자아 안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자신 안에 있음으로 하여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로 인해 자아를 질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이 된다. 회개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들을 고백한 후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심정으로부터 자기 죄의 경감을 간곡히 탄원하고 선행과 믿음의 교훈에 의거하여 새 삶을 영위 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큰잔치의 비유는 누구를 두고 말해졌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들의 어떤 과오를 지적하셨는가?
- 4) 위 비유 속에서 어떤 손님이 처음 초대받았는가?
- 5) 그들은 어떤 핑계를 대었는가?
- 6) 이 핑계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7) 잔치 음식을 즐긴 손님들은 누구인가?
- 8)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 9) 이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11) 이 비유들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 12) 첫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3) 둘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4) 셋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5) 방탕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6) 작은아들은 무엇을 낭비했는가?
- 17)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8)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결국 그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 20) 그의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받아 주었는가?

- 21) 큰아들은 이를 어떻게 느꼈는가?
- 22)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23)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은 무엇을 그리는가?
- 24) 방탕한 아들이 낭비한 상속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 25)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 되돌아감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2) 엄격하게 종교생활을 한다는 계층 3) 자기 자랑 4) 친구들
- 5) 밭을 사서, 황소를 부려 보려고, 아내를 얻어서 6) 이기적인 무분별
- 7)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8) 세리, 죄인 9) 주님께 불평했다
- 10) 3 11) 뭔가를 잃고 찾음 12) 양 13) 은전 14) 아들 15) 낭비함
- 16) 돈 17) 먼 고장 18) 가난해지고 굶주림 19)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섬기겠다
- 20) 기쁨으로 21) 시기했다 22)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 23) 잃은 애착, 잃은 생각 24) 모든 우리의 능력
- 25) 자아를 겸손하게 하고, 길을 바꿔서 다시 노력함

34

부정한 청지기

머리말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모두 중요하다. 첫 번째 비유에서 많은 이들에게 의문시되는 점이 자주 돌출되므로 이를 설명하는데 더욱 주력하게 될지 모르나, 두 가지 비유 모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교훈으로 귀결된다. 이 구절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므로, 성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성서 본문: 누가복음 16장

16장: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2.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했다. ‘자네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짓인가? 이제는 자네를 내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3.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4.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를 자기 집에 맞아 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5.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하고 물었다. 6. ‘기름 백 말시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오십 말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7.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밀 백 섬시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팔십 섬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8.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다.”

9.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 갈 것이다. 10.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11.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뭇을 내어 주겠느냐?”

13.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15.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체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느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6.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이후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17.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20.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어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21.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22.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23.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24.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하고 애원하자 25.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 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26.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27.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29.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였다. 30.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 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하고 호소하였다.
 31.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지만 그것을 허용하신다.
- *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말씀속의 법칙은 반드시 성취된다.
- * 주님께의 충실함은 저절로 이웃에의 충실함으로 표현된다.
- * 마음속의 선행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발달되어야 한다.

해설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들은 결론으로서 13절의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교훈을 설명한다. 재물(mammon, 탐욕)이란 단어는 아람어로부터 유래된 것인데, “부”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성경 상에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는데, 모든 것이란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목적으로 원하는 세상에서의 지위, 권력, 학식 또는 돈 등등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 물질적 소유, 가정에서의 위치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는 이유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누려서 지상에 주님의 왕국이 발전되어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들 모두는 주님의 “청지기들”이며, 우리들이 지니는 다양각색의 능력과 소유물들은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선한 행위를 빚지고 있는 “종”들에 해당된다. 이 사랑과 선한 행위가 기름 백말과 밀 백 섬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자신이 언제나 충실한 청지기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흔히 주님 대신 자아를 섬기도록 자신의 종인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이나 능력들을 모두 써 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부족했던 점들을 다시 정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과거 주님께 빚진 것을 다 청산해 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비유에서의 청지기는 자신의 과거사가 들통 나자 미래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을 헤아려 본다. 즉, 땅을 파는 일과 빌어먹는 일 그리고 주인의 종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권한으로 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땅을 판다는 것은 자기 속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자신안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선함을 발견하려고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들이 스스로가 천성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지님을 말한다. 빌어먹는다는 것은 주님께 용서 해달라고 요청하나 자신의 삶을 바꾸어 보려는 일말의 노력 없이 용서를 비는 염치없는 모습을 의미한다. 청지기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주인은 그가 슬기롭게 행동했다고 말하면서 칭찬해 주었다. 이 비유는 표면적으로 볼때 그가 취한 행동인 세 번째 길 역시 부정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이기적이며 나쁜 것들은 덮어두고 지금부터라도 충실히 살아가면서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붙잡아 보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혹은 이타적인 용도로 주님께서 주신 세상적인 선물들을 모두 사용할 때, 우리는 세속의 재물일지언정 자기편(친구)이 되게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슬기로운 선택을 한 세속의 청지기에 대한 이 이야기를 “빛의 자녀”들, 즉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빛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표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후 주님께서는 바리새이파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주신다. 그 이유는 이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나쁜 짓을 행한 적이 있음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타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며 슬기롭다고 자처함으로써 그들의 속은 더욱 냉정해지고 스스로를 뽐내어 남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 산상설교의 팔복 중의 첫 번째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와 성경 상에서 부유한 자는 저주되고 가난한 자는 칭찬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부유한 자란 자신이 위대하며 똑똑하다고 여겨서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가난한 자는 자신이 낮고 천하며 미련하다고 여기는 겸손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부자와 라자로에 관한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느님과 재물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과종기”에 해당되는 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선택을 자유의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발달되게 될 우리 영혼의 형태와 본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사후에 자신의 통치하는 사랑 곧 자신이 가장 중심으로 삼은 돈이나 권력 쟁취 혹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등 자신의 중심원리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다. 저 세상에서 부자와 라자로 사이에 놓여 있는 큰 구렁텅이는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과 놓은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필요한 모든 진리를 말씀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어떤 기적이나 환상을 보면 하느님과 천국을 믿겠다고 공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언은

진실이 아니다. 믿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이런저런 기적이나 환상을 보게 되면 그것을 조소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계신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하느님의 섭리」 제 250-5항: “‘불의의 재물’이란 영적의미로 악에 의해 소유당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악한 자는 이 지식을 단지 자신들의 위엄과 부를 얻는데 사용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식들에서 나오는 선함 또는 ‘빛의 자녀들’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이것들은 영원한 성막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들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부정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주셨는가?
- 2) 청지기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 3) 그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 4) 그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가?
- 5) 그는 무엇이 창피한 노릇이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가?
- 7) 그의 주인은 그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9)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재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바리사이파인들은 이 비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2) 주님께서는 어떤 다른 비유를 바리사이파인들에게 주셨는가?
- 13)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는가?
- 14)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 15)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16)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가?
- 17) 그러자 부자는 무엇을 부탁했는가?
- 18) 아브라함은 그에 대하여 뭐라고 했는가?
- 19)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 20)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 21)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22) 글자 상에서 부정직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과정이 어떻게 슬기롭다고 말해질 수 있는가?
- 23) 둘째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제자들 2)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3) 자기 직책을 잃음
- 4) 땅을 파는 일 5) 빌어먹는 일
- 6) 작접 채무자들의 빛을 탕감해 주는 일 7) 그를 칭찬했다
- 8)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남은여생 동안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 9) 그렇게 할 수 없다 10) 부유함, 이기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
- 11) 주님을 비웃었다 12) 부자와 라자로 13) 아브라함의 품(천국) 14) 지옥
- 15) 라자로로 물 한 방울을 찍어 보내달라
- 16)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못 간다
- 17)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 해 달라 18)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있다
- 19)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낸다면... 20)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 21)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게 될 자신의 존재를 결정지어야 한다
- 22) 스스로가 원래 선하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이며 자비에만 의지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 23) 부자 - 영적인 것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자
 거지 -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며 의에 굶주려 있다고 인정하는 자

35

종려 주일 (3)

머리말

자캐오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공과 자료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다. 하여, 모든 밤이 이 사건에 시간을 할애해준다. 주님을 왕으로 받기 위한 준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통치하시기 위해 들어오시면 즉시 거행되는 작업이 성전을 깨끗이 함임에 주목한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9장

19장: 1.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2. 거기에 자캐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3.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 볼 수가 없었다. 4.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5. 예수께서 그 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캐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하고 말씀하셨다. 6. 자캐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 가 묵는구나!”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8. 그러자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숙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네 감절은 갚아 주겠습니까”하고 말씀드렸다. 9. 예수께서 자캐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 주셨다. 12.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13. 그래서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러 금화 한 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 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 보아라'하고 일렀다. 14.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따라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15.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 동안에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 보았다. 16.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열 개로 늘렸습니다'하고 말하자 17. 주인은 '잘 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하며 칭찬하였다. 18.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다섯을 벌었습니다'하고 말하자 19. 주인은 '너에게는 다섯 고을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20.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 두었습니다.

21.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몫쓸 종아, 나는 바로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말이야? 23.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꾸어 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 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하며 호통을 친 다음 24.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앗아 금화 열 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하고 일렀다. 25.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열 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말하자 26.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하고 말하였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29.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벧파게와 베다니가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앞질러 보내시며 30.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 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 오너라. 31.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대답하여라." 32. 그들이 가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33. 그래서 나귀를 풀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귀를 풀어 가요?"하고 물었다. 34.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35.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자기들의 걸옷을 엮고 예수를 그 위에 모셨다. 36.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은 걸옷을 벗어 길에 퍼 놓았다. 37.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며,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39. 그러자 군중 속에 끼어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하고 말하였다. 40. 그러자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42. 탄탄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43. 이제 네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 와 44.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성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상인들을 쫓아 내시며 45.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47.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성직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48.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교리 요점

- * 왕으로서의 주님이란 우리 삶을 통치하는 신성한 진리이다. 자연적 이성을 완전히 다스린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 * 말씀속의 아주 짧은 이야기에도 우리가 영원히 공부해야 할 의미가 담겨져 있다.
- *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길 원해야 한다. 겸손은 선행의 기초이다.

해설

우리가 부활주일 앞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이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날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는 왕이나 관관이 나귀를 타던 관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대적인 환영이 있었던 날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의 간격이 불과 며칠밖에 안 됨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던 것일까? 고대 유대인들은 구약성서의 모든 예언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어서 조만간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은 자”가 왕으로 오셔서 주위의 모든 적을 무찌르고 지상에서 그들의 국가를 영원히 드높여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을 견지하고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세주에 대한 것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치 않으며 무시하기까지 했다. 위의 말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의 추론을 지휘하도록 자신이 선호하는 것만을 내세우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심사임을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성경 상에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 곳곳에서 발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왕으로 환영했던 군중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의 많은 적들, 특히 로마제국을 무너트려주실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분의 목적이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분을 제거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이용되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주셔서 준비를 갖추도록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지를 않았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의 계획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이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만약 주님께서 죽음을 거치지 않으셨거나 그와 같은 큰 변화가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됨을 입증해 주실 수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해야 할 사항인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도 가르쳐 주실 수 없었을 것이다.

본문은 자캐오처럼 자신속의 약함과 죄를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과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의 썩은 마음같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완악한 마음의 차이점을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 처하게 한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군중들을 미워하기 보다는 백성들이 실제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 그들 자신이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들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행복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인 이타적인 삶을 선택했다더라면, 그들 모두 구원받았을 것이다.

기독교인은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의 일주일을 “성주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주간동안 어린이들에게 누가복음 20-23장 사이에 있는 주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고 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사이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의 차이점을 찾으며 자신의 마음과 이해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본문의 자캐오같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과오를 정정하려고 결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5480항: “울음이 슬픔과 사랑의 표현임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울음은 자비나 동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비는 사랑이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사랑은 자비라고 불리는데, 이는 인간이 그 자체로만 보면 지옥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런 사실을 지각하면 자비를 애원하게 된다. 울음이 내적 의미에서 자비인 고로,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림’은 때때로 여호와 또는 주님께 연관되어 서술된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음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대해 동정하시고 통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에 대해서, 즉 교회 안에 선행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내적 의미에서 어떤 믿음도 없게 됨을 슬퍼하시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본과는 무슨 날에 관한 것인가? 왜 그렇게 불러 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께서서는 어디로 가시는 중이셨는가?
- 3) 본문 처음 부분에서 주님께서서는 어디를 통과하고 계셨는가?
- 4) 본문에서의 주님의 길 방향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어떤 사람의 길 방향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5) 자캐오의 직업은 무엇인가?
- 6) 왜 자캐오는 주님을 볼 수 없었는가?
- 7) 그는 주님을 보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짜냈는가?

- 8)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그는 자신의 인격이 어떠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가?
- 10)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바리사이파인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 12)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3) 주님께서 말씀해준 비유는 무엇인가?
- 14) 이 비유의 줄거리는 무엇인가?
- 1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16)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17)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8) 이 새끼 나귀는 누가 타 본 적이 있는가?
- 19)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나귀 위에 타실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는가?
- 20) 군중들은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길에 무엇을 했는가?
- 21) 그들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22) 바리사이파인들이 불평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3) 예루살렘을 보신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으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4) 주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셨는가?
- 25)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시자 무엇을 하셨는가?
- 26)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엇을 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다(요한복음 12:13)
- 2) 예루살렘
- 3) 예리고
- 4) 길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 5) 세관원
- 6) 키가 작아서
- 7) 돌무화과나무에 기어올랐다
- 8) “어서 내려오너라...”
- 9)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 10)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
- 11) 불평했다
- 12) 비유
- 13) 금화
- 14) 열 종에게, 금화 한 개씩을...
- 15)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능한 한 선용하라
- 16)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
- 17)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 18) 그렇지 않다

- 19) 나귀위에 겹옷을 깔았다 20) 나무가지들을 던졌다
 21)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며 찬미 받으소서... 22) 돌들이 소리치리라
 23)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24) 예루살렘의 파멸
 25) 성전을 깨끗케 하심 26) 기도하는 집

36

부활절(3)

머리말

성주간의 사건을 주로 살펴보고, 부활의 의미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12

24장: 1.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2. 그들이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나 있었다. 3.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 가 보았으나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4. 그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5. 여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7.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 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말해 주었다. 8.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9.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열 한 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 주었다. 10.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안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11.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러니 하고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수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 * “돌이 굴러졌음”이란 말씀의 글자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내적 의미를 위해서 주님께 의해 영감 된 글자임을 의미하고 있다.
- * 진정한 믿음은 열심히 이해하려는데 있게 된다.
- * 영화하신 그리스도를 뵈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지는 것이다.

해설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부활(Easter)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스터(Easter)라는 단어는 튜톤족의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부활절이 항상 봄에 있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과일절 뒤에 있었고, 이 과일절은 춘분점 가까이로 봄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달력에서 부활절의 날짜가 매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사실 주님의 부활이 봄의 시작과 더불어 있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의 봄이 시작되는 것과는 의미상으로 일치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봄이란 겨울의 동면에서 깨어나 새싹들이 지면에서 솟아오며 새들이 창가로 돌아와 우리를 깨워주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봄의 모습처럼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희망과 삶을 세상에 가져다주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도들은 완전히 용기를 잃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죽음에 놓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임을 말씀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잊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우리는 어떤 역경을 통과하는 경험을 갖기 전 사도들이 아주 쉽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잊어버렸음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역경을 만나고 통과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역경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 “빛나는 쪽을 쳐다보는 것”, 즉 그 역경

속에서 어떤 희망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사도들은 모두 과거의 자신의 직업으로 되돌아갔고, 함께 앉아 탄식하며 무엇을 할까 염려만 했던 것이다.

남자들보다 더 희망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주님을 사랑해 온 여인들은 비록 그분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들은 매장된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일 아침 일찍 주님의 무덤으로 향료를 가져갔다.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굴러져 있음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닌 여인들이었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도 이 여인들이었다.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슬픔이 우리의 가정에 닥칠 때 슬퍼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거나 혹은 신성한 섭리에 의문을 제시하기보다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유용한 것을 발견하고자 새로운 삶과 희망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뵈게 되었을 때 공포와 의심을 떨치고 밖으로 뛰쳐나가 세상에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하여 기독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경이로운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그중 첫째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죽음은 삶의 지극히 정상적인 단계로서, 연극의 제 일 막에서 제 이 막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하나의 단계에 해당될 뿐이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삶에서 잠드는 것이며, 더 밝고 아름다운 저 세상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인생향로에 대한 사항을 배우고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셔서 인도하시고 지원해 주시며,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삶과 행복을 준비해 주신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400-14항: “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와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 냈을 때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마태복음 27:51, 28:1-2). 지진들은 교회의 상태가 바뀌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체마니에서와 십자가상에서 견디신 그분의 마지막 시험을 통해 지옥을 정복하셨고 지옥과 천국의 모든 것을 질서 안에 놓으셨으

며, 그분의 인성을 신성화 하셨다. 즉,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진이 있었고 바위가 갈라진 것이다.’ ‘바로 그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신성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휘장 안쪽에는 궤가 놓여 있었고, 그 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 있었다. 이 ‘증거판’은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을 의미한다. ‘휘장’이란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있었던 교회의 외적인 것을 의미하고, 유대인들 자신의 빛에 의해서는 말씀 또는 주님이나 신성한 진리를 볼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을 가림을 의미하고 있다.”

「천국의 신비」 제 4748-2항: “고대인들이 몰약이나 향을 거룩한 예식에 사용한 이유는 냄새가 지각에 상응했기 때문이다. 향긋한 냄새와 여러 종류의 향료(양념)들은 인간의 지각을 쾌적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즉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속한 것 혹은 선행으로부터의 믿음에 속한 것과 상응된다. 저 세상 삶 속에서 주님에 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될 때마다 지각 자체는 냄새로 변화된다. 넓은 의미에서 여러 종류의 향료는 자연성 속에 든 내적 진리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것은 그 안에 든 선으로부터 존재한다. 그 이유는 진리가 스스로 자연성을 만들지 못하고 선이 진리를 수단으로 그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자연의 다양함은 선과 결합되는 진리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그 이유는 선은 진리로부터 선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는 예리고를 지나시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셨는가?
- 2) 자캐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 3) 왜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서 자캐오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반대했는가?
- 4)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 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6)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 7) 왜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 8) 군중은 그분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 10) 주님께서는 성에 들어가신 후 무엇을 하셨는가?
- 11) 주님께서는 성주간동안 어디서 묵으셨는가?

- 12) 주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셨는가?
- 13) 그분이 새로 제정한 기구는 무엇인가?
- 14)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15) 주님께서는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 16) 어느 요일에 십자가형이 거행되었는가?
- 17) 주님의 시신은 어디로 모셔졌는가?
- 18) 누가 일요일 아침 무덤에 왔는가?
- 19)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 20)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21)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22)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었는가?
- 23) 사도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24)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 25)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질문의 답

- 1) 자캐오 2) 누가복음 19장 참조 3) 그가 미움 받는 세관원이어서 4) 금화의 비유 5)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최선을 다하라 6) 나귀 7) 왕이나 판관이 나귀를 탔기 때문 8) 왕으로서 9)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깔았기 때문 10) 성전을 깨끗케 하심 11) 베다니아 12) 과일절 음식을 드심 13) 성만찬 14) 가리옷 유다 15) 십자가형 16) 금요일 17) 새 돌무덤에 18) 여인들 19) 향료 20)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졌다 21) 그분은 일어나셨다 22) 그분이 삼일만에 일어나신다고 한 말씀 23) 믿지 않았다 24)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다. 25) 주님께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37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머리말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과 부활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본과를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3-53

24장: 13. 바로 그 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14. 이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 가서 나란히 걸어 가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리고 글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께서 “무슨 일이나?”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고,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대성직자 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헌에게 넘겨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는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 가보았더니 23.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 계시다고 알려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25. 그 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26.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 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29.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가십시오”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 가셨다. 30.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32.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워 졌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33. 그들은 곧 그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 갔다. 가 보았더니 거기에 열 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34.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35.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6.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은 품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나다! 자, 만져 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40.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하시고 45.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며 46.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47.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 된다고 하였다.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9.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하고 말씀하셨다. 50.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야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51.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 가셨다. 52.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 53.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교리 요약

- * 새 예루살렘에 관한 천국의 교리가 모든 인류를 위해 말씀을 열어 보이도록 한다.
- *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다.
- * 말씀을 믿고 공부해야만이 천국적인 교리를 받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해설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이 일어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보았다고 누가복음은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분을 따랐던 남자 제자들은 그들 속에 있는 빼앗긴 희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분을 즉시 볼 수 없었다.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분의 현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가를 전해주고 있다.

우리 모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아주 흡사하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주님에 관해 예언된 것을 알고 있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일어나는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어서 과거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인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두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에게 두 가지 경이로운 것을 해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즉 말씀을 열어 주셨던 것이다. 오늘날 성경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을 성경에서 끌어내어 주장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렇게 된 까닭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말씀이 열려야 한다고 하신 본문의 가르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이 주님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의 역사나 다른 외적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등한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글자적인 의미 안에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것을 결코 알지 못하게 된다. 그 이유는 성서의 글자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는 모순된 것으로 가득함을 부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서로 상반되는 서술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을 소홀히

다루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하며, 심지어 부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울은 성경이 갖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한 사람으로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문자는 죽이고, 성령은 생명을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비유를 공부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비유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도 알고 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치시는 바는 구약성서가 그분 자신에 관한 깊은 의미를 가진 일종의 비유라는 것이다.

부활 후 그분의 나타나심과 부활 40일 후 베다니아에서 거행된 그분의 승천은 사도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가르쳐 주었다. 즉, 사도들이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그분께서 언제나 그들 가까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진정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밖으로 나가 기독교회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5620-14항: “부활 후 제자들과 잡수신 ‘구운 생선과 벌집’은 말씀의 외적 의미를 뜻한다(‘물고기’는 말씀의 진리적 측면에 관한 것이고, ‘벌집’은 말씀의 진리가 주는 기쁨에 관한 것이다). 이 음식은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제자들이 생선과 벌집을 갖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음식도 섭리속의 한 부분이다. 이 음식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 즉 미미한 글자에까지도 그분의 섭리가 닿고 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이 말씀 속에 적혀 있다고 하셨다. 더욱이 구약성서의 글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주님께 관해 기록된 사항이 극히 적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께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첫 부활주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주님의 부활을 처음 배운 이는 누구였는가?

- 3)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4)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가?
- 5) 누가 그들에게 와서 함께 걸었는가?
- 6) 왜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 7)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주님께 말했다고 할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9) 그들과 주님이 함께 식사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주님께서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 11) 이 사건을 사도들에게 말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이때 사도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3)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확증시켜 주셨는가?
- 14) 그분은 무엇을 잡수셨는가?
- 15) 그 다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16)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7)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18) 승천은 어디서 거행되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헤어지셨는가?
- 20) “빵을 떼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 주셨던 말씀속의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22) 주님의 부활후의 몸은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입은 것과 어떻게 다른가?

질문의 답

- 1)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음 2) 여인들 3) 헛소리로 4)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
- 5) 예수님 6) 그들 눈이 가리워져서 7) 본문 25절 8) 성경에 있는 그분 자신에 관한 것
- 9)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자 그분은 사라지셨다 10) 심정이 뜨거워졌다 11)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 12)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함 13)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도 드심 14) 생선과 꿀 15) 성경의 내적 의미
- 16) 능력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17)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

하늘로 올라가심 19) 베다니아 20) 사랑을 나눔 21) 천국의 교리 22) 신성화 하신, 신성한
실체 (glorified, divine substantial)

38

네 기수들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계시록 1-5장까지의 간략한 줄거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네 생물과 봉인된 책 그리고 어린 양을 공부의 중심으로 삼는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6장

6장: 1. 나는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리 같은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 그리고 보니 흰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 썼고, 또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3.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다른 말 한 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곧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5. 어린 양이 세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세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검은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6.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네 생물 한 가운데서 들려 오는 듯했습니다. 7. 어린 양이 네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네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8. 그리고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을 지배하는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9.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아래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대왕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1. 또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다 죽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12.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빛으로 변하였습니다. 13. 그리고 별들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나무의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고 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산이나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5. 그러자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성들과 부자들과 세력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어서 16.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옥좌에 앉으신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 다오.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면하게 해 다오.

17.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닥쳐왔다.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교리 요약

- * 말씀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
- * 예언적 말씀의 결과들은 사람의 마음과 이해성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 교리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설

A.D. 90년경, 계시록이 쓰인 이래 기독교는 이 책을 해석하느라 매우 분주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신약 성서의 예언적 부분일 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의 예언적 부분들과 닮지 않아서 1-3장까지를

제외하면 요한 자신의 시대적인 사건과 연계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야말로 장차 올 일들을 예언하고 있음이 명확한 것이다.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중의 하나가 요한의 환상 중의 어느 부분과 각종 역사적인 사건들 곧 전쟁이나 싸움과 연관 지어 보려는 것이었고, 이러한 접근 방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본문에 있는 네 기수들에 관한 내용은 인간의 상상력에 특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의 자료가 되기도 했었다.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해 두어야 할 사항은 성경이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어떤 세상적인 사건의 발생에 대한 예언들이 아닌 어떤 특별한 상황 하에 있게 되는 우리의 영혼들에 발생하게 되는 것들에 관한 묘사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눈을 열어 성경 안에 있는 그분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해하도록 해 주셨음을 상기해 본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 봉인들이란 주님께서 성경 안에 들어 있는 내적인 내용들을 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실 때까지 붙여두신 것을 말한다. 주님의 법도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이에 대해서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런저런 생각이 잘못임을 뻔히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이는 피할 수 없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훈이 바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인상되도록 하신 것들 중 하나이다.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이해성의 상태에 따라서 각 개인은 천차만별로 영향을 받게 된다. 네 마리의 말과 네 기수들이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의 영혼이 천차만별로 진리를 받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첫째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진리를 환영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진리의 도움으로 자신속의 결점을 찾아 고쳐보려고 하는데 진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진리를 영접하는 이들이 흰말로 상징되고 있다. 둘째로, 어떤 이들은 말씀속의 진리를 발견하되 자신에게는 그것을 전혀 응용하지 않고 타인들을 질책하는 수단으로써 그것을 즐겨 사용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붉은말로 상징되고 있다. 셋째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관해 성경으로부터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단지 성경의 곳곳에서 여러 구절을 들춰내서 각 구절의 글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논쟁하며 자신들이 들추어 올린 구절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밝힌 것처럼 떠벌린다. 이런 식의 태도가 검은 말로 상징되고 있다. 넷째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들을 위해 성경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여겨 성경을 통째로 거절해 버린다. 이런 경우 주님은 그들의 영혼에 전혀 다가갈 수 없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마음이 푸르스름한 말로 상징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가 그곳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살아갈 때에 더 깊고 깊은 진리가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또는 자아의 중심원리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세계로 가게 될 때 심판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이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풀이」 제 315-316항: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라는 것은 선과 진리가 너무 적어서 거의 없는 듯 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이나 부피를 측정하는 것은 그것의 질(質)을 평가함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314항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밀’과 ‘보리’란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한 데나리온이란 아주 작은 화폐단위로서 아주 소량의 가치를 의미한다. ‘올리브기름이나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추어 놓인 거룩한 선과 진리들을 위반하거나 모독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두셨음을 의미한다. ‘올리브기름’이란 사랑의 선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이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올리브기름’은 거룩한 선을 그리고 ‘포도주’는 거룩한 진리를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성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2) 이 책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 3) 요한이 본 첫 번째는 무엇인가?
- 4) 그분은 누구들을 위해 메시지를 주셨는가?
- 5) 심판의 큰 상징물은 무엇인가?
- 6) 누가 옥좌 둘레에 앉아 있었는가?

- 7) 누가 옥좌 위에 앉아 계셨는가?
- 8) 어떤 생물이 이 환상에서 나타났는가?
- 9) 옥좌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 10) 이 책은 무엇인가?
- 11) 그 책에는 몇 개의 봉인이 있었는가?
- 12) 누가 그 봉인을 뗄 수 있었는가?
- 1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14) 둘째에서 넷째까지의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을 보았는가?
- 15) 다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엇을 보았는가?
- 16)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17) 네 말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봉인이 떼어짐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계시록 2) 사도요한 3) 부활하신 주님 4) 일곱 교회
- 5) 옥좌 6) 24 장로들 7) 주님(어린 양) 8) 거룩들 9) 두루마리, 책
- 10) 말씀 11) 일곱 12) 주님(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어린 양) 13) 흰말
- 14) 붉은, 검은, 푸르스름한 말 15)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
- 16) 지진 등등 17) 말씀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
- 18) 말씀의 내적 의미가 우리 이해성에 열림

39

일곱째 봉인

머리말

본문의 내용은 상응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어지는지도 모른다. 본문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대략적인 윤곽을 통해서 일반적인 의문 사항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8, 9장

8장: 1.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좌 앞에 있는 황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 갔습니다. 5.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 그 때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땅의 삼분의 일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모든 선박의 삼분의 일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을 덮었습니다. 11.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12.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의 삼분의 일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13.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의 불나팔 소리가 셋이나 남아 있다!”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9장: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 나는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2. 그 별이 그 지옥 구덩이를 열자 거기에서부터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연기가 올라 와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3.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4.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 되고 다만 하느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6. 그 다섯 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8.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9. 그리고 쇠로 만든 가슴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찔고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11.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말로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말로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12.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두 가지 재난이 더 닥쳐 올 것입니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4.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5.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정해진 연 월 일 시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6.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리는 기마병의 수효가 이 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17.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었는데 그들은 불빛 같은 붉은 색이나 보라색이나 유흥색의

가슴방패를 붙였고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18. 그 말들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말았습니다. 19. 그 말들의 힘의 근원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20.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마귀들을 경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21.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미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교리 요약

- * 참된 영적 상태는 우리 자신과 관계되는 진리를 대면할 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이다.
- *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신성한 진리이다.
- *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

해설

본문의 환상은 재난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의 물질적인 재난이 아니라 영적인 재난을 의미한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자욱한 연기... 진지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며...”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시사되었음을 기억한다. 하늘로부터의 나팔소리는 신성한 진리의 선포를 상징한다. 그리고 선포의 결과는 신성한 진리에 무관심했다거나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자초된 영적인 황폐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내심이 설령 선하지 않다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선한 체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타인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선호하며, 스스로를 상당히 잘난 존재로 인식하고자 한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선함은 진정한 선함이 아니다. 진정한 선 혹은 가식적인 선은 바깥쪽의 현상, 즉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구별해 내기가 아주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계로 들어갈 때 가식적인 모습은 모두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 그래서 저 세계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저 세계에서는 하느님을 경외함을 사랑하며 순수하게 겸손해지기 위한 방법을 배우지 못한 이들의 내적인 심정상태는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이기적인 포부, 자기 자랑,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서 갖게 되는 분노 그리고 타인들이 자신을 받들고 자신의 비위를 맞춰야한다고 인식하는 이기적인 욕심들이 요한의 환상에서 기이하고 격렬한 메뚜기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을 옹호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 추론들은 파괴적인 말과 그 위에 탄 기수들로 상징되고 있다.

이 밖에도 본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가끔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한 것 곧 주님께서 아주 선하며 사랑만 해주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도록 방치한 악들을 결국에 가서는 눈감아 주실 것이라 상상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서는 사랑 자체이셔서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종국에 가서는 구원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문자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환상은 찌그러지고 파괴적인 인격이 드러나더라도 우리 속의 악이 결코 회개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주님께서서는 참으로 사랑이시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혜 자체이시기도 하다. 그분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즉, 그분께서 생각하는 능력과 내적으로 되고 싶은 모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그분조차도 우리로부터 이러한 능력들을 거두어 가실 수 없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도록 강요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랑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부부사이, 부자지간 혹은 친구사이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우리는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관계에서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듯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것에 대한 사랑을 선택해 가는 시기 또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만드는 시기, 즉 한마디로 파종하는 시기에 불과하다. 저 세계에서의 심판은 단지 뿌려진 씨를 거둬들이는 수확의 시기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풀이」 제 410-411항: “ ‘별들의 이름은 썩이라 하고,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고’란 지옥적인 거짓을 의미하는데, 이 거짓에서 인간적인 총명이 파생된다. 이로 인해 말씀속의 모든 진리가 왜곡된다. ‘별’이란 지옥적인 사랑인 자만에서 튀어나오는 총명을 의미하고, ‘이름’이란

그 총명의 질을 의미한다. ‘썩’이란 지옥적인 거짓을 의미한다. ‘물’이란 진리를 의미하나, 이 구절에서는 말씀속의 진리들을 뜻한다. 그 이유는 주제가 믿음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삼분의 일’이란 모든 것을 뜻한다. 영적 생명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씀속의 진리 외에 어떤 곳에도 생명의 근원이 없게 된다. 그러나 말씀속의 진리가 왜곡되면, 교인들은 자기들 종교의 왜곡된 것에 따라 보고 이해한다. 그러면 그들 속의 영적 생명은 소멸된다. 그 이유는 말씀이 천국과 교통되어 말씀이 인간에 의해 읽혀지면 그 속의 진리는 천국으로 올려 지지만, 그것이 진리와 접합되거나 결합되어 있는 거짓으로 읽혀지면 지옥을 향해 있어 산산이 조각날 뿐이어서 말씀속의 생명은 결국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런 소멸은 말씀으로 거짓을 확증한 이들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확증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소멸되는 지경까지 차단되는 않는다. 나는 이와 같이 산산이 쪼개지는 것을 보았고, 난로속의 불이 나무들을 형편없이 살라 버리는 소음을 들었다.”

질문 정리

- 1) 일곱 봉인을 가진 책은 어떤 책인가?
- 2) 누가 그 봉인을 떼었는가?
- 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4) 둘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5) 푸르스름한 말 위에 탄 승마자는 무엇으로 불렸는가?
- 6)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7)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8)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 속의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자마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0) 요한은 하느님 앞에 몇 명의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가?
- 11) 그 천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 12) 여덟 번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천사는 향로에 무엇을 담았는가?
- 14) 그 다음 그는 무엇을 가지고 향로를 채웠는가?
- 15)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6) 본문에서 몇 개의 나팔이 불어졌는가?
- 17) 이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 18)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
- 19) 끝없는 지옥 구덩이의 악마에게 어떤 두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가?
- 20)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회개했는가?
- 21) 본문은 내적 의미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 22)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에 가도록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말씀 2) 주님 3) 흰말 4) 붉은말, 검은 말, 푸르스름한 말 5) 죽음 6) 제단 아래에 있는 선한 자들 7) 악한 자들 8) 바위가 자기들을 숨겨주도록 9) 침묵 10) 일곱 11) 나팔 12) 금향로 13) 향 14) 제단 불 15)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 16) 여섯
- 17) 우박, 불덩어리, 큰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별이 떨어지고, 태양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다
- 18) 쭉 19) 아바돈, 아폴리온(파괴자) 20) 회개하지 않았다 21) 첫 기독교 시대 안에 있던 선함과 진리의 점진적인 파괴 22) 주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하는 선택

40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머리말

말씀의 전체적 윤곽을 되새겨 보면서 본장을 진행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정점이 되는 부분임을 강조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9-27절

21장: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 두 주춧돌이 있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취옥으로, 20.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 한째는 청옥으로, 열 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이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에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것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교리 요점

- * “거룩한 성”은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들을 규율하기 위해 선택한 천국적인 원리로 건설된다.
- * 새 예루살렘은 삶의 이상향을 그려주는데, 이를 향하여 각 개인들이 날마다 분투하는 것이다.

해설

성경은 1500여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된 책이지만 한 권의 책이다. 그리고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인간을 위해 섭리하셔 왔던 모습을 말씀해주시고, 순진과 신뢰를 잃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찾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인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려하시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거의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직접 세상에 오셔서 악과 싸워서 이기고 행복으로의 길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들에게 보여 주셨다.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사도 요한을 통해 주어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예언서이다. 이 책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선택하게 되는 삶의 종류에 따라 있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밝히 알려준다. 또한 계시록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리에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재난과 같은 결과들을 묘사하는데 지면의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이러한 불행한 결과들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은 우리가 자신속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주님을 인도자로 삼아 따라갈 때 성취하게 되는 그분께서 아껴두신 경이로운 행복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선한 자들의 마지막 상태가 “하늘에서 하느님께서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아름다운 구절로 묘사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라면, 우리에게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이라는 두 가지 삶의 측면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남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에 해당되는 외적인 삶과는 달리 우리 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들로 가득한 내적인 삶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진정으로 중요한 자신임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저 세계로 건너갈 때 이러한 내적인 자아가 지니는 속성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며, 당장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 역시 내적인 자아에 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매우 불행했던 반면 꾀박과 고난 속으로 점철된 삶을 산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경우도 있음이 바로 그 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성”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주도해 가도록 우리가 선택한 원리들로 건설된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배워 순종한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기술된 대로의 아름다운 천국적인 성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성내의 성전은 주님이시며, 그곳의 빛은 그분에게서 비롯된다. 각 개인이 가진 그분의 말씀 속에서 온 진리들은 각기 다른 특별한 광채와 색깔을 보유한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 **성을 쟈 금으로 만든 측량자란** 순수한 이타적 사랑으로 된 주님께서 측량하시는 측량자를 의미한다. 또한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 했다”고 한다. 진실하고 의로운 모든 것과 그분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 그리고 그분을 섬기겠다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가됨에 따라 있게 되는 진실함과 의로움이 바로 길이와 넓이가 상징하는 바다. 이러한 연유로 성을 쟈 것은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도 불린 것이다. 이것은 삶의 이상향에 대한 묘사로서, 우리 각자가 날마다 쟈취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풀이」 제 914항: “그 성벽의 주춧돌이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함은 새 예루살렘 교리 속의 모든 것이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로부터 취해진 것이며 그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리속의 모든 것을 받는 태도에 따라 진리가 다른 빛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열 두 주춧돌’이란 교리속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n. 902). 그리고 ‘벽’이란 글자적인 말씀이다(n. 898).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주님의 새교회이다(n. 879, 880). ‘보석’이란 각각의 말씀 글자의 영적 의미로부터 투명되어(transparent)진 말씀의 글자 의미를 뜻한다 (n. 231, 540, 726, 911). 그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받으므로, 이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에서 온 교리의 모든 것을 받는 태도에 따라 빛나게 된다. 내적 사고는 천국의 빛 안에 존재하여서 지각이라고 불리며, 외적 사고는 세상의 빛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해성은 천국의 빛으로까지도 들어 올려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가 진리를 알고자 하면 그 이해성도 들려지게 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그 도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 3) 그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 도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5)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이 있는가?
- 6) 그 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 7) 성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성벽에는 몇 개의 주춧돌이 있는가?
- 9) 주춧돌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 10) 그 주춧돌은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는가?
- 11) 그 성의 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12) 성안의 성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13) 그 도성을 비추는 빛은 어디서 오는가?

- 14)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5)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 16)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7)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측량했는가?
- 18) 그 도성의 가로 세로는 어떠했는가?
- 19) 측량자가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 20) 우리 교회가 본문을 특별히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21) 성과 성의 길이 순금으로 되었다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22) 누군가가 “당신이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 23) 누군가가 우리 교회 이름을 잘 몰라서 혼동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거룩한 성 2) 하느님, 하늘로부터 3) 새 예루살렘 4) 금 5) 12
- 6) 이스라엘 지파 7) 벽옥 8) 12 9) 사도 10) 보석 11) 금
- 12) 주님이 성전이시다 13) 하느님의 영광 14) 악한 사람
- 15)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힌 자들 16) 선한 삶을 영위했음
- 17) 금자 18) 네모반듯했다 19) 선한 인격은 네모반듯하기 때문
- 20)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주기 때문
- 21)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하여 사랑하는 길을 걸도록 하시기 위함
- 22) 새 예루살렘 교회 23) 계시록 21-22장을 숙독하자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